금주의 법구-〈법구경〉
지난날의 일을 반성하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가면
몸도 마음도 건전해지리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4월 1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47호 2017년 5월 10일 수요일

기부도 즐겁고 재미있게 변화하는 불교 보시문화

[해설] 'FUN+Donation', 불교 보시문화 변화 이끌까

부처님오신날을 전후로 불교 각계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자비보시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꾸며진 다양한 기부방식이 눈길을 끈다. 기부 전문가들은 최근 사회에서 자리잡은 기부방식을 활용해 기도와 연관된 보시에 머물러 있는 사찰문화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즐거운 기부'가 최신 트렌드

자비실천의 방법인 기부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편하며, 또 즐기면서 기부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이른바 즐거움과 기부를 합친 '퍼네이션'(Fun+Donation)이 그 것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신생아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을 비롯해 걷기만 하면 기부금이 적립되는 '빅워크', 게임에서 나무를 심으면 실제 나무심기에 동참이 가능한 '트리플래닛'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결혼과 출산 등 기념일에 기부를 하는 애착형성형 기부도 자리잡고 있다.

불교계는 최근 이러한 퍼네이션 개념을 기부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불교계 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이다.

SNS 활용해 즐거움 확산

아름다운동행은 2014년 아이스버킷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아이연탄맨 캠페인을 2015년 초부터 진행하고 있다. 아이연탄맨은 연탄을 지원한 후 아이언맨의 손바닥처럼 연탄모양을 찍어 SNS상에 인증을 하는 캠페인이다. 2015년 797명이 동참해, 83개 가정에 1만 6700장을 전달한데 이어 2016년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캠페인에 참여해 108개 가정에 2만 16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유미란 모금나눔사업팀 팀장은 "봉사를 참여한 분들의 대부분이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반들과 함께 기부에 동참했음을 SNS를 통해 바로 느낄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최근 조계종성역화추진본부가 진행하는 '채식데이 기부데이' 캠페인도 카

SNS활용 '아이연맨' 높은 호응
음식 레시피 · 기념 카드 발송도
일선 사찰, 불사 · 기도보시 국한
"스토리텔링, 애착증진 도입해야"

카오톡을 활용한 캠페인 확산에 나서고 있다. 캠페인 동참자들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가입하면 매주 목요일 마다 사찰음식 레시피를 받는 것이다. 사찰음식 레시피 제공 후 가입자가 늘어 현재 634명이 가입한 상태다.

스포츠대회 · 기념일 기부 '주목'

여기에 도반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부도 도입되고 있다.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회장 이금석)가 지난 4월 18일 개최한 제1회 생명살림 자선골프대회의 경우 1인당 참가비용 30만원에 특별성금 등을 모아 이날 하루만 총 3000만원의 기부금을 모연했다. 이를 통해 직할교구신도회는 결식아동 돕기에 나선 상태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진행하는 결혼기념일 후원도 눈길을 끈다. 3월 12일 첫 기부가 탄생했다. 기부자인 한대희 씨는 결혼과 함께 조혈모세포 기증에 동참했으며 후원금 100만원도 기부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결혼 등 각종 기념일 후원의 경우 감사문자와 함께 카드를 지속 보낼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사찰에 까지는 미치지 않은 상황이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가 2015년 발표한 '사찰 신도 보시 및 기부인식 조사'에 따르면 신도 92.4%가 사찰 보시금을 납부하지만 그 형태가 불전함과 인등기도비, 신도회비 등으로만 구성돼 있다.

서울 조계사 관계자는 "국화축제에서 신도들의 이름을 단 국화조형물로 기부를 받아 조형물 비용을 충당했는데, 호응이 좋았다. 불교의 사회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신도들이 적극 참여가능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금아이디어뱅크' 등을 운영하는 불자 모금전문가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장은 "불사모연과 기도보시 등에 국한된 기존 보시문화는 불자수 감소 상황에서 사찰 재정 확보에만 머무를 수 밖에 없다"며 "불교계가 다양한 감동이 섞인 스토리텔링과 애착을 증진하는 방식을 도입해 불자들과 일반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보시 · 기부문화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국대, 새 교훈 '지혜 · 자비 · 정진'

개교 111주년 기념식서 선포… 후원 캠페인도 진행

동국대(총장 보광)가 새로운 교훈을 발표했다. 동국대는 5월 1일 서울캠퍼스 본관 중강당에서 개교 111주년 기념식을 열고, 새로운 교훈인 '지혜(智慧) · 자비(慈悲) · 정진(精進)'을 공식 선포했다.

본래 동국대의 교훈은 자리이타를 상징하는 '섭심(攝心) · 신실(信實) · 자애(慈愛) · 도세(度世)'였다. 하지만 1934년에 제정된 기존 교훈이 다소 젊은 세대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많아 새 교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동국대는 교훈재정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설문조사 등의 방법과 토론 및 연구를 진행하고, 이번 기념식에 앞서 새로운 교훈을 선포했다.

동국대는 "새로 정립된 교훈 '지혜 · 자비 · 정진'은 기존교훈의 가치를 계승하면서도 구성원들에게 쉽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학교 후원 캠페인인 '동국사랑 1 · 1 · 1 캠페인'도 진행됐다. 이는 동국대가 개교 111주년을 맞아 시작하는 소액 정기기부 캠페인으로 '1인이 1달에 1만원 이상 학교를 후원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동국대는 이 기부금을 학교전략사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성민 기자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5월 3일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서 거행됐다. 이 자리서 종정 진제 스님은 봉축법어를 통해 무명의 집착에서 벗어나 '본래 부처'임을 자각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노덕현 기자

"모든 중생을 부처로 마주하자"

3일 봉축법요식 봉행… 대선후보들 대거 참석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표어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을 주제로 한 봉축법요식이 전국 2만여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5월 3일 총본산 서울 조계사서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열었다. 법요식에는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들과 문재인 · 홍준표 · 안철수 · 심상정 등 대선후보,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주호영 국회정각회장, 정세균 국회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시민과 불자 등 1만여 사부대중이 운집했다. 각 후보들은 행사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법요식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원로의장 직무대행 세민 스님의 관불로 시작됐다. 또 미국 · 스리랑카대사와 조계사 신도회장단의 헌촉 · 헌향 · 헌다가 이어졌다. 행사에서는 세월호 가족과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표, 장기해고노동자 콜트콜텍 대표, 이주노동조합 위원장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이들이 부처님전에 헌화해 눈길을 끌었다. 세월호 미수습자 조은화 · 허다윤 양 어머니 이금희 · 박은미 씨는 행사 전 자승 스님을 만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법상에 오른 종정 진제 스님은 봉축법어를 통해 무명의 집착에서 벗어나 '본래 부처'임을 자각할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오늘은 부처님께서 강탄하신 인류정신문화의 날이다. 고통의 바다에 빠진 중생들을 위해 대자대비의 연민으로 참나 선원과 참된 생명본연을 만유법계에 천명하신 것"이라며 "이는 본래 생사가 없건만 몸소 생사로써 중생들의 무명의 집착에서 벗어나면 본래 부처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출세한 거룩한 서원"이라고 강조했다.

'차별금지' 표어 의미 담아
해고노동자 · 성소수자 참여
1만 사부대중 조계사 운집
전국 2만여 사찰서도 봉행

이날 자승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시비분별을 멈추면 본래부터 완전한 자성이 모습을 드러내고, 자성이 청정한 줄 알게 되면 순간순간 대하는 온 중생을 부처로서 마주할 수 있다"면서 "모두가 본래 면목을 드러내니 누구 하나 주인공 아님이 없다.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이치를 바로 알면 지혜와 자비의 길이 열린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세상의 풍요를 위해 땀 흘린 노동자의 옷깃에서,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기업가의 열린 미소에서, 자연과 더불어 뿌린 대로 거두는 농민의 손길에서, 상처받은 이웃을 얼싸안는 시민의 아름다운 품에서 우리는 부처의 세상을 본다"며 "가정과 일터, 거리와 사회에서 차별을 없애고 모든 이들을 부처로 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송수근 문체부 제1차관이 대독한 봉축메시지서 "2500여 년 전 부처님께서는 고통 받고 어려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몸소 사바세계에 오셨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며 차별 없는 고귀한 존재임을 일깨워주셨다"면서 "우리는 지난 몇 달간 극심한 분열과 갈등상황을 겪었으며, 지금도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화해와 상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요식서 진행된 조계종 불자대상 시상식에서는 안동일 동산반야회 이사장, 정상석 시인, 금나나 박사, 이용대 배드민턴 선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조계사를 찾으면서 일주문 앞 우정국로는 사전투표 독려와 선거운동 열기로 가득찼다. 〈관련 기사 3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FACT CHECK Q&A – 佛紀에 대한 진실 A5

다음 주 신문은 휴간합니다



법보시

부처님 오신날

마음이 사람을 그릇되게도 만들며, 마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며, 마음이 훌륭한 수행자가 되기도 하고 마음이 천사를 만들기도 하며, 마음이 사람답게 만들기도 하고 마음이 축생으로 만들기도 하며, 마음이 지옥을 만들기도 한다.

〈불반니원경〉

운수납자 합장

생명탈핵 가치 전할 2년 여정 'START'

생명탈핵실크로드 3일 출정

생명탈핵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2년간 서울~베트남~인도~바티칸 등을 순례하는 생명탈핵실크로드단의 여정이 마침내 시작됐다.

생명탈핵실크로드(공동대표 김영호 · 김용복 · 이선종)는 5월 3일 출정식을 열고 2019년 4월 21일까지 이어질 생명탈핵 실크로드 대장정에 나섰다. 생명탈핵실크로드단은 이날을 시작으로 앞으로 2년간 약 26개국 총 1만1000km를 걸으며 탈핵과 생명가치를 전파할 예정이다.

이날 김영호 공동대표(한국학중앙연구원 석좌교수)는 "약 2년 전 처음 생명실크로드를 떠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출발하게 되니 경이롭기까지 하다"면서 "뚜렷한 지원자나 자금 없이도 오늘을 이룬데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김용복 공동대표(아시아태평양생명학연구원장)도 "오늘 세계생명헌장 서울안이 발표됐다. 이를 더욱 발전시켜 방콕, 카트만두 등에서 세계환경운동가들의 지혜를 모아 더욱 충실한 헌장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아름 기자**

부처님이 말씀하신 생명존중사상은?

여성개발원, 불교호스피스 특강

부처님께서 설하신 생명존중사상은 무엇이고, 이를 현대 호스피스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불교여성개발원(원장 노숙령)은 5월 16 · 18 · 23 · 25일 각 오후 1시 총 4회에 걸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존중사상과 호스피스'라는 주제로 강의를 개최한다. 강의는 개발원 산하 생명존중운동본부가 주관하며 18일 강의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서, 나머지 강의는 서울 불광사 불광교육원 2층서 열린다.

강의는 첫날 △불교 호스피스경-지장경을 중심으로(대구의료원 지도법사 정법 스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과 간병의 중요성(명상선원 오솔길 지도법사 평등 스님) 등이 진행된다. 이후 강의는 오진탁 한림대 철학과 교수, 박종훈 고려대 안암병원 정형외과 교수, 윤탁 동국대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 의학전문가와 생명윤리연구가 등이 불교적 호스피스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02)722-2101~2 **윤호섭 기자**

"연등회, 세계유산 기준 부합… 등재주체 있어야"

이재수 동국대 교수, 연등회 국제심포지엄서 유네스코 종교의례 분석해 향후 과제 제시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기준에 부합되므로, 연등회 등재를 추진할 주체를 구성해 실행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교수는 4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연등회보존위원회 주체로 열린 2017연등회 국제심포지엄에서 연등회 세계유산 등재주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수 동국대 조교수

이 교수는 '유네스코 종교의례 등재 현황과 연등회 등재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된 인류무형문화유산 366건을 검토, 이 가운데 종교의례 성격을 지니는 45건(아시아18 · 유럽13 · 아메리카10 · 아프리카4)을 살펴봤다. 이후 종교의례 유산 7건을 선정해 특징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종교의례 유산 특징으로 △공연예술적 요소 △의례의 예능 및 기능 보유 주체에 다양한 계층 참여 △문화다양성 입장서 존중 △교육과 대중적 소통 위한 노력 △축제적 요소 △도구 및 공예품의 문화상품 역할 △보존 주체의 조직적인 역량 등을 꼽았다. 이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기준 5가지에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문화다양성 갖춘 연등회
"등재 시 인류평화 기여"
주체 갖춰 적극 준비하면
2020년 내 등재여부 결정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기준

1. 무형유산협약 제2조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부합할 것
2. 해당 유산의 세계 문화다양성 반영 및 인류의 창조성 입증
3. 신청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마련돼 있을 것
4. 집단, 개인들이 자유롭게 폭 넓게 신청과정에 참여할 것
5. 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돼 있을 것

특히 기준2(문화 간 대화 기여 · 인류 창조성 입증 등)와 관련해 "등재된다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서 행해지는 연등회가 널리 알려져 사회통합과 인류평화를 위한 가치 등이 드러난다. 아울러 연등회 과정서 다양한 참여로 열린 축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문화다양성의 증진 현상을 증명한다"며 "각종 등과 연등행렬에서 전통의 계승과 새로운 문화의 창조적 특성을 여실하게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준4(폭 넓게 신청과정에 참여)에 대해서는 불교계의 주도적인 참여 활동 및 범국민적인 신청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연등회 등재 추진 주체 구성 △등재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수립 △연등회 가치 정리해 신청 작업 위한 체계적 준비 △지속적인 미디어 활동 △자발적인 참여 방안 모색 등 연등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과제를 설정했다. 아울러 계승 · 전승을 위한 교육과 기록화 사업 등을 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또 과제를 중심으로 등재 준비를 한다면 2019년 11월 최종심사 및 등재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2017년에 준비를 충분히 해 2018년 3월에 대표목록 신청을 시작한다면 그 해 9월 신청서 보완사항에 대해 조치할 수 있다. 이어 2019년 6월까지 2차 심사를 거쳐 11월에 신청서 최종심사 및 등재 여부가 결정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연등회는 등불을 밝혀 내면의 무명을 깨고 지혜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광명의 환희심으로 세계를 향해 소통하고 온 생명이 함께하는 열린 축제"라며 "연등회의 역사성과 가치, 전승의 과정은 이미 충분히 논의됐다. 지금까지도 대중적인 인기와 관심 속에서 연등회의 의의가 구현되므로 인류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포지엄에서는 임돈희 동국대 석좌교수가 '연등회의 재조명-유네스코 무형유산정책의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했다. 이어 △축제의 관점에서 본 연등회의 가치와 비전(최민성 한신대 교수) △유네스코가 지정한 종교관련 무형문화유산(아이카와 노리코 前유네스코 무형유산과장) △무형문화유산의 지속 가능성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박상미 한국외대 교수) △푸동사원의 전통축제, Giong(히엔 응우웬 베트남 국립문화예술연구원 교수) 등의 글이 발표됐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동국대 의료원 '확' 바꾸겠습니다

1일 개혁추진단 발대 위원장엔 자광 스님



동국대 의료원은 5월 1일 동국대일산불교병원 4층 중강당서 '의료원 개혁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급변하는 의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동국대 의료원이 변화를 모색한다.

동국대 의료원(의료원장 오민구)은 5월 1일 동국대일산불교병원 4층 중강당서 '의료원 개혁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동국대일산불교병원 개혁추진위원회는 의료 · 교육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동국대 의료원의 지속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됐다.

추진단을 총괄하는 개혁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이 맡았으며,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개혁추진단장으로 위촉했다.

앞으로 개혁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은 일산병원, 일산한방병원,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개혁을 주도한다. 특히 △전문화 △성과평가 개선 △홍보 △공간조정 △의료정보 △한방병원 전략 △대학 전략 등 전략과제 실행과 의견 자문 등은 추진단 산하에 전략과제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진행된다.

향후 동국대일산불교병원은 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변화를 통해 경기도 서북부 지역병원에서 전국 수준의 고난도 중증질환 대학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개혁추진단은 결의문을 통해 지금까지의 소극적이고 책임성 결여에 대해 참회하며, "의료원 발전을 위해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불의와 결탁하지 않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사장 자광 스님은 "일산병원은 불자와 스님들의 염원을 담아 건립된 병원으로 우리가 개혁을 안 하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면서 "현재의 위기와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해, 미래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해법을 함께 협조 · 도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신도지도자' 양성 나서

신도교육 최고위 과정 설정… 이수 시 선혜 품계

조계종이 다른 신도들의 신행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재가지도자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도교육에서 목표설정이 미약하다는 지적 속에 재가자들의 교육 동참에 대한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4월 30일 신도 지도인력 배출을 위해 개설한 온라인 강좌 '신도지도자교육과정'을 6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3개월간 디지털대학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대상은 일정한 신도교육과 신행활동 자격을 갖춘 신도에 한하며, 특히 기존 포교사들을 활용할 계획이다.

신도지도자 자격은 전문포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해 포교사단 추천을 받거나, 일반포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10년 이상 성실히 활동해 포교사단 추천을 받은 포교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 부동품계 품수자 중 신행활동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발심 품계를 수지하고 신행활동경력 30년 이상으로 중앙종무기관장, 본사 주지 스님, 중앙신도회장, 포교사단장 추천을 받은 신도, 재교육을 희망하는 선혜 품계 품수자도 신청할 수 있다.

자격을 신청하면 3개월간 불교교리 및 소양, 포교실천역량, 신행 교육역량, 신행혁신과 불자상, 조직실천지도 역량 등 28개 분야에 걸쳐 교육이 진행된다. 온라인 수업 외에도 회향에서 연수가 진행된다. 이를 이수하면 조계종 신도 품계의 가장 높은 단계인 선혜 품계가 품서된다.

교육 신청은 5월 26일까지로 우편이나 이메일(amita031@buddhism.or.kr)로 접수하면 된다.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내 종무행정 코너 포교자료실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조계종 포교원은 "기복불교에서 지성불교로 바뀌어야 한다는 시대적 필요에 따라 이번 신도지도자 과정을 개설하게 됐다"며 "신행혁신운동의 첨병으로 활약할 신도지도자에 대한 불자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 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5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희귀 6세기 고구려 불상 중국서 발견

문명대 미술사연구소장, 교포 소장 불상 감정해 확인

중국에서 6세기 고구려 시대 불상이 발견돼 불교 · 미술사학계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동국대 명예교수)은 "중국 교포 사업가가 소장하고 있는 불상에 대해 감정 의뢰를 받아 감정을 진행한 결과 고구려계 금동불입상 진품임을 확인했다"고 5월 1일 밝혔다.

고구려계 불상은 굉장히 희귀하다. 현재 알려진 고구려 불상은 대부분 일제의 조사 발굴과 수집에 의한 것들이다. 북한에서도 고구려 불상이 발견된 예는 1~2차례에 불과하다.

한국에서는 국보 제119호 연가7년명 금동불입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제72호 계미명금동불입상(간송미술관 소장)을 비롯해 연천 소루 발굴서 출토된 소금동불상 등이 고구려계 불상으로 확인됐다.

문 소장은 발견 경위와 분석을 담은 소논문을 통해 이번에 발굴된 불상을 '고구려 공형육계식(球形肉 式) 금동불입상'이라고 명명하고, 조성 연도가 연가7년명 불상과 계미명 불상의 사이인 6세기로 추정했다. 시기적으로만 보면 새로 발견된 불상은 현존하는 고구려 불상 중 두 번째로 오래된 불상이 된다.

발견 및 경위에 대해 문 소장은 "지난해 5월 중국 교포 사업가가 고구려

두 번째 오래된 불상 추정
연가7년-계미년 사이 조성
불상 기법 이행과정 보여줘
미술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

불상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보내와 중국 현지서 2차례 불상을 조사했다"면서 "불상 구입 직후인 지난해 11월 조사에서 연가7년명금동불입상과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고구려계 불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새로 발견된 불상은 높이 18.5㎝, 너비 8.6㎝로, 불신(佛身)부터 광배(光背) · 대좌(臺座)를 두루 갖췄다. 불두(佛頭)에 공처럼 생긴 둥근 육계가 형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육계는 삼국시대 불상 중 고구려 불상에서 잘 나타난다.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이 감정한 '공형육계식 금동불입상'의 모습. 6세기 중엽 조성된 고구려 불상임이 확인됐다.

문 소장은 "새로 발견된 불상은 공형육계나 수인 등에서 계미명불입상과 유사점이 발견되지만, 장식성이 풍부한 '일광삼존불'인 계미명불입상보다는 좀 더 질박한 '일광독존'의 연가7년명불입상에 보다 가깝다"면서 조성 연대를 525~550년 전후로 봤다.

이 같은 고구려계 불상은 고구려 불상 조성 양식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일광독존식 연가7년명 불상서 일광삼존식 계미명 불상으로의 변화 흐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 소장은 "발견된 공형육계식 금동불입상은 10여 점밖에 남아있지 않은 고구려 불상의 하나로 의미가 크다"면서 "특히 연가7년명 · 계미명 불상으로 이행되는 불상의 변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불상이다. 향후 불상은 고구려 불상 연구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문화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소장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강좌 미술사〉6월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영화 '비구니' 스틸컷. 사진제공=임권택영화박물관

영화 '비구니' 33년 만에 세상 밖으로

4월 28일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서 월드프리미어

1984년 제작이 중단된 임권택 감독의 영화 '비구니'가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부분 복원판이 첫 공개됐다.

영화 '비구니'는 출가한 여인이 번뇌하는 과정과 구도의 길을 담은 작품으로 감독 임권택, 촬영 정일성, 대본 송길한, 주연 김지미 등 당대 최고 영화인들이 참여해 제작 당시 큰 화제를 끌었다. 하지만 불교계에서 여주인공인 비구니의 행실을 문제 삼아 강력히 반발해 제작이 중단된 바 있다. 이유는 여주인공인 스님이 전쟁통에 고아들을 구하기 위해 트럭운전사와 움막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불교를 모독했단 것.

이번 부분 복원판은 당시 제작 중단 사태 후 33년 만에 첫 공개되는 것으로, 관계자 증언을 담은 다큐멘터리 22분을 포함 총 65분 분량이다. 4월 28일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서 진행된 송길한 작가 특별전 '작가 송길한, 영화의 영혼을 쓰다'에서 상영됐다.

이날 배우 김지미 씨는 "임권택 감독님과 함께 전국 사찰을 돌고 관찰하며 비구니 캐릭터를 완성했다"면서 "이렇게 전주에서 다시 보니 참으로 기쁘다. 이 자리를 만들어준 송길한 작가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대선 앞 부처님오신날, 佛心잡기 눈길

사상 최초 대선 앞 법요식… 법회 참여·메시지 발표도

문재인 후보 등 조계사 집결
유승민 후보는 동화사 찾아
후보 배우자들 봉은사 참석
조계사 앞 대선홍보도 치열

사상 최초로 대통령 선거 직전 열린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는 대선후보들이 모두 참여해 불심잡기에 나섰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부인 오선혜 여사 등은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법요식 시작 전 조계종 총무원이 위치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불교계 스님들을 예방했다. 유승민 후보는 대구 동화사 법요식에 참여해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각 후보들의 법요식 참여로 올해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은 다른 때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으며 취재열기도 뜨거웠다.

이와 함께 각 후보 측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메시지를 내놨다. 문재인 후보는 "2561년 전 이땅에 오신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다 같이 존엄함을 일깨워 주셨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국민의 여망을 한시도 잊지 않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만을 바라보며 수도자의 마음으로 무소의 뿔처럼 용맹정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홍준표 후보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 자비가 온누리에 펼쳐지고 편안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축원했다. 안철수 후보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갈등과 분열 속에 있을 수 없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베푸셨던 부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가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이곳 조계사에 오는 길에 광화문을 거쳤다. 그곳 지상에는 3년이 흐른 지금도 사랑하는 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는 유가족들이 여전히 머물고 있다. 그곳 공중에는 여섯 명의 노동자들이 물과 소금으로 해고와 노조탄압에 항의하고 있다. 그들 모두가 동료들과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날을 헤아려 본다"며 "우리 국민 모두를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로 대접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선후보들은 5월 3일 조계사서 봉행된 봉축법요식에 대거 참석했다. 왼쪽 사진은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각 당 후보들이 삼귀의를 하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조계사 앞에서 한 사람이 투표 독려운동 피켓을 든 모습이다.

동화사 법요식에서 유승민 후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로병사 중생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저희 정치하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또 "어려서 어머니 손에 끌려 동화사에 오고, 공부하기 싫어 석 달간 부도암서 살기도 했다"며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 배우자 이순삼 여사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배우자 김미경 교수도 3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각 대선후보들의 불심잡기에 힘을 보탰다.

한편, 법요식이 진행된 조계사 앞 대로에서는 각 후보진영의 유세차량을 동원한 선거홍보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또 투표를 독려하는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돋보였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처님오신날 때 아닌 종교편향 논란

세종청사 · 장성군 봉축등 설치 불허로 불교계 공분

문화재 인식 부재 비판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봉축점등탑과 거리연등 설치를 불허하며 종교편향 논란이 일었다.

세종시불교신행단체연합회(사무총장 김동협)는 4월 29일 성명을 통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세종지역 불교계가 나서 추진한 세종청사 앞 봉축 점등탑 설치를 불허했다"며 "설치 불허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연등회는 정부차원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로서 위상이 높다. 성탄 트리는 '문화적 구조물'이고 봉축 장엄물은 '종교적 시설'이라는 정부부처의 종교 편향성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에 앞서 2016년 국비를 들여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한 정부세종청사는 연합회의 요청에 대해 "국유지에 종교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며 봉축 점등탑 설치를 불허한 바 있다. 세종청사 측은 "트리는 연말연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적 개념의 구조물"이라고 답해 불교계 공분을 사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청사관리본부는 5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정부예산으로 크리스마스트리 등을 세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봉축탑과 장엄물이 전통문화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 종교편향은 아니다. 각 종교계 요청 시 건립공간 제공은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장성군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지역 교계의 연등설치 제안을 불허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장성군 재무과 관계자는 "백양사 등과 수차례 논의과정을 거치며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산 것"이라며 "연등행렬이나 행사는 가능하나 불교적 이미지가 강한 연등을 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을 드렸고, 군청보다 장성역 광장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추천했다"고 답했다. 백양사 측도 "현재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제1회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

주제 : 대행선이란 무엇인가?

초대의 글

한마음선원에 주석하면서 일평생을 오직 광도중생의 길을 걸어온 대행 선사에 대한 연구입니다.
연구원이 발족된 지 10개월 만에 개최하는 학술회의라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시작이 반이기에 조촐하게나마 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대행 선사가 걸은 광대무변한 발자취를 한꺼번에 다 표현해 낼 수는 없기에, 차후 다시 가다듬고 보충하면서 계속 선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할 것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첫발을 내디딘 대행선의 연구에 대하여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주시고, 부디 동참하시어 좋은 의견을 피력해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 원장 이평래 합장

대회식순

1부 개회식
10:00~11:00 [사회: 혜선스님]
· 개회사
· 삼귀의례
· 뜻으로 푼 반야심경
· 인사말씀
· 내빈소개
· 환영사
· 축사
· 사홍서원
· 공지사항
11:00~11:20
· 차와 담소

2부 학술발표
11:20~12:00 기조발표: 이평래 [본원 원장]
논제: 한마음을 요체로 한 대행선에 관하여
12:00~13:30 점심공양
[사회: 윤창화(민족사대표)]
13:30~14:10 발표: 김광식(동국대)
논제: 대행 선사의 행적에 나타난 혁신불교의 성격
논평: 김경집(진각대)
14:10~14:50 발표: 김호귀(동국대)
논제: 대행선 형성의 사상적 배경
-본래성불사상과 관련하여-
논평: 이덕진(창원문성대)
14:50~15:20 차와 담소
[사회: 오지연(천태불교문화연구원)]
15:20~16:00 발표: 박소령(동국대)
논제: 대행 선사의 한마음사상에 대한 교리적 근거 고찰
논평: 권탄준(금강대)
16:00~16:40 발표: 차차석(서울동방문화대학원대)
논제: 대행 선사의 오공의식에 나타난 사상적 특징과 연원 고찰
논평: 남수영(동국대)
16:40~17:00 차와 담소
17:00~18:00 토론광장 [좌장: 김용표(동국대)]
18:00~18:10 총평 / 마무리 인사 [본원 원장]
18:10~19:00 저녁공양

일 시 : 2017년 5월 19일 (금) 09:30 ~ 18:10
장 소 : 한마음선원 3층 강당
문 의 :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 031.470.3277 F. 031.470.3116

일 주 문



고운사 경내 카페 개업

호성 의성 고운사 주지 스님은 4월 26일 경내에서 불교용품점 · 카페인 '천년솔향 우화루 커피'를 개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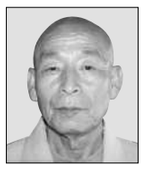
대흥사 조성택 교수 특강

월우 해남 대흥사 주지 스님은 5월 17일 오후 7시 해남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조성택 고려대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한다.



동련 지도자 연수회

성행 (사)동련 이사장 스님은 6월 10~11일 보은군 속리산 유스타운서 '제62차 전국 어린이 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도광 법화종 대구경북종무원장 스님은 5월 3일 부처님오신날 기념 법회 및 관욕식과 연등축제 및 문화공연을 개최했다.



종로노인福 어버이날 행사

정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스님은 5월 11일 오전 10시 종로 국일관 9층에서 어버이날 기념행사 '바운스 바운스 시즌3'를 개최한다.



세계 인명사전 '마르퀴즈' 등재

이용중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국제법 연구로 2017-18년 '마르퀴즈 후즈후' 세계 인명사전에 등재됐다.

생명나눔, 특별환자 치료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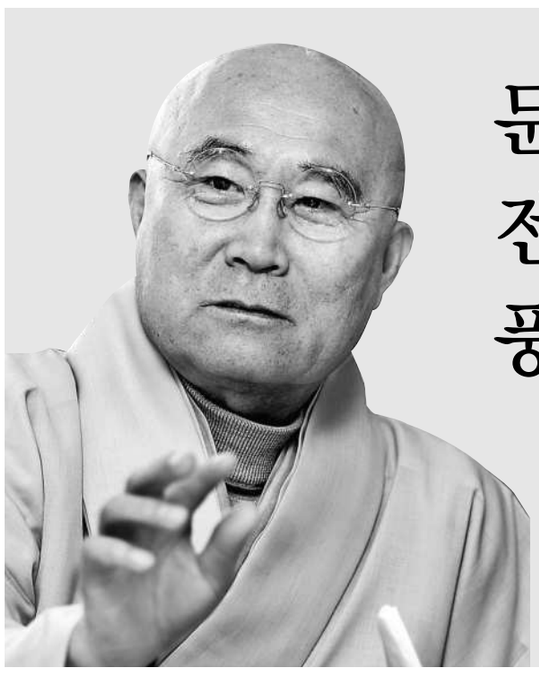
남양주시불교聯 법요식서 5명 환자에 전달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4월 26일 남양주시불교연합회가 개최한 봉축 법요식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특별환자 치료비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생명나눔은 어려운 형편 탓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 5명에게 치료비를 전달했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생기길 기원한다.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치료받아 꼭 쾌유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아름 기자



문화 예술 활용한 전통문화 축제 연다… 풍수, 명리학, 음악 등

Interview

지원 스님(前 조계종 포교원장, 육지장사 주지)

"우리 불교는 사찰이라는 좋은 성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심에 위치한 포교당을 제외한 전국 사찰들은 거의 대부분 명산과 계곡을 끼고 있습니다. 특히 고찰들은 그 옛날 선지식들이 이런 산과 배산임수 등 풍수지리에 맞게 당우와 건축물들을 세웠지요. 그래서 산사에 가면 좋은 에너지가 생성되고 활력 넘치는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 사찰에는 이처럼 풍수지리를 비롯해 한국의 전통문화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양주 육지장사서 4월~6월 불교문화를 포괄하는 2017 '동양 5천년 전통문화 축제'를 마련합니다."

前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사진)은 지난 4월 23일부터 6월 18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자신이 주지로 있는 양주 육지장사와 서울 은평구 삼보사서 2017 '동양 5천년 전통문화 축제'를 열고 있다. 스님은 "3년 뒤인 2020년에 육지장사서 세계문화 명상 페스티벌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불교 풍수지리, 사주명리학, 관상, 음악, 침과 뜸, 뇌과학 등 동양의 인문학과 현대인들이 큰 관심을 갖는 문화예술 등의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도 듣고 시연도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라고 축제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4월 23일 축제 첫 날 풍수 전문가들 사이서 '대한민국 최고의 풍수 대가'로 꼽히는 김승호 학자를 초청해 주역으로 땅의 이치를 풀어낸 '주역풍수'의 개념과 체계를 강의해 큰 인기를 끌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4월 30일 동국대 교수 세준 스님이 펼친 '천년을 이어온 불가의 풍수지리' 강의는 스님들도 청중으로 많이 참가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지원 스님은 "물고기가 물에 살 듯 사람은 '기운의 바다'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공간의 기운을 흡수하지요.

6월 18일까지 매주 일요일 개최

전문가 초청 특강 및 템플스테이

6월 10~11일 다문화 축제도

"2020년 세계 명상 페스티벌 계획"

그래서 사람은 '사는 곳'을 경건하고 진중한 마음으로 잘 살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니까요. 집은 물론이고 실내의 가구 한 점, 그림 하나까지도 의미를 갖고 운명에 영향을 주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것에 지나치게 무심해 괜한 화를 부릅니다. 이러한 생활 속 이치를 터득하기 위한 강의였는데 반응이 좋아 다시한번 기획할까 고심 중입니다."

이외에도 이번 전통문화 축제서 눈길을 끄는 것은 5월 20일 오후 6시 30분 열리는 한국방송작가와 일반인 템플스테이 및 이야기가 있는 팝송 해설공연이다. 출연진으로는 최고은, 루크 맥킨, 정단, 소리내밴드 등 국내외 정상급 뮤지션들이 무대에 선다. 지원 스님은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는 리듬과 멜로디를 고즈넉한 산사서 들으며 그동안 쌓인 번뇌망상을 훌훌 털고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시간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열리는 '제1회 직업문화체험+이민 다문화 가족축제'도 함께 참여해 볼만하다.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네팔 필리핀 다문화 가족을 초청해 각 나라의 음식과 의상 및 문화를 알리는 체험전도 마련한다.

지원 스님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가보지 않고서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근로자나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체류 외국인과의 이런 어울림 마당을 통해 각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원 스님은 "앞으로 다양한 연령층을 포교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을 포함한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방편으로 삼는 것도 하나의 포교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템플스테이 역시 현대인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활용하면 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사찰을 찾아 올 것 입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동양 5천년 전통문화축제 일정

이번 축제의 세부적 일정은 다음과 같다. △4월 23일(일) 오전 10시 30분=주제:그곳에 좋은 기운이 모인다(강사:김승호 학자), 장소 육지장사 △4월 30일(일) 오전 10시 30분=주제:천년을 이어온 불가의 풍수지리(강사: 세준스님 동국대 교수), 장소=육지장사 △5월 14일(일) 오전 10시 30분=주제:손바닥 한중에 내 인생이 보인다, 장소=삼보사 **△5월 20일(토) 오후 6시 30분 =** 한국방송작가 템플스테이 및 팝송 해설 **21일(일) 오전 10시 30분 =** 주제:때를 찾는 지혜 동양미래 예측학 사주 명리학(강사:소재학 동국대 교수), 장소=육지장사 **△5월 28일(일) 오전 10시 30분 =** 주제:돈이 되는 얼굴, 복있는 얼굴, 인기 있는 얼굴 만들기(강사: 노승우 동국대 교수), 장소=삼보사 **△6월 4일(일) 오전 10시 30분 =** 주제:춤추는 뇌, 움직이는 명상(강사:김연금 뇌과학박사), 장소=삼보사 **△6월 10일 오후 3시~11일 오후4시,** 제 1회 직업문화체험+이민, 다문화 가족축제, 장소=육지장사 **△6월 11일(일) 오전 10시 30분 =** 주제:옷을 잘 입어야 운도 따른다(강사:이기향 한성대 교수), 장소=육지장사 **△6월 18일(일) 오전 10시 30분 =** 주제:산사서 전승된 침과 뜸 이야기 및 체험, 장소=삼보사 (문의)양주 육지장사(031-871-0101), 삼보사(02-352-6406), yukjijangsa.org

김주일 기자

연등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



연등장학재단은 4월 30일 대구 제2석굴암 비로전 법당에서 제12회 대구경북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연등장학재단 이사장 법등스님과 노동일 前 경북대 총장 및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장학금은 경북대 대학원생 손정희 씨 외 대학생 10명에게 각 100만원, 고등학생 22명에게 각 50만원 등 총 33명에게 2,200만원이 전달됐다. 그간 수혜자는 총 534명으로 4억2,100여만 원이 지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군산교도소 봉축수계법회

고창 선운사, 재소자 31명 수계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4월 25일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군산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을 위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500여 명이 동참한 행사에서 주지 경우스님은 김지철(가명) 씨 등 불교반 재소자 31명에게 삼귀의계와 오계를 설하고, 참된 불자로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해 정진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포교사단, 소년원생과 '봉축'

고령정보산업학교서 300명 대상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윤중근)은 5월 1일 고령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에서 원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 소년원생들에게 부처님 탄생의 참 의미를 전했다. 이날 윤 단장은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원생들도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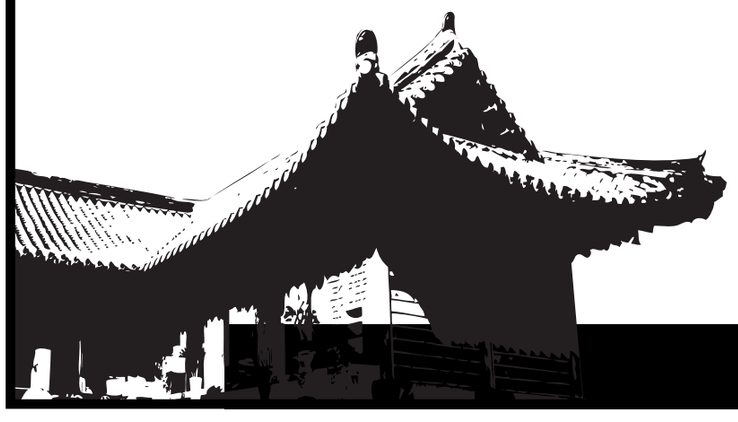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지 2561년?

Fact Check Q&A
불자들은 몰랐던 佛紀에 관한 진실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이 밝았다. 부처님 자비가 온누리에 펼쳐진 이날, 많은 이들은 저마다 자비실천의 각오를 다지며 새로운 서원을 세울 것이다. 많은 불자들이 불기를 무심코 사용하지만 이에 대한 오류가 많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팩트체크를 통해 불기에 대한 논란을 짚어본다. **노덕현 기자**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 탄생 2561년?

틀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이라고 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처님께서 탄생하신지 2561년이 되었다고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불기는 '불멸기원(佛滅紀元)'의 줄임말로 부처님이 열반한 해를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다. 즉,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은 부처님 입멸한지 2561년 만에 맞는 부처님오신날이란 뜻이다. 부처님께서는 80세까지 사셨다고 기록이 전하고 있으니 부처님 탄생으로는 2641년이 맞다.

■부처님 입멸시점 2561년인가

아니다. 사실 부처님의 탄생이나 열반 연도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역사적 실재 인물로서의 부처님이 출생하고 입멸한 연월일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는 가르침을 문자로 기록하지 않고 암송하는 인도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간과 공간 개념을 초월하고자 하는 인도인들의 사유구조에서 역사연대 기록은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후대 학자들은 부처님의 일대기를 전하는 전기나 설화 등으로 부처님 출생과 입멸 시기를 추측하고 있다.

그로 인해 부처님의 입멸 시점은 각 나라마다 달랐다. 스리랑카에 전해오는 BC543년 설과, 태국과 미얀마에 전해오는 BC544년 설, 중성점기(우팔리 존자가 1차 결집후 안거, 해제 후 찍은 점의 기록)에 의한 BC485년 설, 가이거의 BC483년 설, 막스뮬러의 477년 설, 일본불교학자 우이 하쿠쥬의 BC386년 설, 나카무라 하지메의 BC383년 설 등 부처님 입멸과 관련된 설도 여러가지가 있다.

하지만 부처님 입멸 2500년을 기념해 열린 1956년 WFB세계불교도대회에서 남방불기 기준 중 태국과 미얀마의 BC544년 설로 통합을 결의한 바 있다. 즉, 서기를 불기로 변환할 때는 544년을 더하면 된다. 즉, 2017+544=2561년이다.

■부처님은 4월 초파일 탄생하셨나

그렇다면 부처님은 음력 4월 초파일에 탄생하셨을까? 각 나라마다 부처님오신날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님 탄생일인 부처님오신날을 음력 4월 8일, 즉 사월 초파일로 지정해 기리고 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북방불교계는 음력 4월 8일 부처님 탄생일을 기한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연다. 여기에 성도절, 열반절은 날짜가 달라 별도로 기념한다.

북방불교계 중 일본의 경우 음력이 아니라 양력으로 부처님오신날을 기린다. 하나마츠리(花祭)라고 불리는데 양력 4월 8일에 펼쳐진다. 일본은 1873년부터 그레고리력이 적용되어 모든 행사는 양력으로 치른다.

남방불교계의 경우 탄생, 성도, 열반일을 하나로 묶어 음력 4월 15일 웨삭데이를 지낸다. '웨삭(Vesak)'은 빨리어 '위사카(visakha)'에서 유래했다. 남방불교 전통에 의하면 부처님은 위사카달의 보름날에 탄생·성도·열반했다고 한다.

■남방불교 웨삭데이는 모두 같다?

현재는 맞다. '웨삭'의 유래인 위사카(visakha)는 사용되는 음력에 따라 달랐다. 태음력을 토대로 한 인도력의 한 달은 '흑분'과 '백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흑분은 흑월이라고도 하는데, 달이 이지러지기 시작하는 음력 16일부터 30일까지를 말한다. 백분은 달이 차기 시작하는 1일부터 15일까지다. 인도력에서는 흑분의 며칠날, 백분의 며칠날로 날을 헤아린다. 이 중 백분의 15일이 만월(purnima) 날로 붓다 만월 날이라고 하며 '위사카 제'라고도 한다. 위사카 달은 인도력 절기상 둘째달에 해당하지만 네 번째 음력달이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남방불교국가에서 음력 4월 15일이 어떻게 부처님 탄생일로 정해 졌을까. 이는 1956년 네팔 카트만두에서 열린 제4차 세계불교대회에서 확정하면서부터다. 부처님 탄생일이 서로 달라 일어나는 혼돈을 막고 공통된 기념일을 제정하기 위해 열린 이 대회에서 양력 5월 15일을 공통으로 기념하는 부처님 탄신일로 결정했다. 하지만 양력과 보름달이 뜬 날과의 괴리에 1998년 세계불교도대회에서 양력 5월 보름달이 뜬 날(음력 4월 15일)이 웨삭데이로 확정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9년 UN에서도 북방불교국가들의 행사일인 음력 4월 8일을 채택하지 않고, 음력 4월 15일을 '유엔 웨삭데이'로 지정하였다.

■2561년, 문제는 없나

2007년 한국불교계는 불기 표기를 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진 적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 불기 표기가 세계불교도대회에서 합의된 연도보다 1년 빠르다는 지적이 한국불교 학계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는 서기에 544년을 더하는 반면, 태국과 미얀마, 캄보디아 등은 이보다 1년 늦은 543년을 더한다는 것이었다. 태국에서 올해는 불기 2560년인 것이다.

이에 조계종 중앙종회는 불기 사용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우리나라만 불기 계산이 틀리다는 지적에 의해 연구를 진행했지만 불교국가 중 12개국이 우리나라와 동일한 불기를 사용하고 있고, 부처님이 해탈한 기원전 544년을 원년(元年)이냐 주년(週年)이냐로 보는 차이에 따라서도 연도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들어 불기 계산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불기 계산을 변경할시 초래하는 다양한 문제점도 판단에 고려됐다.

본래 불기 산정의 기원은 부처님이 입멸한 해 즉, 기원전 544년 우기철이 되자 승단 행자들이 모여 안거를 보내고 나서 처음으로 안거를 마치면서 한 해씩 헤아린 일에서 비롯됐다. 불기 1년은 '부처님 없이 하안거를 보낸 첫 해'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적으로 서기인 그레고리력과 동시에 불기가 바뀌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불기 계산은 WFB 합의사항, 남방불교계와 달리 동안거가 있어 하안거만을 기준 삼기 힘든 북방불교계의 상황, 서기 사용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식불기만 쓰나

현재는 그렇다. 하지만 '불기 2955년'이라고 새겨진 고성 건봉사의 돌솟대와 '불기 2972년'이라고 쓰여진 예산 수덕사 경내 현판, '불기 2963년'이라고 쓰여진 범어사 천왕문 초석 등 사찰 곳곳에서는 500년 가까이 앞선 북방불기 표기를 볼 수 있다.

사찰에 있는 근 500년 앞선 불기는 1966년 이전 세워진 불교건축물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불기로 1966년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WFB 불기를 도입키로 하기 전 사용된 북방불기다. 이는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당초 현재 공식 불기보다 훨씬 연대가 앞선 기원전 10세기를 열반 연도로 보는 설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북방불기와 남방불기는 483년이 차이가 난다. 즉 불기 2963년 건립된 것으로 쓰여진 범어사 천왕문 초석은 남방불기로는 2480년, 서기로는 483년에 544년을 더한 연도를 뺀 1936년에 세워진 것이다.

2007년 조계종 불교계산 특위 실무위원으로 연구조사를 담당한 조준호 고려대 철학연구소 교수는 "사실 열반일을 기리는 것보다 불교의 출발인 성도일을 기리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불기 기준도 성도일로 삼는 것을 고려해 볼 만 하다"며 "현재 불기는 WFB 등에서 정해졌지만 각국이 다른 상황이다. 불교 주도권을 둔 미묘한 상황이 겹쳐있기 때문이다. 한국불교계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국제적 연대가 중요해진 지금, 한국불교계가 불기와 부처님오신날 행사 등을 정하는데 영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의
손에서
맛으로
피어나다

#힐링 #행복 #건강 #여유 #자연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템플스테이 TEMPLESTAY
사찰음식
VON DINA
고향발



조계사 교육국장 승묵 스님(사진 왼쪽)과 포교국장 설호 스님(사진 오른쪽)이 벽지를 분리하고 있다.

"어려운 이웃 돕는데 승속이 따로 있나요?"

조계사 부처님오신날 앞둔 '자비의 집수리' 눈길

총 15명 독거어르신 돕기 나서
가재도구 옮기고 도배 실시
싱크대 · 냉장고 · 후원품도 전달

"하나 둘 셋!" 이른 더위가 몰려온 4월 28일, 종로의 한 골목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려온다. 사람들이 모여 힘을 모으자 무거운 소파도 번쩍 들렸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스님들과 종무원, 신도들이 한마음으로 진행한 독거어르신 집수리에서 더위를 잊은 환희심만 가득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부처님오신날 맞이 소외계층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정 2곳에서 '자비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집수리 봉사활동이 사중에 공지되자 조계사 포교국장 설호 스님과 교육국장 승묵 스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리고 조계사 신도와 종무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소속 봉사자 등 15명이 스님의 뒤를 따랐다. 이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4월 마지막 주 주말,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집수리 봉사활동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과 조계사가 함께 사전조사를 거쳐 두 집을 선정했다.

봉사단이 찾은 집은 중풍, 당뇨, 관절염 등의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가정이었다. 한 어르신은 이혼 후 당뇨와 허리수술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으며 다른 한 어르신은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각기 주택이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이 곰팡이로 오염돼 있는 등 위생상으로도 매우 취약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스님과 종무원, 신도들은 2층 월세집의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고, 노후 형광등을 교체했다. 또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냉장고도 새로운 것으로 설치했다. 오래된 가구를 치우자 집안 곳곳에서는 쓰레기가 나왔다. 자신의 몸을 가누는데도 벅찬 어르신들에게 이런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한나절 동안 봉사자들이 붙어 도배 등을 하자 집안에 산뜻한 공기가 가득 찼다. 어르신들은 새집처럼 탈바꿈한 보금자리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어르신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수작업을 못 하고 살았는데 부처님의 큰 자비를 받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조계사는 이들 가구에 쌀과 부식, 라면과 국수 등 후원품도 지원했다. 조계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삶을 돌보자는 사중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계기로 보다 많은 불자들이 자비나눔에 동참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의미를 실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스님들, 미국 현지 포교 체험

국제전법단 미주서 연수교육 및 포교현황 파악



조계종 국제전법단(단장 계성)은 5월 15일까지 미국 현지 포교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전법단 자비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에서 전법단원들은 LA 달마사, LA 한국교육원에서 2박3일간 교육원 인증 승려 연수교육 '미국불교 전법 현황과 포교 전략'도 소화한다.

연수에서는 전법단장 계성 스님을 비롯해 부단장 도제 스님, 덕신 스님,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과 LA 조계종연합회장 현일 스님, LA달마사 주지 정범 스님 등이 승려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에서는 해외포교 전법사의 활동 및 사명, 미국 서부 한국불교 전법사와 이주민 현황 및 포교방안 등도 논의된다.

이와 함께 법왕사 · 정혜사 · 달마사 · 고려사 등 4개 사찰 일요법회와 텍사스 댈러스 보현사 특별법회, 불광선원 · 원각사 · 보리사 · 원적사 등 뉴욕 사찰 일요법회로 포교전략을 분석한 뒤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타불교국가의 미국 포교방안도 체험할 계획이다.

국제전법단 측은 "국제포교 현장에서 부딪치는 여러 문제와 실무를 알아가는 과정은 미주포교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광진노인복지관, 18일 효사랑 한마당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5월 18일 어버이날을 기념해 어르신들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제14회 효사랑 나누기 한마당'을 실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버이에게 사랑과 감사의 뜻을 전하는 '어버이날 기념식 및 경로축제'가 진행되며 신노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훌륭한 어버이상' 표창, 문화공연, 무료 중식제공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사랑채 페스티벌 아름다운 추억 여행'을 주제로 지역 어르신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측은 "'제14회 효사랑 나누기 한마당'을 통해 노인공경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인복지사업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탈북민 디자인 아카데미 수료식

분당 한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가섭)은 4월 29일 직업체험센터에서 디자인아카데미 3기 수료식을 진행했다.

디자인아카데미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전문교육으로 바리스타에 대한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한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3기 수료식에서는 약 30명의 수료생이 배출됐다. 이들은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취업, 창업, 재능나눔 등 교육을 통해 우리사회에서의 적응방법을 터득했다. 수료식에서는 후원처인 (주)원인터시스템의 축하선물 전달 등도 이뤄졌다.

가섭 스님은 "아카데미에서 배운 것들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물심양면 협력해준 분당경찰서와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사찰림硏 서울시 동네숲 가꾸기 사업자 선정

불교계 사찰숲 연구기관인 한국사찰림연구소가 서울시 골목길 가꾸기 사업의 참여단체로 선정됐다.

한국사찰림연구소(이사장 종수)는 5월 1일 서울시 '2017년 동네숲 가꾸기 공모사업'에 응모해 영등포구 도림동 일대 골목길을 동네숲으로 개선하는 사업자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동네숲 가꾸기 사업은 녹지가 부족한 도시에 꽃과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특색이 있는 골목길 등으로 경관으로 개선하는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한국사찰림연구소 등 10개 단체에 최대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사찰림연구소는 조계종이 지원하는 불교시민사회단체로 선정, '소외계층여성 숲힐링프로그램' 등을 진해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장애 이겨낸 佛心, 佛音으로 전합니다"

보리수아래, 장애시인 음반 발표공연 개최

불자 장애인 문화단체인 보리수아래(대표 최명숙)는 5월 6일 춘천 강선사에서 장애시인들의 작사음반 〈시, 그대 노래로 피어나다〉를 발표했다.

이번에 제작한 음반은 문화채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후원으로 장애시인 작사, 비장애음악인 작사, 편곡 등 총 12곡이 수록됐다.

참여한 장애 작가로는 김소영. 김영관, 김지원, 김준엽, 김미선, 정상석, 장효성, 성인재, 이경남, 최명숙 등이며 작곡은 민성숙, 도신, 국악인으로 피아노 병창으로 유명한 최준. 시노래 풍경 진우 등이 참가했다.

이와 함께 발표공연은 음반에 수록된 곡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국악인 겸 피아니스트 최준이 작곡한 노래를 피아노 연주와 함께 수화노래 등으로 불렀다.



4월 25일 보리수아래 10주년을 기념해 한국불교역사문화관 전통공연장에서 열린 '시, 그대 노래로 피어나다'의 모습이다.

보리수아래 최명숙 대표는 "작곡, 노래, 후원, 관객 등 동참자들이 장애시인들의 활동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기회"라며 "비장애 아티스트들이 열정적으로 참가하여 장애인예술 활동에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모임인 보리수아래는 봉화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의 제안으로 2005년 6월 결성됐다. 주요사업으로 장애인의 예술창작과 발표기회제공, 문화예술교육과 지원, 개인작품집출판 지원과 음반 제작, 장애인의 인식개선사업, 탬플스테이 및 불교문화 탐방 실시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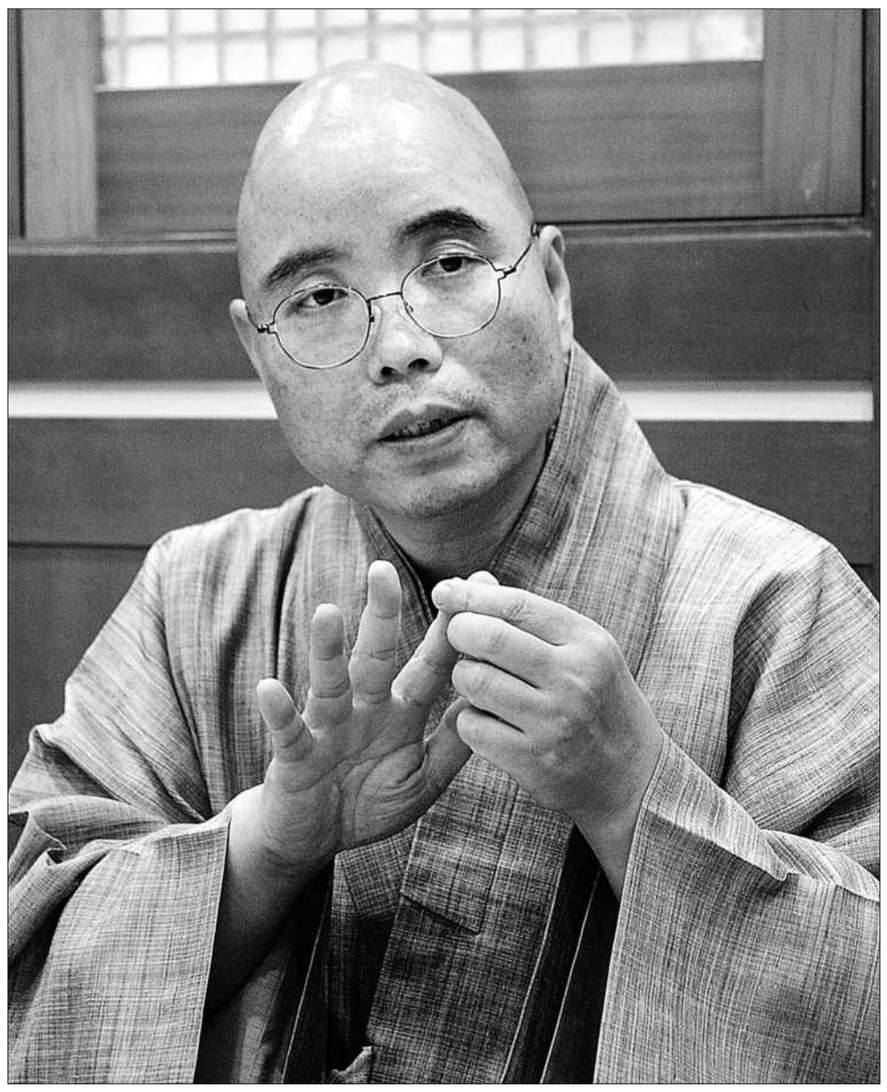
진실 · 청정 · 평등… 부처 되기 위한 기본자세

부산 열린불교아카데미… '수행의 목적'

통도사 율원 교수사 도암 스님

불교에서는 개개인이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한다. 그런데 수행을 하면서도 자신의 수행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따져봐야 할까? 양산 통도사 율원 교수사인 도암 스님은 4월 24일 부산 열린불교아카데미 선지식 초청 회향법회서 "진성 · 청정 · 평등 · 정각 등 경전에서 흔히 보는 10개 단어가 수행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리=하성미 기자



도암 스님은… 1991년 통도사 월파 선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봉선사 월운 해운 강백으로 전강, 파계사 여산 철우 율사로부터 전계, 통도사 중산 혜남 율사로부터 전계 받았다. 백양사 승가대학장, 송광사 승가대학장을 역임하고 행자교육원 비구계산림 교수사, 갈마사를 역임했다. 현재 통도사 율원 교수사다.

진실이 없으면 감동도 없다

오늘은 가장 많이 들어본 흔한 주제이면서도 잘 다루기 힘든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진성(眞誠) · 청정(淸淨) · 평등(平等) · 정각(正覺) · 자비(慈悲) · 감파(勘婆) · 방하(放下) · 자재(自在) · 수연(隨緣) · 주수(主修)입니다. 글자 수로는 20자, 단어로 10개인 이 말들에서 불교란 무엇이고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수행을 잘 하고 있는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점검하고 기준 삼으려 합니다.

먼저 진성, 청정, 평등, 정각, 자비는 불법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이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불성이 현재 작동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잠든 상태입니다. 수행을 통해 불성의 마음이 깨어나도록 스스로 보리심을 내야합니다. 보리심을 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청정 순도를 어제보다는 내일 부처님의 청정 순도까지 끌어올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보리심을 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전에서 가장 많이 보는 단어가 진실입니다. 출가자든 재가자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며 가면을 쓰고 기만합니다. 그러다 탄로가 나면 그동안 누렸던 이익에 이자까지 쳐서 나가게 되는데 그때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하루하루 진실을 연습해야 합니다. 진실한 상태에서 공경과 정성이 얼마나 들어가는가에 따라 내 가슴의 울림이 전달됩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내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되냐"며 목소리를 높인다면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마음에 "그건 이 사람 욕심이지"란 생각이 들고, 마음이 안 열리는 경험을 종종 해보셨을 겁니다. 진실이 정성을 만났을 때 바로 그때 빅뱅을 일으킵니다. 부처님은 한 평생 진실과 정성이 가득 넘치셨습니다. 그것을 닮아가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리심을 향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인격 완성을 위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청정한 상태서 마음을 쓰자

두 번째는 청정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인 진실을 기준으로 "나는 진실하니까 정말 솔직하니까 화나면 화내고 때리고 싶으면 때립니다"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진실하지만 부처님 법과는 맞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심은 진실하셨으나 운영 체계는 청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욕심으로 오염된 상태에서 마음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청정이란 것은 우리를 맑고 향기롭게 이끌어주는 업력입니다. 업력은 업이 있으면 보가 있습니다. 습관도 업입니다. 또 취향도 업이며 반복입니다. 또 상처도 반복해서 긁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멈출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업력입니다. 그 상처를 곱씹고 돌리면 상처의 회오리에 감겨서 결국에 자신도 소용돌이에 감기고 다른 사람도 소용돌이에 감아 넣습니다. 트라우마가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감아 오염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라한과를 얻기 전까지는 양심을 믿지 말라하셨습니다. 양심적이란 생각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은 구생번뇌가 있습니다. 구생번뇌란 태어날 때부터 익숙한 마음을 잠시 놓치면 반복하고 돌아가는 습관이며 업력입니다. 큰 틀로 보면 탐심이고 성냄, 어리석음입니다. 또한 거만심입니다. 사람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 서서 내려 보고 싶어 하고 꼭두각시놀이 하듯 상대를 움직이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알아차리기 힘이 듭니다. 양심이라는 기반 위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 가운데 오해하고 착각을 해도 자신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혜가 부족해서 착각을 일으킨 상태에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더러운 세상에 참고 살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부처님 법은 평등입니다. 차별에서 평등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일체중생을 바라보면서 마음과 중생이 근본에서 다 동일하고 차별이 없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생의 눈에는 온통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한 가정에서도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두고 차별 받고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들은 차별한 적이 없다고 해도 자녀가 느꼈다고 한다면 있는 것입니다.

평등하게 보는 것도 연습을 통해 가능합니다. 차별은 마음을 옹졸하게 합니다. 차별을 두면 1번으로 친한 사람에는 동질감을 느끼고 2번과 3번 순으로 멀어지면 이질감이 깊어지면서 적대감이 생성됩니다.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평등을 바라보고 실천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사님들이 자신의 머리를 보면서 부인의 머리를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자신을 보고 살피는 것과 같이 남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세간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 "경전서 보는 흔한 10단어 바르게 지키는지 확인하고 잠들어있는 내 마음상태 수행으로 불성 일깨워야"

정각은 깨어있음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양심적으로 이야기한다며 강하게 어필하는데 그 기반이 되는 양심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알아차림이 없을 때 다른 이들이 당신의 기준을 바로 그렇게 삐딱하게 느낍니다. 청정하려면 탐심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청정하려면 진심과 치심을 그리고 거만심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을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자비는 진실하고 정성스러움 기반 위에서 평등하게 사람을 바라보면 반응하게 됩니다. 자비심은 써야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탐심, 진심, 거만심, 치심이 청정해지면 욕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대견스러워 보이고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자비심입니다.

이제 알아차림을 의미하는 감파입니다. 자신이 움직일 때, 말을 할 때, 행동할 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인자무적이라 말이 있습니다. '어진 사람에겐 적이 없다'란 뜻인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공자도, 부처님도 적이 없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다들 애를 먹고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자무적이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어진 사람에게는 적대감이 없다'란 뜻입니다. 적대감이 있으면 바로 알아차리고 내려놓으세요. 자신을 항상 진실하고 정성스럽게 그리고 청정함으로 깨어있도록 하세요.

늘 자기점검 잊지 않기

방하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따라 배우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을 만나면 따라 배우고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안 좋은 부분을 찾아 내려놓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요즘에 '공평하게 결혼한 여자의 최후'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남편은 이기적이고 부인은 양심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즉 상대만큼 이기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거죠. 우리는 아주 이기적이거나 상대의 수준에 맞추는 이기주의자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기적인 속내를 들키기 시작하면 배우자도 이기적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의 수준에 맞춰 자신의 이기적 태도를 결정하는 기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했느냐보다 중요한 문제는 수준이 똑같아 진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받아 본 경험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제 자재에 대해 살펴봅시다. 우리는 이해관계와 인정관계 속에서 그물망처럼 짜여 구속되고 엉킵니다. 이기심을 발휘하고 수를 부리고 재주를 부린 자리는 제법 더 많이 엉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라는 사회구조 관계망 안에 있을 때는 엉켜서 힘이 들지만 사표를 내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팽팽하게 유지하고 있던 것이 꿈 같이 사라지고 초연함을 얻습니다. 초연함 속에 정성을 다하고 자유롭고 걸림이 없는 것이 자재입니다.

그 다음 단어는 수연입니다. 살면서 사람들은 유리한 인연을 위해 조작을 합니다. 조건이 안 맞으면 거짓으로 꾸며 레벨을 맞춥니다. 억지로 맞추거나 자존을 팔거나 억지로 맺어놓으면 현재는 돌아가지만 결국엔 고통이 따릅니다. 좋은 조건이 되도록 노력을 할 수 있지만 욕심을 부려 거짓으로 꾸며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좋은 조건을 지을 수 있도록 보시도 하고 법보시도 하세요. 그리고 마음은 크게 내세요.

주수는 내 근기에 맞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염불이면 염불, 혹은 경전을 보는 간경, 독송, 참선 등 수행방법을 하나 선택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내 근기에 맞는 수행은 어떻게 알까요? 진실해지고 청정하며 평등해지고 자비로워지고 알아차림이 생긴다면 내 근기에 맞는 수행입니다.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선택했으면 인생에 딱 하나만 가져가야 합니다. 참선하는 분은 참선으로, 염불하는 분은 염불로, 간경은 간경으로 자신만의 주수는 공력을 쌓는 자리입니다. 각자 다릅니다. 맹인이 코끼리를 더듬다 보면 결국은 코끼리를 다 알 수 있듯 주수를 유지하다 보면 불교 전체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힘을 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팔만사천가지 방편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중생의 근기가 팔만사천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제시한 20글자 10단어를 염두에 두고 자신을 점검하면 간편하고 쉬울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 삼아 선지식도 점검하고 알면 될 겁니다. 우리가 성취해야 할 부처님을 벤치마킹하세요. 이번 생일지 다음 생일지 모르겠지만 이 길을 따르면 자성이 확 열린 것처럼 깨달음 얻는데 도움을 얻을 뿐 아니라 세간 출세간 모두의 삶에서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등록번호 : 138-50-00260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종 도 모 집

문화관광부 허가 2009-2호 / 제2014-9호 / 등기번호 230121-0003919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종 정 승천 진성 대종사

총무원장 야숙 여몽

총무부원장 석담 성우 총무부장 서광 보원 교무부장 현진 영현 재무부장 현경 대암
호법부장 현수 대선 사회부장 서법 자광 포교부장 성담 해선 비구니부장
사무처장 이민숙 사무국장 장백선

불조의 혜명을 받들어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정진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승가의 길을 함께 가시고자 하시는
제방의 스님들과 인연있는 불제자님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수희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입종서류 : 주민등록초본, 반명함판 사진 3장, 사찰(법당)사진
■ 문 의 : 총무원 - 인천 서구 가정동 494-26 원각사
전화 032)578-2122. 010-5002-7392(총무원장)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총무원

선재, 스스로 보살로 나아가다



강소연 교수의
불화 속 스토리텔링

③ 선재동자 이야기 ㊦

"나는 그때(발심했을 때) 다만 중생을 이롭게 하려 했을 뿐, 어떤 과보나 명예나 이득도 바라지 않았다."

선재동자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보살이 될 수 있는가' 라는 화두를 들고 53선지식을 두루 편력합니다. 그러데 여정의 후반부에 오면, 질문이 하나 추가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걸립니까' 입니다. '성자님은 보리발심하신지는 얼마나 되십니까', '선지식님은 얼마나 걸려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라는 선재의 질문에 선지식들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는 발심의 계기는 '결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라는 것, 그리고 둘째는 얼마나 오래 걸리냐는 '분별심을 떠나 있었다는 것' 입니다. 모두 수십억 겁 전부터 타인을 구제하기 위해 세세생생 공덕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누구 한 명을 위해서거나, 한 집단을 위해서거나, 한 부처님을 공양키 위해서거나, 한 시대를 위해서거나, 한 서원만을 위해서거나가 아니라, 오로지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다 교화 조복하고자, 일체 부처님을 다 남김없이 섬기고자, 일체 불국토를 남김없이 다 청정히 하고자 마음먹어야 한다"고 휴사청신녀는 말합니다.



일본 대덕사 소장 고려불화 '수월관음도' 의 선재동자 부분. 보살의 도(道)와 행(行)을 끊임없이 자문한 선재동자는 이윽고 보살이 된다.

여정 후반 만난 다양한 주야신들
인간 나태함, 묘한 방편으로 경책
고통은 수행않는 내게 주는 경고

보살道·行 자문한 선재의 화두
스스로 보살이 되는 유일한 길

주야신들과 흥미로운 에피소드

여정의 후반에는 다양한 주야신(主夜神)들과의 만남이 전개됩니다. 그 중 특히 인상 깊은 주야신들을 소개합니다. 개부일체수화(開敷一切樹華) 주야신은 "중생들이 나와 내 것에 집착하여/ 무명 암실에 머물며/ 온갖 견해의 숲에 들어가/ 탐애에 얽매이고/ 분노에 무너지고/ 우치에 어지럽히고/ 시기 질투에 휘감기어/ 생사에 윤회하며/ 가난에 지쳐/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온갖 신통력을 내어 중생을 구제해 왔다고 합니다.

태초 다섯 가지 흐린 것이 생겨,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짧아지고 물건이 모자라고 고통이 많고 낙이 적어지고 착한 일은 닦지 않고 나쁜 업만 지어 서로 다투고 헐뜯어 탐욕을 내었다는군요.

이로 인해 풍우가 고르지 못해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산과 풀과 나무가 모두 말라 죽게 됩니다. 천재지변이나 기후변화도 모두 중생들의 마음 작용의 과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폭풍· 가뭄·폭우·태풍 등 심지어 우주의 운행까지, 일체 제법은 심식(心識)에 근거한다는 '유식(唯識)' 의 논리입니다. 전생에 왕이었던 그는 수십억 겁 동안 가엾은 중생들의 평안을 위해 발원한 끝에, 그들이 곡식과 과일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하는 '모든 나무에 꽃을 피우는(개부일체수화) 주야신' 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야신들이 중생을 이롭게 하는 방편의 묘(妙)는 참으로 다양하고 또 불가사의합니다. 보덕정광(普德淨光) 주야신은 게으른 중생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집에 있으면서 방일한 중생에게는 부정한 생각을 내게 하고, 싫은 생각, 고달픈 생각, 핍박하는 생각, 속박되는 생각, 나찰이라는 생각, 무상하다는 생각, 괴롭다는 생각, 내가 없다는 생각, 공한 생각, 생이 없는 생각, 부자유하다는 생각,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생각을 내게 한다."

방일하여 게으름에 빠져 있는 중생의 마음은 오히려 더 한가롭지 못합니다. 오만가지 생각들이 일어나 괴롭히니 혼침이나 도거에 빠지게 됩니다. 현대에는 넘쳐나는 음식과 다양한 약물, 마음을 뺏는 오락물 등이 있어 이들 기호품들로 마음이 도피합니다. 이러한 중생들에게 방일의 고통을 주어 궁극에는 "오로지 법의 즐거움에 머물게 한다. 자신이 집으로 여기는 삿된 것에서 벗어나 진실한 집에 들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괴로운 생각이 들면, 이는 수행을 하지 않고 있는 나에 대한 주야신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발심과 정진의 계기가 됩니다. 나에게 오는 시련과 고통들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주야신의 '가면을 쓴 축복(Blessing in disguise)' 이라는 것이지요.

"마음먹은 대로"

대원정신력구호일체중생(大願精神力救護一切衆生) 주야신은 '출리심(出離心)' 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 같지 않은 삶을 그냥 묵인한 채 삽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 또는 '내가 뭘 하겠어', '세상 또는 사회의 편견을 바꿀 수 없어', '그냥 대충 맞춰주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합리화 합니다.

하지만, 출리심 즉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온 우주를 바꿀 만큼 강력한 것이라고 합니다. "(선지식을 보고) 마음을 내니 그와 같은 경지(同行)를 얻었다", "열 가지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니, 불찰 미진수의 보살님들과 같은 행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생명평화 운동에 앞장서시는 도법 스님은 저서인 〈망설일 것 없네 당장 부처로 살게나〉 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우리에게, 지금 바로 '동체대비심(同體大悲心)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고 합니다. 어려울 것 없고, 당장 여기 이 자리에서 부처의 큰마음을 내면 그만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 낸 대로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 이라는 말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마음을 낼 때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公益)이 되느냐' 는 것입니다. 만약 부처님의 마음자리에 있다면, 저절로 공익되는 일만 보이고 공익되는 일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살의 전제 조건, 無我

자아라는 암울한 존재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깨달음을 향한 수행과 타인을 이롭게 하겠다는 보살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살로서의 삶에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우선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에 대한 집착에서 떠났기에/ 내 몸도 아끼지 않는 마당에/ 하물며 재물이겠는가/ 그러므로 살아가는 데에 두려움이 없다/ 남의 공양을 바라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베풀기만 하므로/ 나쁜 말을 들을 두려움이 없다/ 나에 대한 집착에서 이미 벗어났기에/ 나의 존재도 없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는가/ 내가 죽더라도/ 부처나 보살을 떠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기에/ 악도에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화엄경〉 '십지품' 환희지(보살의 첫 경지) 中

'나' 라는 생각과 집착에서 벗어났기에 "밤낮으로 선한 일을 해도 지칠 줄 모르고, 항상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남에게 의존함이 없고, 이익이나 명예나 존경받기를 탐착하지 않고, 온갖 아첨과 속임에서 떠나고, 자각하는 지혜의 마음을 내어 태산과 같이 움직임이 없고, 세상의 일을 버리지 않으면서 출세간의 도를 이룬다"라고 합니다.

보살도·보살행, 스스로 답하다

선재동자 여정의 막바지에는 보살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과 단계가 제시됩니다. 보살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청정한 삼매를 얻어 모든 부처님을 보고, 청정한 눈을 얻어 모든 부처님의 상호와 장엄을 항상 살펴야 한다' 고 선지식은 말합니다. 보살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우선 청정삼매를 얻어 부처님 세계를 보는 일입니다.

먼저 '크고도 깊은 지혜의 눈을 떠야 한다' 는 것입니다. 또 '보살이 장엄해탈문을 얻을 수 있는 열 가지 법장(法藏)' 이 제시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 가 먼저 나열돼 육바라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의 세 가지 덕목인 '보시·지계·인욕' 은 하화중생(下化衆生)을 위한 것이고, 뒤의 세 가지 '정진·선정·지혜' 는 상구보리(上求菩提)를 위한 것으로 육바라밀이 '상구보리 하화중생' 이라는 대승불교의 '보살 정신' 을 압축해 놓은 것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추가된 항목들이 방편·서원·힘·청정지혜로 모두 합해 열 가지의 법장을 이룹니다.

그리고 세상의 광명이 되는 '보살로 태어나는 열 가지 장(藏)' 이 공개됩니다. 이것을 성취하면 보살의 선근을 증장시키면서도 고달프거나 싫거나 물러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선재동자가 간절히 찾던 '보살행과 보살도' 에 대한 답들이 거의 다 제시되게 됩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몸을, 어떤 사람이 할퀴고 찢는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통절하겠는가? 보살은 자신을 위해 일체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생사와 욕락에 탐하지 않으며, 뒤바뀐 생각·소견·마음의 얽매임·애착·억측의 힘에 움직이지 않는다. 오로지 중생들이 모든 길에서 한량없이 고통 받는 것을 보면, 대비심(大悲心)을 일으켜 큰 원력으로 널리 거두어 주며, 자비와 서원의 힘으로 보살행(菩薩行)을 닦는다. 그것은 일체 중생의 번뇌를 끊기 위함이요, 여래의 일체지 지혜를 구하기 위함이요,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함이요, 모든 광대한 국토를 맑게 장엄하기 위함이요, 중생들의 욕락과 그 몸과 마음으로 행하는 일을 맑게 다스리게 때문에, 생사 중에서도 고달픈 줄 모른다."

위에 인용한 문구는 어느 선지식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선재동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보살행과 보살도가 무엇인지 묻는 자신의 화두에, 스스로 답하는 선재동자를 보게 됩니다. 어느새 자신이 '보살' 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중앙승가대 교수·불교문화재학

LEADER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5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의식

부처님 당시의 상좌부 출가의식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와 종교법인 세계불교 법왕청에서는 400여 군소종단을 불문 어느종단 스님이든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어도 먹물옷 다시금 여미며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가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대승적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정부의 종교성과 미얀마 연방승가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법왕이신 우꾸마라 종정큰스님을 대화상을 모시고 구족계를 내려주실 三師 7尊證 大元老 큰스님들과 500여 증명 존증아사리들의 독경속에 상좌부 불교승려로 거듭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법석, 국제불교 금강계단을 마련했습니다.

구족계 계첩을 미얀마 연방승가회에서 정식 수여함

- 일 시 : 10월 11일 출발 6박 7일 일정
- 신청기간 : 7월 31일까지
- 참가서류 : 사진 부착된 이력서 1통 여권
- 참가신청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68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우.03158
- 장 소 : 미얀마정부 종교성내 양곤승가대학 5일간 입교함
- 문 의 : 011-229-6061

주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 세계불교법왕청 / 후원 : 미얀마 연방정부 종교성. 미얀마 연방승가회

원효부터 中삼계교까지… 불교학 만나볼까

신록의 계절 5월, '주목' 학술서 3選

원효학 지평 확장의 시도

원효, 불교사상의 벼리

올해는 원효 스님 탄신 1400년을 맞는 해이다. 다양한 학술행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지금, 원효 스님을 새롭게 조명하는 학술서인 〈원효, 불교사상의 벼리〉가 발간된 것은 우연은 아니다.

이 책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원효 사상의 산맥을 등정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불교학계에서는 원효사상을 주로 한국불교의 맥락에서 연구해온 측면이 강하다. 이는 한국불교계를 풍부하게 하는 측면은 있지만 불교 전체, 즉 인도불교와 중국불교의 맥락에서 원효의 사상을 자리매김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불교학자 권오민 · 이병욱 · 김도공 · 김성철 · 배경아는 〈원효, 불교사상의 벼리〉를 통해 한국불교를 넘어 인도 · 중국불교의 주요 사상과 원효 사상을 비교하며 원효 사상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시킨다.

권오민은 '원효 교학과 아비달마-화쟁론을 중심으로'에서 원효의 화쟁(和諍)과 초기불전의 멸쟁(滅諍)을 비교해 두 가지의 개념이 서로 비슷한 맥락임을 주장한다. 또한 원효의 일심(一心) 개념과 아비달마 불교에서의 일심을 함께 살핀다.

이병욱의 '천태사상과 원효사상'은 천태의 '무애도'와 원효의 '무애행'이 공통점이 있음에 주목한다. 또한 천태와 원효의 정토사상은 '유심정토설(唯心淨土說)'이라는 공통분모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신론소〉와 〈별기〉를 통해 원효 스님의 지관 수행을 분석한 김도공의 '원효, 그 깨달음의 수행체계'에서는 원효 스님의 수행관이 〈유가사지론〉에 있음을 조명하고 있다.



'파계 · 남색' 日불교 계율사

계율에 방울 달기

일본불교를 흔히 이야기하는 키워드는 '대처', '식육'으로 이어지는 '계율경시' 풍조다. 하지만, 일본불교사를 잘 들여다보면 정토진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파들은 승려다운 것, 계율 호지를 이상으로 삼았다. 특유의 '계율경시' 풍조는 메이지 이후에 생긴 것이다.

마츠오 켄지 야마가타 대학 인문학부 교수의 〈파계와 남색의 불교사〉는 일본불교의 계율경시 풍조가 어떻게 비롯됐는지를 '파계'와 '남색'이라는 키워드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이자랑 동국대 HK교수가 번역해 발간된 〈계율에 방울 달기〉는 마츠오 교수의 책을 번역한 것이다.

'파계'와 '남색', 적지 않은 불교도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는 단어를 근간으로 마츠오 교수는 지계를 꿈꾸었던 고대, 지계와 파계 사이에서 고뇌한 중세, 그리고 그 고뇌로부터 탄생하여 근세 이후까지 이어진 일본 불교의 계율 부흥 운동의 흐름을 매끄럽게 풀어내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불교계에 '계율부흥운동'을 제안한다. "현재 일본불교에도 계율 부흥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욕망을 끊고 이해에 매진하는 승려의 모습은 새로운 모델을 낳지 않겠습니까. 이런 승려의 모습은 우리 재가자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마츠오 교수의 이런 제안은 지계 정신이 흐려지고 있는 한국불교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中 삼계교의 'A to Z'

삼계교 연구

중국의 삼계교는 다소 생소한 종파이다. 삼계교는 남북조 후기에서 수대(隋代)에 걸쳐서 활동한 신행(信行, 540~594)에 의해 창시됐다. 그 혁신성과 대중성으로 인해 수 · 당 · 송대에 걸쳐 약 400년간 크게 번성했다.

당시 정토교와 심한 마찰을 빚기도 한 삼계교는 실로 중국불교사상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민중을 위한 혁신불교였으며,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불교에 끼친 영향력도 상당하였다고 평가된다.

나시모토 테루마 무장야대학 학장의 〈삼계교 연구〉는 삼계교 연구학자 야부키 게이키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해 그간의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총정리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가히 삼계교 연구에 관한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삼계교의 성립부터 전개, 문헌, 사상구조, 교단 규율까지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마지막 장에서 펠리오 수집의 신출자료인 '돈황한문사본(No.2849)'의 내용을 중심으로 삼계교의 사상이 삼계교도의 종교적 실천에 어떻게 구체화됐는지를 조명하는 부분은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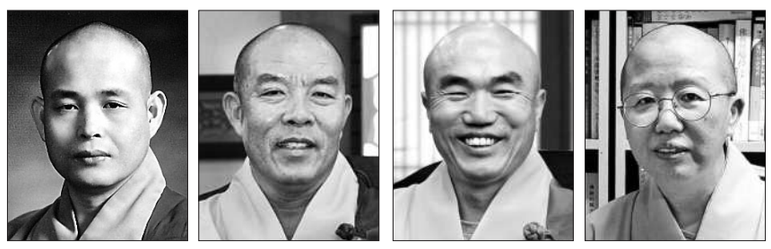
중국불교사 속에서 민중지향적이자 삶 속에서의 구체적 실천을 중시한 삼계교에 대한 총체적 연구 성과를 담은 이 책은 한국불교계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성민 기자

문화재위 모든 분과에 스님들 포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스님 8명 위원 위촉

〈사진은 분과 순〉


정현 스님 (건축분과) | 덕문 스님 (동산분과) | 정념 스님 (사적분과) | 진화 스님 (천연기념분과)


정각 스님 (매장분과) | 보광 스님 (근대분과) | 일감 스님 (민속분과) | 명법 스님 (세계유산분과)

새롭게 구성된 제28대 문화재위원회에 스님들이 8개 모든 분과에 포진됐다.

문화재청은 5월 1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서 문화재위원 78명, 문화재전문위원 177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분과별 위원장단을 선출했다.

이번 문화재위원 위촉에는 건축 · 사적 · 매장 등 8개 분과에 1명씩 스님들이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스님 문화재위원으로는 △건축분과: 정현 스님(조계종 문화부장) △동산분과: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 △사적분과: 정념 스님(조계종 백년대계본부 공동본부장) △천연기념물분과: 진화 스님(송광사 주지) △매장분과: 정각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근대문화재분과: 보광 스님(동국대 총장) △민속분과: 일감 스님(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세계유산분과: 명법 스님(은유와마음연구소) 등이다.

또한, 문화재 전문위원에도 이분희 불교중앙박물관 팀장(근대분과), 박기련 불교신문 주간(세계유산분과) 등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2명이 위촉됐다.

1962년에 발족한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청의 비상근 자문기구로, 8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국가지정(등록) 문화재의 지정(등록) · 해제 · 문화재 현상변경 · 역사문화환경 보호 · 매장문화재 발굴 ·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재 관련 주요 안건을 조사 ·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제28대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은 신승운 한국고전번역원장이, 부위원장에는 이배용 이화여대 명예교수, 박강철 조선대 명예교수가 각각 선출됐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위촉된 문화재위원들은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균형적 시각을 갖추고 있는 인사들로, 연임이 아닌 처음 위촉된 위원들이 절반 이상"이라며 "문화재전문위원 역할을 활성화하고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을 맡았던 경력이 있는 인사를 우선적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원효 탄신 기리는 학술대회 잇달아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을 맞아 굵직한 학술대회가 잇달아 개최된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단장 김종욱)은 오는 5월 19~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1세기 원효학의 의미와 전망 -원효 찬술문헌의 계보학적 성찰'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 · 중 · 일 삼국이 연계해 진행되는 것으로 앞서 중국서 학술대회가 열렸으며, 6월에도 기념전과 학술대회가 예정돼 있다.

로버트 버스웰 미국 UCLA 교수의 기조 강연으로 진행되는 학술대회에서는 최연식 동국대 교수, 안성두 서울대 교수, 이시이 코세이 일본 고마자와대학 교수, 모로 시게키 일본 하나조노대학 교수, 고영섭 동국대 교수, 김성철 동국대

동국대 HK연구단 19~20일
원효 찬술문헌 계보 주제로
한국불교학회 오는 12일
'원효-새로운 이해' 춘계대회

경주캠퍼스 교수, 박광연 동국대 교수, 야오잉 중국 푸탄대학 교수, 남동신 서울대 교수, 장웬량 중국 인민대학 교수, 요르그 플라센 독일 보훔대학 교수, 노로 세이 일본 류코쿠대학 교수 등이 다양한 주제의 연구 논문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논문 발표 후에는 김종욱 HK연구단장을 좌장으로 '21세기 원효학의 의미와 전망'에 대한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HK연구단은 "원효 찬술문헌에 대한 계보학적 분석을 통해 원효의 불교사상이 갖는 동아시아 불교에서의 위상과 그 현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21세기 불교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5월 12일에는 원효 스님 탄신을 기념하는 한국불교학회의 춘계학술대회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열린다. 한국불교학회는 지난해부터 원효스님 탄신 1400주년을 기념하는 불교학술진흥상을 공모했고, 지난 4월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날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대상 수상자인 이수미 동국대 HK교수의 '〈금광명경〉의 삼신설에 대한 원효의 이해'를 비롯해 최우수상 수상자 법장 스님, 우수상 수상자 담준 스님 · 지혜정의 논문들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종교와 음식의 상관관계는

종문연, 20일 정기 심포지엄

종교와 음식문화의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종교문화연구소는 5월 20일 삼경교육센터 5층에서 '종교 속의 음식, 음식 속의 종교'를 주제로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불교를 비롯해 일본 신도, 유대교, 토착신앙 등에 내포된 음식문화의 양상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불교 분야에는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의 공만식 씨가 '마늘에 담긴 불교사: 음식의 내재적 본질에서 바르나(Varna)적 함의까지' 주제 논문을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김미숙(동국대)가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감포도량 무일선원 & 세계명상센터
명상힐링학교 모집
❶입 학 : 양력 5월 6일 (토) 2시 입재
~ 5월 21일 (일) 10시 회향
❷기 간 : 15일
❸학 비 : 30만원
❹조 건 : 65세까지의 남 · 녀,
조계종 출가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선착순 남 · 녀 각 12명
(남자는 삭발함)
❺지 도 : 無一 우학 큰스님
❻과 목 : 참선, 무문관체험 (1박 2일),
명상힐링, 특강, 울력,
큰스님 마을상좌 수계,
목탁염불습의, 발우공양, 큰절 견학
❼문 의 : 010-8852-0075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감포도량 법사스님)
※ 국내 · 외 한국불교대학 지원 모집
기도성취 및 천도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Buddha's Birthday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대한불교조동종 승정원장 주석사찰
왕방산 금불사
주지 행허 보경
신 도 일 동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왕방로 271-18
TEL 031-544-1195
010-6712-8485

제 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5월 31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빛과 어둠의 세계에서

세상의 절반은 빛이요 절반은 어둠이다. 하루의 절반이 낮이요, 절반이 밤이기 때문이다. 하여, 영원한 기쁨이 없듯이 영원한 슬픔도 없는 것이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다. 하여, 한의학에서 사람의 체질을 말할 때에도 음(陰)과 양(陽)으로 나누어 태음인(太陰人), 소음인(少陰人)과 태양인(太陽人), 소양인(少陽人)으로 나뉘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점만 있는 사람이 없고 단점만 지닌 사람도 없을 터이다.

절반이 빛으로 충만한 행복이 있는가하면 절반이 어둠으로 가득한 불행이 자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이분법적인 옳고 그름으로 나누어 진보와 보수로 진영의 논리를 펴는 세상이지만 영원한 진보도 보수도 있을 수 없을 터이다. 나이테 둘레에 따라 그 색깔이 바뀌어 가고 지향하는 목표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은 필요조건에 의해 모일 수도 흩어질 수도 있는 모래성인 것이다.

학문 또한 깊이와 넓이에 따라 측정의 눈높이가 달라질 수 있어 영원한 정답은 없을 터이다. 사상(思想)과 철학, 종교 신앙의 신념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키 높이에 따라 계절이 바뀌어가듯 생각의 흐름이 윤회를 거듭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 주장과 철통 이념이 세월의 무게에 따라 멈춤이 있을 수 있고 교정을 필요로 하는 방향 바꿈의 변화를 겪을 수 있는 것이다.

나이에 따라 키 높이에 따라 입맛이 변하고 가치기준이 바뀌며 생활상식으로 일궈낸 판단 기준이 혼란을 불러들일 수도 있는 것이다.

만화책을 즐겨보던 아이가 연애소설로 순수문예에서 역사서적으로 끝내는 철학과 종교서적에 이르는 독서취향의 사닥다리는 하늘까지 맞닿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쉽게 판단해 자기만의 눈높이로 타인(他人)을, 사회를, 세상을 제단하지 말 일이다. 내가 이럴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이럴 수 있고 내가 저럴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저럴 수 있는 것이다.

삶에는 정답이 정해져있지 않듯 사람의 행동 반경에도 의미 부여를 하고 보면 죽일 놈이 살릴 놈이 되는 격이다. 하나의 형사 사건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로 엮어 신문기사로 옮겨 왔다면 그 사건의 주인공은 돌 던짐과 몽둥이를 맞아야할 어둠의 자식이 된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어느 소설가가 사건 전후의 숨은 사연들을 꺼내들며 고뇌에 찬 현실 생활의 주인공의 삶과 정신세계를 조명해 옮긴다면 그 형사사건의 주인공은 죽일 놈에서 구제 되어야할 당위성으로 만인의 응원과 변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섣불리 흑백논리에 가담하거나 선입견을 앞세워 사람의 차별화에 끼어들지 말 일이다. 내가 그 누구의 것이 영원히 될 수 없듯 그 누구도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옳고 바름만을 실천하는 자 있을 수 없고 나쁨과 어긋남만을 행동하는 자 없는 것이다.

지킬과 하이드가 둘이 아닌 하나이듯이 투사와 보살은 둘이 아닌 한 몸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천사와 악마 또한 나의 정신세계에서 빛과 어둠으로 바뀌며 나타나는 한시적 현상일 뿐이다. 영원한 천사, 영원한 악마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투사가 보살이요 보살이 투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섭수·절복은 둘이 아닌 하나
내 기준으로 세상 제단말라

〈열반경〉에는 섭수자비(攝受慈悲)와 절복자비(折伏慈悲)가 등장한다. 끊임없이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어머니의 사랑이 섭수자비라면 끊고 맺는, 열고 닫음을 익혀 실천하는 아버지의 교육이 절복자비인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둘이 아닌 하나의 부모사랑 이듯이 섭수의 사랑과 절복의 교육은 둘이 아닌 하나인 것이다.

지혜가 많은 자는 복이 조금 부족할 수 있고 복이 많은 자는 지혜가 조금 부족할 수 있을 터이다. 영원한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은 어둠을 몰고 온다. 긍정적인 생각은 희망과 빛을 몰고 온다. 어차피 인생의 삶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법이다. 너와 나, 우리 모두는 착각으로 눈높이만큼 세상을 끌어들이며 사는 것이다. 우리 앞에 문(門)은 항시 열려있다. 빛의 세상에서 후회 없이 신바람 나게 살 일이다.

선의 알음아리를 쉽게 전하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극한 성인의 명맥(命脈), 역대 조사들의 대기(大機), 뼈를 바꾸어 놓는 신령스런 처방(處方), 정신을 기르는 오묘한 술법(術法)이여!"

보조(普照) 선사가 쓴 〈벽암록(碧巖錄)〉 서문 첫 부분에 나오는 이 말은 벽암록을 편찬의 저본이 된 〈송고백칙(頌古百則)〉을 지은 설두 중현 (雪竇重顯:980~1052) 선사와 〈벽암록〉을 지은 원오 극근(圓悟克勤:1063~1135) 선사를 찬탄한 말이다.

종문(宗門) 제1서로 평가된 〈벽암록〉은 특이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

원래 이 책은 〈경덕전등록〉의 1700공안과 〈조주어록〉, 〈운문광록〉 등에서 100칙을 선택하여 그에 대한 송(頌)을 붙인 〈송고백칙〉을 원오 극근 선사가 각 칙(則)에 대한 짧은 서론 형식의 수시(垂示), 본칙과 송에 대한 해설 형식의 평창(評唱), 그리고 본칙의 각 구절과 원오 선사가 붙인 송의 각 구절을 평가하는 형식으로 붙인 착어(着語) 등 세 가지를 부가하여 1125년에 완성된 책이었다.

'벽암'이라는 말은 원오 선사가 협산(夾山)의 영천원(靈泉院)에서 평창을 지을 당시 방장실에 걸려 있던 벽암이란 편액에서 따 붙인 것이다. 이 두 글자는 협산의 개산조인 협산선회(夾山善會)가 남긴 오도송 구절에서 차용한 말이다.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푸른 산봉우리 뒤로 돌아가고, 새는 꽃을 물어다 푸른 바위 앞에 떨어뜨리네. (猿抱兒歸靑;後 鳥啣花落碧巖前)"의 뒷구 벽암이란 말을 따서 책 이름을 삼은 것이다.

그런데 원오 선사의 제자인 대혜종고(大慧宗 ₱1089~1163) 선사가 당시의 학인들 중 이 책을 통해 선화(禪話)만 익혀 알음아리를 늘리기만 하고 실제적인 수행을 게을리 하는 자가 많은 폐단을 보고, 불립문자 교외별전(不立文字 敎外別傳)인 선의 종지를 다시 천명하기 위하여 어느 날 대중 앞에서 불태워 버렸다. 그리하여 이 책은 200여 년 동안 총림에서 자취를 감추어 사라졌었다.

그러다가 원나라 때에 와서 장명원이란 거사가 여러 절에 비장되어 있던 것을 다시 모아 1300년 전후에 〈벽암록〉을 중간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이 책이 세상에 널리 유통하게 되었다.

이 책은 특히 간화선풍을 드날린 임제종에서 특별히 중시 되어 간화선 수행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었다.

묵조선풍을 유지한 조동종의 〈종용록(從容錄)〉 더불어 쌍벽을 이룬 대표적이 선서(禪書)였다. 매 권마다 10칙씩 10권으로 엮었다. 한 칙의 내용을 소개하면 제 3칙에 '일면불 월면불' 이야기가 있다.

마조 스님께서 노환으로 몸이 편치 않았다. 원주가 걱정이 되어 스님을 찾아뵙고 여쭈었다.

"스님 요즈음 몸이 어떠십니까?"

스님이 답하기를 "해도 부처고 달도 부처니라.(日面佛 月面佛)"

이 짧은 물음과 대답을 두고 〈평창〉에서는 이어 말했다.

"만약 마조 스님께서 본분사(本分事)의 위치에서 원주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불법이 빛을 발할 수 있으리오. 이 공안(公案)이 뜻하는 바를 알았다면 붉은 하늘(丹宵)에 혼자 거닐 수 있겠지만 만약 이 공안의 떨어지는 곳(落處)을 모른다면 그렁저렁 마른 나무 바위 앞에서 길을 잃고 말 것이다."

"만약 본분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경지에 이르러 모름지기 농부의 소를 몰고 달아나고, 배고픈 사람이 밥을 빼앗아 먹는 수단이 있어야만 바야흐로 마조 스님의 사람 가르치는 방법을 알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조 스님이 원주를 잘 제접(提接)했다' 하나 또한 아무 관계가 없다. 다만 대중들이 잘못 알고 자기주장을 내세워 눈을 부릅뜨고 말하되 '이 가운데 있으니 왼쪽 눈은 일면(日面)이요, 오른쪽 눈은 월면(月面)이다' 하니 무슨 관계가 있으리오. 당나귀 띠 해가 돌아와도 꿈에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마조스님이 이렇게 말한 진의는 어디에 있을까? 원숭이가 물속의 달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같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허망한 업보 벗어나는 길, 無心 無念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⑲ 의법출생분

須菩提 於意云何. 若人滿三千大千世界七寶 以用布施 是人所得福德 寧爲多
(수보리 어의운하. 약인만삼천대천세계칠보 이용보시 즉시소득복덕 영위다)
不. 須菩提言 甚多 世尊. 何以故 是福德 卽非福德性 是故 如來說 福德多.
(부. 수보리언 심다 세존. 하이고 시복덕 즉비복덕성 시고 여래설 복덕다.)
若復有人 於此經中受持 乃至 四句偈等 爲他人說 其福勝彼 何以故 須菩提 一
(약부유인 어차경중수지 내지 사구게등 위타인설 기복승피 하이고 수보리 일)
切諸佛 及 諸佛阿 耨多羅三 三菩提法 皆從此經出. 須菩提 所謂佛法者 卽非
(체제불 급 제불아뇩다라삼먁삼보리법 개종차경출. 수보리 소위불법자 즉비)
佛法
(불법)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서 널리 보시했다면,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은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사뢰었다. "아주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어, 왜냐 하오면 이 복덕은 곧 복덕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이오니 그래서 여래께서 복덕이 많다고 하신 것이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네 글귀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말해준다면 그 복이 저 복보다 뛰어나리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부처와 모든 부처의 아뇩다라삼먁삼보리법이 다 이 경으로부터 나온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란 곧 불법이 아니니라."

안찰사(按察使)의 직책을 지닌 관리가 마조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술이나 고기를 입에 대는 것이 옳습니까, 안 대는 것이 옳습니까?

선사가 말했습니다. "입에 대는 것은 일한 대가를 즐기는 것이고, 입에 대지 않는 것은 복을 짓는 일이요!"

술과 고기를 입에 대는 것은 속인인 당신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입에 대지 않으면 복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는 모두 분별망념에 의한 과보(果報)의 세계이고 업보의 세계입니다. 업보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을 느끼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일체 행위와 그 대상이 업보입니다.

또한 남이 없으므로 내가 없고 내가 없으므로 남이 없으며, 불행이 없으므로 행복이 없고 행복이 없으므로 불행이 없으며, 싫어함과 좋아함, 6근과 6진도 대상에 의해서 없으므로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업보입니다.

그러나 이 업보는 항상 하지 못하고 변하고 허물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있지 못하고 대상에 의해서만이 있을 수 있으며, 스스로 없지 못하고 대상에 의해서만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업보는 우리들의 분별망념이며, 우리들의 육신으로 한 생각 허망함이 일어나는 것이 生(태어남)이고 한 생각 허망함이 멸하는 것이 死(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허망한 업보의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손가락은 스스로 자신을 만지지 못하고 대상을 만지며, 칼은 스스로 자신을 자르지 못하고 대상을 자르며, 태양은 스스로 자신을 밝히지 못하고 대상을 밝히며, 눈은 스스로 자신을 보지 못하고 대상을 봅니다.

대상 또한 스스로 자신이 만져지지 못하고 손가락에 만져지고, 대상은 스스로 자신이 잘려지지 못하고 칼에 의해서 잘려지며, 대상은 스스로 자신이 밝혀지지 못하고 태양에 의해서 밝혀지며, 대상은 스스로 자신이 보이지 못하고 눈에 의해서 보여 집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일체는 이와 같이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다만 대상에 의해서 존재하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체 존재는 스스로 없지 못하고 다만 대상에 의해서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진실을 먼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법공양 영가 특별천도재 3,000일기도 입재의 의미와 그 중요성

▶ 현재 지하에 있는 모든 조상영가님들은 살아있는 우리 후손들이 이 기도를 해주기를 무척이나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입재를 해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안내문과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읽어 보시고 신청하시도록 하십시오.

▶ 기도비는 저렴합니다. 3,000일 기도하면 거의 10년이 되는데 총액이 3백만원이면 됩니다. 본회에서 3,000일 기도를 해드리며 100일마다 기도비만 10만원씩 보내주시면 되는 법공양 영가 특별천도재로서 3,000일 기도를 하면 천도가 완벽하게 되며, 천도기도 효과가 최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이웃종교 함께 봉축 찬탄하니 '기쁨 두 배'

범어사 금강암, 5월 3일 부처님오신날 절대평등 발원

부처님 평등사상 실천하고자
이웃종교 구분 없이 함께 봉축
장학생 60명에 5000만원 전달
기독교종합대 학생 포함돼 눈길

부처님오신날인 5월 3일 전국적인 봉축 행사가 열린 가운데 부산 범어사 암자인 금강암에서는 특별한 무차공양이 열렸다.

금강암(회주 정만)은 제8회 금강암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대학생 10명(각 200만원), 고등학생 10명(각 100만원), 중학생 40명(각 50만원) 총 60명에게 총 5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금강암 신도들이 보시한 봉축 헌등비 2,000만원과 각 신도회 및 천호식품 후원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금강암이 전달한 장학기금은 1회 2,200만원과 2회 3,000만원을 제외하고 매년 5000만원을 전달해 총 3억5,2000만원이다.

금강암은 장학생 선발 기준으로 특별한 원칙을 세웠다. 바로 '무차(無遮)'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구분 없이 오직 인연 따라 차별 없이 장학생을 선정했다.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금정중 장학생에게 어떻게 장학금을 받았냐고 물었더니 웃으며 대답한다. "제가 학교에 일찍 가요."

특히 이번 장학생 중에서는 이웃종교 종립 대학교 학생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고신대학교 학생으로, 고신대는 목사의 추천을 받아야만 입학이 가능한 기독교종합대학교다. 이처럼 종교 구분 없이 장학생을 선발한 이유에 대해 금강암 회주 정만 스님은 부처님의 평등사상 때문이라고 말한다.

"평소 신도들에게 강조하며 가르치고 당부하는 것이 '절대 평등'입니다. 모두가 부처이며 주인공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평등의 가르침을 알려면 차별 없이 모두에게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합니다."

또 정만 스님은 이러한 장학금 전달이 은사 벽파 스님의 유업을 잇는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제 은사 스님이신 벽파 스님은 생전에 금강암에 계셨을 때 사회복지법인 보현도량과 장학재단을 설립하셨을 정도로 복지의 선구자셨습니다. 제자인 저희들이 그 유업을 이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아울러 종교라는 것은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재력이 있는 신도들이 시주를 하면 그 정재를 어려운 이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매개체 역할을 충실히 해야죠. 앞으로도 저의 수행이라 여기고 실천할 계획입니다."


제8회 금강암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이 열린 5월 3일 금강암에는 이웃종교인들이 방문해 부처님오신날을 함께 축하했다.

정만 스님은 금강암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은 성범(聖凡), 도속(道俗), 귀천(貴賤), 상하(上下) 일체 구분 없이 모두가 주인공인 날이라고 했다.

이 말처럼 부처님오신날 정만 스님의 방에는 수녀와 신부가 방문했다. 15년 된 인연이라는 설명과 어울리는 모습으로 편안한 차담이 오고갔다. 수녀들은 노래를 부르며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했다. 이 뿐 아니라 이날 금강암 마당에서는 등산복을 입고 지나가다 들린 사람, 외국인 노동자, 부산대에서 찾아온 사물놀이 공연팀까지 신도가 아닌 사람들도 편안하게 도량에 앉아 모처럼 휴식을 취했다.

스님은 "누구나 부처님께 올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곧 부처님 도량이자 차별 없는 세상의 시작"이라고 웃어보였다. 하성미 기자

원효보살 제1331주기 열반대재

대한불교원효종, 4월 25일 서라벌대에서

대한불교원효종(총무원장 우석)은 원효보살 제1331주기 열반대재를 경주 서라벌대학교 원석체육관에서 4월 25일 봉행했다.〈사진〉

총무원장 우석 스님은 "원효보살의 불교사상은 화쟁과 일심, 무애의 가르침으로 대표될 수 있다"며 "미혹에 허덕이는 지금의 시대에 무명을 밝혀주시어 모든 이의 마음을 부처님과 원효보살의 법력으로 자비와 광명이 충만해 미혹과 죄악의 어둠을 걷어내고 불국정토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종정 정광 스님은 "서쪽 골짜기 사미승은 머리 조아려 동악에 계신 큰스님께 예를 올리옵고, 작은 티끌 불어내 영축산에 보태오며 한 방울 물 날리어 큰 못에 던지리오"라고 법문했다.



한편 이날 추모대재에 이어 종단에 공이 많은 스님과 신도들에게 공로상 등을 수여하는 종도대회도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무차만발공양으로 봉축 기쁨 나눠요"

한일불교문화교류협 여성부, 4월 30일 부산시민공원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회장 백명숙)는 4월 30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제12차 무차만발공양을 진행했다.〈사진〉 다채로운 나물이 버무려진 비빔밥과 물김치, 음료수 등 공양을 준비한 여성부 회원들은 새벽부터 서둘렀지만 피곤한 기색 없이 밝은 웃음이 가득했다.

회원들 뿐 아니라 시민들을 맞이하는 일에 사무총장 향운 스님을 비롯해 상임 이사 스님들도 팔을 걷고 나섰다. 가족들과 나들이 나온 시민들은 설치된 장엄등과 비빔밥 공양 덕분에 마치 산중 사찰을 찾은 듯 즐겁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무총장 향운 스님은 "회장님과 여성부 회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들이다. 수고와 노력 감사드린다. 그 공덕이 무한하다"며 "종교에는 정치도 국가도 서로 차별이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 본회의 목적이다. 무차만발공양도 그 정신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남구불교聯 군장병 위문 법회

부산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30일 해군작전사령부 군법당을 방문하고 위문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남구불교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일일찻집으로 모은 성금 300만원과 간식을 전달했다.

회장 지원 스님은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이 시간 갈등이 해소되고 행복한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발원해 주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시간에 이곳에서 복무하는 동안 자신을 위해서도 시간을 헛되이 낭비 하지 않도록 뜻을 세우고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김해 기도도량 법선암 문 열다

5월 3일 개원법회 봉행 없이 상단불공 진행

경남 김해에 기도 정진 도량 법선암이 문을 열었다.

법선암(주지 법선)은 5월 3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경남 김해 한림면 신천리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주지 법선 스님은 개원법회를 별도로 봉행하지 않고 평소 기도하던 대로 상단불공을 시작해 3시간 동안 신도들과 함께 기도했다. 이 자리에는 주지 법선 스님과 불자 20여명 정도 참석했다.

주지 법선 스님은 특별한 법문이 현재 신도들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미 기도 정진 수행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로 이미 자신이 가야할 해답을 알고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법선 스님은 "이곳은 기도 도량이다. 처음 불자들을 만나면 지장기도 21일, 광명진언 1080독 21일, 지장경 300독, 금강경 100독, 보현행원품 100독, 선가귀감 50독, 법화경 30독을 차례로 권한다"며 "몇 개월 간 독송하고 기도를 반복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곳에 계신 분들은 앞서 말한 기도와 독송은 이미 마치고 반복한 분들이다. 많은 사람이 찾는 도량 보단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함께 기도할 도반들이 찾는 곳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기도도량 법선암은 5월 3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경남 김해 한림면 신천리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법선암은 호랑이가 엎드린 형상을 한 임호산 자락 한림면에 위치한다. 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법선암은 김해를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지역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한다.

법선 스님은 합천 해인사와 상선암에서 기도 수행했으며 부산 범일동에서 포교원을 열고 활동하다 1년 4개월 전 김해로 이전해 불사를 시작했다. 현재 불사는 1층까지 마무리 됐으며 2층 요사채 3층 법당 불사가 진행 중이다. 하성미 기자

금정중학교 '여러분이 곧 부처입니다'

5월 2일 부처님오신날 맞이 금정봉축제 봉행

종립학교 금정중학교(교장 정진완)는 5월 2일 금정봉축제를 학교 강당에서 봉행하고 부처님오신날 의미를 되새겼다.〈사진〉

금정봉축제는 먼저 육법공양으로 시작됐다. 육법공양에는 이날 법사로 나선 범어사 부주지 범산 스님, 정진완 교장과 교사 및 행정실 직원, 반야불자회 어머니와 학생이 나와 부처님께 향, 차, 꽃 등을 차례로 육법공양 올렸다. 이어 이석언 교법사가 발원문을 낭독하며 부처님의 가피로 학생들이 지혜롭게 성장하기를 발원했다. 축하공연으로는 태평무 및 색소폰 연주 등이 마련됐으며 마지막으로 관욕의식이 진행됐다.



범산 스님은 "'천상천하유아독존'이란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며 "부처님께서 깨치고 나니 모두가 부처라는 사실을 아셨다. 바로 여러분이 부처"라며 "이런 사실을 꼭 알아 존귀한 자신임을 알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매우 만족 - 99%"

◆전국 어디서에나 실시간으로 사용가능
◆저렴한 비용과 사용의 편의성
◆사찰관리업무 간편화
◆연등, 인등, 축원문 등의 간편 출력 가능
◆문자서비스, 우편라벨 등의 부가서비스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위패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부가서비스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일정관리, 신도영가 기일 자동 알림,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의 다운로드 가능, 물품관리 등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토굴 분양 안내
따뜻한 남쪽나라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남해에 삼재가 침범하지 못하는 길지에 지어진 토굴에 입주하실 복 있는 인연자를 모십니다.
토굴특징
1 자연재난(지진, 태풍, 해일)과 전쟁 사변 등으로 전기, 수도, 가스등이 단절되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구비 되어 있는 아구이와 온돌 구조 이며 자연수 등이 갖춰진 건물입니다.
2 유명 풍수가들이 극찬한 지세와 지기를 머금은 명당이며 말기암 환자나 난치병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자연 치유될 수 있는 환경과 주변 뒷산에 산약초가 자생하는 지역입니다.
3 또 심우도(尋牛圖) 길이 조성되어서 걷기 명상 할 수 있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분양내용 (선착순 분양)
■ 1개동 건물면적 30㎡. 대지지분 156㎡
■ 1개동 분양가 : 일억원 ■ 총 7개동
■ 아궁이 10㎡ (9.1평)
■ 주소지 :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581-2
■ 별채 : 2층건물 면적 197.27㎡ / 대지면적 1,042㎡
■ 양도가액 : 5억원
연락처 : 010-8913-0062

참기 힘든 치아통증, 거친 피부
피부·치아건강제
건강한 치아, 아름다운 피부를 원하십니까?
참기힘든 치아 통증, 치아건강 백세인생
거친피부, 노화촉진, 피부건강, 청춘인생
약사여래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원력으로 건강하여지니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료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아토피, 피부알레르기,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등 치아피부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돼지감자, 연근 국내산 100%
자연 그대로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건강을 위해 사찰에서 직접 재배한 돼지감자와 연근을 드시기 좋도록 자연그대로 건조시켜 분말로 만들어 담았습니다.

돼지감자 분말
한박스 44봉 7만원
◆효능 : 당뇨, 변비, 췌장 기능 강화, 체지방 분해, 다이어트 효과, 해열, 지혈에 탁월한 효과

연근 분말
한박스 44봉 9만원
◆효능 : 고혈압, 빈혈 예방, 피부미용, 위벽보호, 변비예방, 기억력 개선, 치매 예방, 니코틴 제거에 탁월한 효과
음용 방법
보통 물 한 컵에 한봉지를 넣고 잘 저어서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됩니다.
(우유, 요구르트 등에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금강식품(금강정사) 대리점모집 中
경남 양산시 대동 2길 24 (어곡동)
기업은행 055-375-1398 권영로
문의 055-375-1398.010-2563-1398
지 웅 합 장

화재로 집 잃은 주민 ‘사랑의 집’ 후원해

마이산 탑사 · 쌍봉사 함께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와 쌍봉사(주지 보경)가 불의의 화재로 집을 잃은 주민을 위해 4월 21일 ‘사랑의 집 2호’ 입주식을 진안군 청천면 현장서 열고, 새 보금자리에서 희망찬 삶을 다시 시작하길 기원했다.〈사진〉

이번에 입주식을 한 ‘사랑의 집 2호’는 진안군 자원봉사센터가 전주연탄은행, 마이산 탑사, 쌍봉사 등의 후원을 받아 지은 것으로 10평 규모의 조립식 주택이며, 방과 수세식 화장실, 다용도실 등으로 구성됐다.

사랑의 집 2호는 정천면 이모 씨(52) 소유 건물이 지난해 9월 화목보일러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로 전소된 자리에 지어졌다. 그동안 이 씨는 친척집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의 집에 입주한 이 씨는 “정말 좋다. 이 고마움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호남 곳곳 물들인 부처님 자비광명

광주 비롯해 전주, 익산 등 봉축행사 잇달아

광주 1만 행렬등 거리 메워
전주 청년신용회복기금 기탁
익산 청소년에 장학금 전달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리는 봉축행사가 광주를 비롯한 호남지역 곳곳에서 잇달아 열렸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4월 29일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빛고을관등회를 봉행하고, 부처님 탄생을 찬탄했다.

회장 연광 스님을 비롯해 대흥사 주지 월우 스님, 지역구 국회의원, 각 구청장 등 5000여 명이 참여한 행사는 어울림마당을 시작으로 관등법회, 연등행진, 대동한마당이 차례로 펼쳐져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올해 2회째 접어든 어울림마당은 총 9개 연희단이 참여해 아름다운 율동을 선보였다. 아울러 군법당 장성 무각사 불자장병 40여 명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어린이 · 청소년 연희단 등 다양한 계층의 불자들이 다수 참여해 행사의 의의를 더했다.

이날 연광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이 사회가 양적 발전보다는 삶의 질을 추구하고, GDP보다는 국민의 행복지수를, 경쟁력보다는 협력, 개발보다는 공존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우 스님은 봉축사에서 “부처님오신날이 이 땅에 좌절하고 고통 받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 기쁨을 줄 수 있는 날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등행진을 위한 채화의식과 점등선언으로 1만개의 행렬등이 일제히 불을 밝혔다. 1만 연등은 문화전당에서 출발해 광주 동구지역 충장로, 금남로를 돌았으며, 사찰과 단체에서 만든 장엄등 40여개가 더해져 역대 가장 화려한 행렬을 이뤄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같은 날 **전북봉축위원회**는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연등축제를 거행했다. 행사에는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도광 스님,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 등 전북지역 사찰 주지스님들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 5.18민주광장서 거행된 빛고을 관등회. 봉축탑과 무대 사이 수천여 명의 불자들이 운집해 부처님의 탄생을 기렸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인간존중 선언을 자각하고 대립과 갈등, 분열과 반목 대신 용서와 배려, 화합과 통합으로 나라가 안정되도록 다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이 자리서 전북봉축위원장 성우 스님은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청년신용회복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기금은 봉축위와 금산사가 각각 1000만원씩 모연한 것으로 전주시민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법회를 마친 사부대중은 35사단 군악대를 선두로 화려한 장엄등을 앞세우고 전주시내를 행진하며 세계평화와 민족화합, 지역발전을 기원했다. 또한 법요식이 열린 전주시청 노송광장에는 목탁체험, 다도체험, 연꽃 만들기 등 체험행사가 열렸으며 어린이 큰잔치에서 입상한 청소년들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익산사암연합회(회장 일행)도 4월 30일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봉행했다. 관음사 덕림스님, 영국사 묘주 스님을 비롯한 익산지역 각 사암 주지스님들과 이춘석 국회의원, 정헌용 익산시장, 불자 800여 명이 동참한 연등축제는 운전불자회 차량과 각종 장엄등을 앞장세우고 익산시 영등동 일원에서 부처님오신날의 참뜻을 시민들에게 전했다.

연등축제에 앞서 봉행된 법요식에서 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이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작법 시연이 펼쳐졌다. 또 익산 천천마한클럽(이사장 혜산)은 지역 청소년 15명에게 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남원과 군산, 김제에서도 연등축제가 봉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조동제 전북지사장

여수 청암사 지암 스님 교도소에 토마토 후원

전국 교도소와 소년원을 방문, 재소자들의 건강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청암봉사협의회(회장 지암, 여수 청암사 주지)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정읍교도소에 토마토를 후원했다.〈사진〉

지암 스님을 비롯해 청암봉사회 광주소년원 소년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화 불자 등은 5월 1일 정읍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의 간식으로 사용해 달라며 토마토 550개를 전달했다.

지암 스님은 “평소 전국의 많은 교도소를 방문해 왔지만 정읍 교도소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에 간식을 준비해 방문하게 됐다”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재소자들이 진정으로 참회하고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숨겨둔 내 끼, 절에서 발산한다”

청소년 문화예술 경연 ‘동백연’ 선운사서 열려

전북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잔치인 ‘동백연 청소년 문화예술 경연’이 선운사에서 열렸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와 고창문화원(원장 송영래)는 4월 28일 선운사 경내서 전북지역 청소년들에게 효행심과 애향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예비 예술인 발굴을 위한 ‘제41회 동백연 청소년 문화예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유치부 어린이부터 중 ·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과 학부모 1000여 명이 문화예술 · 민속경연과 체험부문 등에 참가했다.

선운사 동백나무 숲 앞에서의 동백제례를 시작으로 막을 연 이날 경연은 ‘선운사’ ‘새싹’ ‘친구’ ‘연등’ ‘올봄’ ‘가족’이라는 시제가 주어진 가운데 백일장 대회가 열렸다. 또 선운사 경내 곳곳에서 미술, 만담설화, 타악 경연, 무용, 판소리, 시조경창 등 문화예술부문과 제기차기, 투호, 긴줄넘기, 팽이치기, 굴렁쇠 굴리기, 학부모 윷놀이 등의 민속부문, 탁본, 향토문화알기, 도예(자기 만들기), 전통매듭 만들기, 호패 만들기, 가훈쓰기 등의 체험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됐다.



고창 선운사와 고창문화원은 4월 28일 선운사 경내서 청소년 문화예술 경연대회 ‘동백연’을 개최했다.

개막식에서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신록의 계절에 많은 학생들이 선운사를 찾아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선운사는 고창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산실 역할을 해온 만큼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연대회 각 부문별 수상자는 5월 16일 고창문화원 홈페이지와 각 학교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은 5월 30일 고창문화원에서 열린다.

동백연 청소년 문화예술 경연대회는 조선 성종14년 행호선사가 조성한 선운사 동백꽃의 역사성을 배경으로 창설됐으며,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청소년 향토문화예술제로 발전돼오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장병들도 “부처님 감사합니다”

임실 제6탄약창 연등축제 및 위문법회

사회뿐만 아니라 군법당에서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행사가 열렸다.

전북 임실 제6탄약창 호국 장영사(지도법사 이성강)는 4월 27일 대강당에서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및 장병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완주 송광사 회주 도영 스님, 전북불교회관 바라밀합창단, 전북불교회관 불자, 부대 장병 등 4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연등축제는 장병들의 중대별 장기자랑, 부모님께 편지쓰기 입상자 시상, 봉축 법요식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여성 4인조 인기 댄스그룹 ‘소울 퀸’이 활기찬 공연을 펼쳐 참석한 장병들을 환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장기자랑에서 입상한 장병들에게는 부대장 표창과 함께 휴가증이 주어졌다. 전북불교회관 바라밀 합창단은 군장병들을 위해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찬불가 공연을 펼쳤다.

이어진 법요식에서 도영 스님은 “누구보다 장병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장병 여러분들이 군 생활하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른다면 보다 행복한 삶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라밀합창단이 부처님을 기리는 찬불가 음성공양을 올리는 모습.

이성강 포교사는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이면 장병들을 위해 봉축 위문법회를 봉행해왔다”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대의 안녕과 장병들의 앞날에 무한한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봉축위원회는 전 부대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참석한 장병들에게는 떡과 과일, 햄버거 등 푸짐한 간식이 제공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두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5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5년만에 10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대부분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검증해보세요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을 입력하셔서 무료동영상 강좌보기를 클릭하여 DVD 동영상 1 • 2부를 시청하세요.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를 신청하세요
- 교육기간 : 누구나 2개월 완성 (국내외 제자 1000여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60일 완성) / 풍수지리(양택,음택) 포함 (90일 완성)
- 두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중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두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괘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50만원, 할부가격은 17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9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4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 대한불교일월종 추명사)

▶ 강의 및 감정요일 ◀
대구 : 월, 화, 수
(오전 10시 부터 ~ 오후 3시까지 방문요망)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 명 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파계로 112길 30
전화 053)255-4784 / 휴대폰 010-9217-2237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내 어리석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이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 현명하다고 일컫는 것은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역학 · 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4호선 상계역

수 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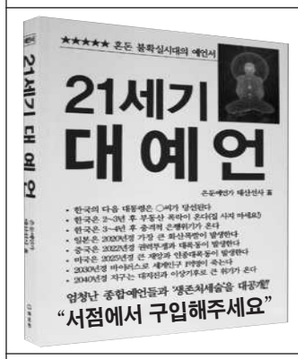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저렴한 천도재로 영가가 천도되게 맞춤 천도 합니다

천도재·49재·점안식
이 인연으로 극락왕생 하소서
010-2168-2800
011-850-0176



法帥寺 양산 통도사 부근

스님의 혜안으로 살피는 현재, 미래의 알고자 하는 일과 미래의 새로운 길, 시험, 진학, 합격운을 알고자 하시는 분, 원인 모를 병고, 귀신병, 빙의로 고생하시근 분 퇴마, 퇴치, 매매, 묘탈, 결혼, 이사, 하시는 사업 영업이 잘 되지 않는 분, 현재 겪고 있는 불행한 일 사고, 재앙을 천도제로 막아 줍니다.
055-382-2108

관 상 (손금)

– 스님 특별 비법 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묘터,질병,재판,이혼수를 얼굴만 봐도 알수 있다
– 일반인,무속인,철학원,스님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역학, 구궁, 오행, 당사주, 신살

배워서 상담하실
분들 전화주세요
010-4234-2536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후천 극락승천 성불시대 왔다

도통 문 열려 천지인합일
세상 완성. 무극천기와
佛수기 전수받아 도통,
불(미륵불)대신통 道완성 성불함
17개 시.도 지부개설가능자 환영
일월천불도선원
063-352-2888
010-4775-8960

범음범패 교육

스님, 일반, 남·여 수시모집
바라, 나비춤, 사물 다루기,
살풀이, 극락무, 천도재,
49재, 점안식, 사찰행사
010-3653-5151
010-5598-5078
무상 합장

불교 범음범패 학인모집

염불, 사물, 천수바라,
나비무, 법고, 양고장 및
송주, 정근북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구, 용회사)
010-7579-8200
금륜사 주지 법현 도광

늦깍이로 스님 되실 분

경북 문경에 위치한 사찰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시봉하며 공부도 하고 스님이 되고자 하시는 분 연락주세요.
010-8819-8988

비구, 비구니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보살님 모십니다
(운전경험 有)
010-9421-073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경주)
010-4749-6577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원)
010-3618-606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파주)
010-5257-7750

기도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010-3840-4355

비구니 스님 , 보살님 방사드림

(1인 1거주, 아파트형 25평)
조용한 산사에서 요양하실 분 / 수행처가 마땅하지 않은 분 / 사찰에서 여생을 보내실 분
010-4640-4747

문두루 기도비법?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27년 전통의 길상불교예술원

(탱화, 단청, 불상 갤러리 운영 전문)
불교미술을 배워서 전문적으로 불교예술원을 기획, 운영하실 인연을 기다립니다.
경북 경주시 보문로 402-31
(붓다의허브정원 : 탱화 불상 갤러리박물관)
010-5595-8533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전통 구들 무료 교육

본 연구원에서는 각 종단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전통 구들 교육을 무료로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지도강사 : 구들 치수화를 발표한 구들장인 관요 **문재남** 원장
- 참가대상 : 전통구들에 관심이 있는 스님
- 참가인원 : 선착순 30분
- 교육방법 : 이론 및 실기
- 신청기간 : 2017년 5월 13일까지
- 일 시 : 2017년 5월 18~19일 (음력 4월 23~24일)
  목, 금 – 1박 2일 10시 부터 ~ 17시 까지
- 장 소 : 경남 양산시 명동 1003번지
  (양산시 덕명로 319-15)
- 주 관 : 나무와 흙 건축시공학원
- 준 비 물 : 간편복, 필기도구. 세면도구
- 주 최 : 나무와 흙 총동문회
- 후 원 : 한국대승불교조계종
- 숙 식 : 개별 부담
- 연 락 처 : ☎ 055-366-2006
  다음카페 cafe.daum.net/woodnsoil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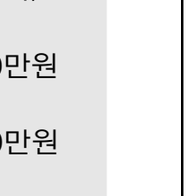
이름으로 운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 오늘운, 금년운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배울 분 모집 010-5792-0199
한국명품이름연구원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총 782P 두권 구입 값 43,6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 인류최초로 기도치료법을 가르쳐 주신분은 부처님이십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협(정보석)

육임 직접강의

대육임, 육임금구결, 주역, 월령도 등을 직접 강의합니다.

육임의 대가 운암스님께서 1:1 직접 강의로 수강 완료 후 즉시 개별 상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 교 수 : 법연정사 운암스님
- 과 목 : 대육임, 육임금구결, 주역, 월령도, 명리, 성명학
- 강의시간 : 1년 과정 (매주 5시간 강의)
- 수 강 료 : 대육임, 육임금구결, 월령도 } 각 60만원
  주역, 명리, 성명학 – 각 40만원
- 강의장소 : 법연정사
  (경기 구리시 교문동 233-15 2층)
- 연 락 처 : 031)554-3336
  010-5931-3319

법 연 정 사 운암 합장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무속 단계 무료, 심천 유료)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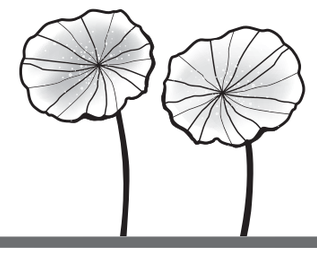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깎아서 바르게 만들고 물 위에서 사는 사람은 배를 조종한다. 목수는 나무를 조종하고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조종할 수가 있다.

- 법구경 -



인천시 추천 사찰 안내

- 토지 182㎡(약 55평) 2층 건물
- 2층 법당 1층 요사채 마당
- 지하철 인근 주차가능
- 양도가액 : 4억(조정불가)
- 서울&경기 지역 매물 접수처(H.P 010-3426-9393, 카카오톡: hyeonjong01)

서울. 경기 사찰 & 포교원 매매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44 101호 / www.010-3426-9393.com

010-3426-9393 / 02-449-0284

논산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법당.공양간.산신각
- 토지 40㎡
- 마을에위치 교통편리. 남향이며아늑한 암자
- 양도가액 : 1억 3천만원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경북 성주 사찰 소개합니다.

- 부지총면적 : 2,945㎡(890평)
- 검물총면적 : 234,76㎡(71평)
- 가액 : 3억 7만원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 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226 (쌍봉동 128-4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 위치 : 서울
◎ 부지 : 1100평	◎ 면적 : 200평
◎ 법당 : 40평	◎ 법당 : 50평
◎ 요사 : 80평	◎ 요사 : 2동
◎ 양도가 : 6억5천	◎ 양도가 : 25억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내 돗대산 기도사찰
- 토지 : 270여평, 종각, 요사채 30평
- 법당 23평, 주지실, 산신각, 용왕당
  ※ 국제의료관광특구지정
- 사찰주변 1,500세대 아파트
- 최근 2,000세대 아파트 추가분양
- 양도 : 10억 8천만원

직통 010-9906-3631 혜관

사찰(급)안내

- 충주 부근 목조 사찰 양도
- 토지2,500㎡,목조법당.황토요사.목조산신각등
- 면소재지. 50년된 안정된 사찰
- 위치좋음. 조용한사찰
- 가액 : 4억2천만원(현금2억구입)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 해도동
- 약 40평, 삼존불, 후불탱화, 소불
- 인등, 연등, 집기일체,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공양간, 방 1개
- 명리, 철학 호조건, 본절 소임 관계로 양도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2077-4293

전망좋은 암자 안내 및 세 놓습니다

- 위치 :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연명
- 삼존불 각단탱화, 스님방사, 산신각
- 가액 : 1억 전세 1,000만원, 월 30만원 전세 500만원, 월 4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643-5235

010-7475-0474

인천시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시 서구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위치
- 3층 / 3층 283㎡ (약 86평)
- 상담실 법당 주방 공양간 등
- 가액 : 보 1000만, 월 70만원 시설비 4000만원

010-3426-9393(포교원전문)

02-449-0284

삼 보 사 찰 안 내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 위치 : 사하구	● 위치 : 서울	● 위치 : 김해
● 대지 : 750평	● 대지 : 120평	● 대지 : 2,000평
● 법당 : 50평	● 법당 : 25평	● 법당 : 30평
● 요사 : 3층 20평씩	● 요사 : 30평	● 요사 : 60평
● 양도액 : 25억	● 가액 : 12억	● 가액 : 25억

오랜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사찰,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은데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을 많이 주시면 빠른 시일에 성사 시키겠습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삼사순례지 소원성취하는 절

- 이름 : 당산목 : 영신목(靈神木)
- 나이 : 일천삼백살(1,300세)
- 무게 : 칠톤(7천 kg)
- 고향 : 전북남원 지리산

※ 소원을 들어주는 신령하고 영험한 영신목
"소원을 이루는 절" 용두산 위 불 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탑동길 92-45

종무소 : 055)224-0023

주지승 : 010-4547-0023

지리산 암자 안내

- 위치 : 경남 함양 마천(지리산)
- 대지 510㎡ 법당 약10평정도
- 건물앞 바로 계곡 공기 물 산세 최고 2층에 앉아 흐르는 물 바라보면 지상낙원임
- 기도도량으로 보살님 법사님 환영
- 둘레길에 위치하며 등산객 많음
- 버스종점 위치 좋음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283-7733

토 굴 안 내

- 위치 : 원주시 부론면 소재
- 여주IC, 문막IC에서15분거리
- 대지180평,전75평,건평30평
- 난방 : 심야보일러
- 대문까지 포장도로,주차장시설
- 스님 토굴용으로 최적
- 가액 : 1억 6천만원

010-7345-1674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동 4호선 당고개역 1분거리
- 지하1층, 지상1층 다락 지상 49.26㎡, 지하 24.03㎡ 마당 있습니다.
- 상계 제2구역 재개발구역
- 종교부지
- 가액 : 5억 5천만원

010-3763-28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 (댐 부근)
- 총 730평, 법당 50평 중방2, 화장실1, 주방1, 요사채 방사4개, 부엌1,화장실2, 욕실1
- 산신각, 용왕당, 독성각, 할매당 각1
- Y자형 계곡, 사시사철 계곡물 철철, 계곡에 가재, 갈겨니(피라미), 다슬기 바글바글
- 앞뒤 산에 송이 버섯 다수, 법당은 동향 요사채는 정남향
- 서출 동향수 완벽, 대형버스 진입
- 종찰로 들어가야할 일장이기에 부득이 안내 합니다
- 가액 : 3억 5천만원 (절충사절)

010-4466-3575 (주인 직)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기해시 소재
- 부지 : 2,500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목조, 닷집, 단청)
- 요사채: 3동 110평, 산신각 : 7평(닷집)
- 기타 : 석탑, 석등
- 가액 : 25억원
- 특징 : 도심인근에 위치하여 포교하기가 용이하고 산세가 수려하여 기도 정진할 도량을 좋습니다.

- 위치 : 경남 창원시 소재
- 부지 : 6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 (2층, 단청, 청기와)
- 요사채 : 35평(1층)
- 가액 : 3억 3천만원
- 특징 : 신도구성이 잘된 도심 번화가의 포교도량입니다

동진사찰공인중개사 서울) 010-5848-0455

대구) 010-4942-0455 / 제주) 010-5122-8080

* 전국소재 사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서동 시장인접
- 2층건물중 2층 (옥상사용),35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는 상담후 결정

010-4879-3858

암 자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 송지면 소재
- 대지 110평(바닷가 접)
- 법당, 해수관음, 5층석탑, 용왕단
- 즉시법회 가능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7,000만(답사후 절충)

061)337-3357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 정선읍 사찰
- 부지 약 1,700평

대웅전1, 삼성각1, 부처님 진신사리 있음

- 대형돌탑 높이 9m30, 둘레 10m3, 108돌탑, 요사채2, 정자각1, 심야전기 보일러, 태양광열설치, 대형주차장완비
- 집기일체 법회 바로 가능
- 읍내거리 10분
- 가액: 17억

033-562-044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북천
- 총부지 : 임야 2,000평
- 건물 : 법당 16평, 요사 30평, 조립판넬구조
- 자연경관 수려하고 공기좋고! 이명산, 지방문화제 마애불있고 북천 코스모스축제 하는 곳
- 가액 : 2억 1,000천 대출 7,500백 안고 1억 3,500백

010-7188-7723

암자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지리산하
- 법당, 산신각, 용궁전, 요사채
- 사용도지세 1년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9036-2131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산세 좋고 물좋은 조용한 사찰기도하기 좋은 사찰
- 주변 사용 가능한 국유지 많음
- 대웅전, 산신각, 기와단청, 요사채2동
- 면적 34,000㎡, 건물 약 170㎡
- 가액: 6억 5천만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박춘식)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연산동)

010-5346-4138

051-861-2233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 종교부지, 임야, 대지 약 5,700평 대웅전, 약사전, 삼성각, 노천불
- 요사채 및 황토 찜질방
- 가액 : 12억(아주 싼가격 급 양도)

010-3470-973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시내중심가 도심포교 최적지
- 마당 정원이 있는 한옥 기와집, 단독주택
- 법당(시설완비), 방2개, 주방1개, 욕실, 화장실, 창고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800만원
- 몸만오시면 됩니다.

010-6603-1456

사 찰 안 내

- 위치 :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동강 앞 영월 근교 영월에서 25분거리
- 대지 270평, 요사채 40평 목조로 된 신 건물, 법당 17평

※ 군부지 약 500평 사용가능

- 가액 : 2억 5천만원

010-3924-8969 주인직

암자터 및 전원주택 부지

- 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진목리 304번지
- 자연경관 수려하고 삼면 소나무 숲
- 지방국도 접해 있음
- 거창 진목리 면사무소에서 3분거리
- 전기 자연 우물 유. 1300평
- 가액 : 9,500만원
- 대출 삼천만 되어 있음

거창 010-4661-7734

부산 010-3868-7435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구시내 2차선 도로변
- 대단지 아파트와 주택밀집지역 중간부분 교통 원활
- 아미 관음 지장 후불 신중 칠성탱화 영가단, 소불 법당종 냉,난방기 음양 조명 등 시설완벽 불기 및 집기일체
- 신조성 1년 10개월 포교 및 명리 적합, 3층 건물 중 2층 약 25평
- 주방시설은 있으나 방은 없음
-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없음

010-5050-625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충북 충주시 최상의 위치
- 건평 : 70평 완벽한 시설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등)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 40만원
- 즉시법회가능(몸만오시면됨) 시설비 조정

043-848-576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삼안동 삼안공원 앞
- 3층 건물중 1층 33평
- 삼존불, 후불탱화 , 신중탱화, 방, 도시가스, 냉장고, 냉 · 난방에어콘
- 주위 환경 좋음
- 시설 집기 일체700만원
- 가액: 보1500만원 월4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10-8352-4111

수양관(암자) 안내

- 위치 : 대전시내 보문산(정동향)
- 대지: 98평, 건물 40평
- 약수우물 있고 대학병원 5분 역전10분거리
- 가액 : 2억 7천에서 7천빼고 2억에 급 양도 (전월세 가능 선착순)

010-5407-8034

주 택

- 위치 : 경북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 614
- 대 456평, 주택 20평, 건물 40평
- 귀촌가, 불가 다용도 최상건
- 가액 : 9,500만 주인직, 야간통화가능

010-7621-7621

사 찰 안 내 (토굴)

- 위치 : 경북 구미 시내
- 대지75평, 요사채, 법당 40평
- 방3,주방,욕실,화장실2,창고1, 총평수 248㎡(75), 대문2
- 현재 8년 운영중 스님이 대불사를 하였음
- 스님, 보살, 법사가능
- 가액 : 보증금 100만원,월35만원 시설비 600만원

010-2499-3001

사 찰 안 내 (토굴)

- 위치 : 김천시 대덕면
- 대지 : 380평(종교부지)
- 가동(법당) : 약 40평 나동(요사체) : 약 40평
- 넓은주차장 텃밭 연못 바로 앞계곡 조용하고깨끗한 절
- 가격: 2억1천만(대출5천포함)

010-2755-7809

010-8897-7809

주지 자리 찾습니다

- 60세 건강한 비구 입니다.
- 주지소임 및 포교를 많이 했지만 저 자신의 도량은 진즉 인연이 닫지 않아서...부득이 원력을 바꾸었습니다. 기도염불, 포교, 불교대학 소신있게 말씀 드립니다. 나름 자신합니다. 참고로 부처님 집기일절 옛날 항아리 등 살림살이, 일체 기부하면서... 많은 불교서적들도! 있습니다. 함께 절을 운영할 도량이 있으신 불자님도 연락주셔도 됩니다. 남은여생 부처님은혜 갚을인연 부디 맺어지길 두손 모읍니다.

051)503-4133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 희담석 (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희담석 지킴이 염주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www.hyunbulshop.com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세계학자들 티베트 정보 활용에 도움 되길”

美연구원, 티베트 불교경전 및 의례 · 의식 연구해 전파

미국 과수원 농장 아들이 티베트 불교 경전을 번역하고 전파 보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콜로라도 예술 과학 매거진은 최근 티베트 불교의 현대화와 티베트 불교경전 번역 및 의례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인물을 소개했다.

에벤 요네티는 뉴욕 허드슨 밸리의 과수원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대학시절 방황하던 그는 시에나 대학 재학 시절 네팔 · 히말라야 시민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네팔로 여행하면서 티베트 문화를 접하게 됐다.

그는 티베트 망명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종교적 공동체에 대해 배웠고, 결국 티베트인과 티베트 문화에 몰두하게 되면서 티베트어와 종교적 실천과 사상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대학원에서 티베트 불교를 전공으로 1970년에 티베트 불교가 어떻게 세계 각지로 퍼져 나갔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에벤 요네티는 “나는 학창시절 아이디어의 홍수 속에 방황하는 전형적인 반항아 학생이었다”며 네팔에서의 시절을 떠올렸다.

네팔과 인도에서의 시간동안 그는 불교사원에서 행하는 의식을 관찰하면서 붉은 가사 장삼을 입은 스님이 트럼펫을 치고 심벌즈와 북을 치는 것에 매료됐다.



에벤 요네티는 티베트 불교의 현대화와 티베트 불교경전 번역 및 의례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사진출처=콜로라도 예술 과학 매거진

네팔 여행 때 티베트 문화 접해
망명가정과 살며 종교공동체 배워
티베트어와 종교 사상 연구 결심

한번은 불교의식을 치르는 중 한 스님이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의식을 집행하던 스님은 주의가 산만해진 스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한줌의 쌀을 집어 들어 휙 던졌다.

요네티는 “불교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불교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사라졌다. 예전에는 철학과 명상에 대한 개념만 있었고, 불교계인들은 항상 신비롭고 매혹적이며 고상한 이상을 지녔다고만 생각했다”며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은 나에게 매우 생소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요네티는 백파이프를 연주했던 경험을 살려 티베트 음악을 연주하는 스님을 만나고 어떻게 티베트 음악이 종교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연구했다. 그의 연구 프로젝트 이름은 ‘티베트 불교의 의례음악과 창의성의 재발견’이란 제목으로, 불교행사에서 진행되는 음악적 의식과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는 의식 · 의례에 대한 연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네팔에서의 여행을 마친 후 요네티는 네팔 불교 국제학교에서 불교철학을 공부하고 가까운 수도원에서 스님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4개월을 보냈다.

요네티는 이번학기 부터는 놀린 도서관에 기증된 600여 종의 티베트어로 쓰인 서적을 조사할 계획이며, 차드라재단에서 장학금 지원도 받는다. 그는 아직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티베트의 종교, 역사 철학적 자료를 연구하는 작업에 몰두할 계획이다.

요네티는 “티베트 불교연구는 티베트 불교의 학문적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티베트 불교의 위대한 지도자들의 업적을 담은 작품들도 연구하게 된다”며 “이번 작업은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상당히 늘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요네티는 도처에 있는 사찰의 종(鐘)과 티베트 불교 의식에 사용되는 도구와 그 사용법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오는 12월까지 개최한다.

이보형 객원기자



샌디에이고에 거주 중인 대니얼 아이젠먼은 최근 우는 아기를 진정시키는 법으로 ‘만트라’를 제시해 페이스북상에서 화제를 모았다.
사진출처=대니얼 아이젠먼 페이스북

우는 아기 단번에 진정시키는 법 ‘만트라’

미국의 한 남성, 우는 딸 ‘옴’ 소리로 진정시키는 영상 공개

아기가 너무 울어서 고민이라면 여기를 주목해보자. ‘우는 아기 진정시키는 방법’과 관련해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 최근 미국의 한 남성이 갓 태어난 자신의 딸이 우는 것을 멈추는 법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신기할 만큼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친 비법은 바로 ‘만트라(mantra: 진언)’.

화제의 주인공은 샌디에이고에서 동기부여 강사로 일하고 있는 대니얼 아이젠먼이다. 그는 4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딸 디비나가 울고 있는 영상과 함께 ‘#HowToStopACryingBaby(우는 아기를 멈추게 하는 법)’이란 해시태그를 달았다.

영상 속 디비나는 여느 갓난아기처럼 울다가 대니얼이 ‘옴’ 소리를 길게 하자 울음을 바로 멈췄다. 이게 끝이 아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니얼이 20초간 ‘옴’ 소리를 유지하자 디비나가 잠에 빠져든 것.

이 영상은 3500만 명 이상이 이 영상을 조회했고, 약 37만 명이 공유하며 ‘만트라 자장가’에 관심을 나타냈다. 댓글에는 “아기가 전생에 불교 승려였나보다” “‘옴’ 소리가 자궁에서 들었던 소음 크기와 비슷해서가 아닐까” “아빠의 사랑이 전해진 것 같다” “내 손자에게도 해보았는데 깊이 잠들었다. 너무 신기하다” 등 폭발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日사찰, 두 스님에 4년 밀린 시간 외 수당 지급

관례상 지급 거부하다 외부노조 대리협상

일본의 한 사찰이 “승려에게 사중 소임은 자기연찬”이라며 소속 스님 2명에게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4년 만에 밀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교토에 위치한 진종대곡파 본사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는 승적을 보유한 前 직원 2명에게 4년간 밀린 시간 외 수당 657만 엔(약 6,650만원)을 지급했다.

소속 스님에겐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게 관례라며 그동안 지급을 거부하다가 외부노조가 대리협상을 벌인 끝에 밀린 시간 외 수당을 전부 지급한 것.

A스님(38)과 B스님(34)은 사찰 신도들을 안내하고 돌보는 보도(補導)로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근무했다. 기본 숙직 근무 외에도 바쁜 달에는 초과 근무가 100시간 이상이었지만 시간 외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두 스님은 외부 노동조합인 ‘교토 유니언’에 도움을 요청, 노조 측은 단체교섭에 나섰다. 이에 사찰 측이 노무관리가 불충분했단 사실이 인정돼 대가지급을 요구한 두 사람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사찰 측은 앞으로 근무시간을 체크하는 타임카드를 도입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도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스님은 “우리 외에도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한 직원이 있다”면서 “일자리를 잃을까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올해 3월 말로 4년간 임기가 만료된 A스님과 B스님도 희망하면 1년 연장하는 관례에 따라 연장을 희망했지만 사찰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퇴직했다.



히가시혼간지 전경.
사진출처=위키피디아

보도가 시간 외 수당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찰 종무소 총무부장은 “아무리 사찰이라도 공짜로 일을 시켜선 안 된다”며 “사찰이 1973년 ‘시간 외 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명하지만, 그 내용도 시대에 맞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승복 염색 · 카르마, 학교서 ‘큰 인기’

캐나다 중학교, 학생들 대상 불교식 학습법 전수 화제

캐나다 지역 언론 사크빌 트리뷴 포스트는 4월 25일 (현지시간) “마쉬뷰 중학교 학생들은 건강, 역사 커리큘럼의 일부 수업을 불교를 가르치는데 할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사인 마리아벨츠는 지난해 9월부터 5~6학년 학생들에게 불교의 기초적인 교리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변화를 발견했다.

마리아 벨츠는 “학생들은 음식을 먹을 때 더 건강하게 먹는 법을 배우고 그 음식들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배운다. 이런 학습은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알게 해주고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배운다”고 말했다.

최근 캐나다 마운트앨리슨 대학교 동양종교 윤리학과는 마쉬뷰 중학교에 마음챙김과 불교에 관한 서적들을 제공하기 위해 방문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머리 모양을 딴 그림위에 색칠을 하며 셀프 자각 명상을 한다. 또한 큰 그릇에 강황가루를 담고 물을 섞어 정사각형의 천을 그릇에 넣는다. 스님들이 다양한 향신료 가루를 사용해 승복을 염색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머리 모양을 딴 그림위에 색칠을 하며 셀프 자각 명상을 한다.
사진출처=사크빌 트리뷴 포스트

이밖에 학생들은 명상에 집중 할 수 있는 악기와 의식에 대해서 배우고 스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채식과 카르마에 대해서도 배운다.

마리아벨츠는 “이러한 수업들은 아이들 나이 또래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와 상황들을 해결하고 방법을 찾는데 힘을 기르는 것은 중요하다”며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은 학교 바깥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고 덧붙였다.

이보형 객원기자



위패몰.com

원로대덕스님들께 삼가 문안인사 올립니다.

사찰에서 살다보니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쓰다보니 주위에서 나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다보니 이렇게 지면을 통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쓰기 좋고 보기 좋으며 법당내의 격을 높이고자 감히 디자인 하고 고안하였습니다.

조상의 왕생극락을 불전에 기원하는 후손들의 정성을 섭인(攝引)하여 법당을 여법하게 장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문(沙門) 일허(一虛) 나무 관세음보살



2단 합동위패 ① / 2단 합동위패 ② / 3단 합동위패 ① / 용전대 ① / 용전대 ② / 목걸이마이크 ① / 목걸이마이크② / 축원카드 보관함 / 소대위패① / 소대위패②

살펴보시고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산 서구 남부민동 93-1번지
☎051)244-2040

七寶寺

문화재기능인목조각 제5772호 · 대한민국대한명인수미단 제483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네이버는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 검색 ⇨ 카페 앨범 검색 ⇨ 목록 검색하시고,
다음에서는 다음카페 검색하시면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순간 놓치면 만남도 이별로 이어져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명상은 세상과의 소통 ⑩



마음을 덮어 방해하는 장애물

'친숙성'에 대한 현실적인 예로 '선거'를 들어보자. 대통령 후보자들의 얼굴과 이름, 기호의 반복성은 그것을 자주 보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운 느낌을 준다. '싫어하면서도 닮는다'는 말이 있듯이 친숙성은 대상에 대한 감각적 자극에 의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보던 TV드라마를 즐겨보고, 탤런트나 가수도 자주 보던 사람이 더 친숙해진다. 그러다보니 그 대상이 실제로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판단 분별도 하지 않은 채 마치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어 새로운 대상을 맞이하는 데 방해로 작용한다.

우리의 마음을 덮어서 삶을 방해하는 5가지 장애물이 있다. 이를 오개(五蓋) 또는 오장(五障)이라고 한다. 우리의 마음을 덮어서 바른 마음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번뇌와 같은 것이다. 욕망, 분노, 혼침과 졸음, 들뜸과 우울, 회의적 의심 등은 우리의 마음을 덮어 바른 마음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한다. 이러한 장애들의 실상을 관찰하여 알면, 그것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곧 사라지면 다시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다. 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이러한 장애에 끌리거나 반복해서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개를 없애지 못하는 것은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진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애는 色·受·想·行·識이라는 5가지 요소인 대상과 관련된다. 색은 어떤 성질이 있고,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없어지는가를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하고, 감수작용이나 지각 표상이나 의지의 활동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있게 된 것이며 또한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진다는 것도 알아차려야 한다. 또한 色이면서 색이 아니고, 受이면서 수가 아니고, 想이면서 상이 아니고, 行이면서 행이 아니고, 識이면서 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일체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5가지 대상에 대한 마음의 작용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인 연인간의 사랑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남녀의 사랑은 만남에서 비롯되는데, 만남을 촉진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근접성이다. 같은 일을 하는 동료 직원이나, 같은 전공, 동아리 멤버 등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가 되기 쉽다. 이처럼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가 관계의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은 '친숙성' 때문이다. 우리는 자주 듣는 음악을 더 좋아하고, 자주 먹는 음식을 더 좋아하며, 자주 걷는 산책로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유명인의 사진을 보면 볼수록 더 친숙한 느낌을 갖게 되어 사진의 주인공에 대해 연정을 품기도 한다.

튼튼한 철길 같은 관계

이처럼 남녀의 관계는 친숙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중하게 이루어진 만남이 조화롭지 못하면 파멸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상담을 하러 온 대학생 K양의 경우를 보자.

그녀는 같은 학과의 예비역 선배와 만나 서로 사랑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상대에게 자기의 마음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상대방이 섭섭하게 대할 때나 보고 싶을 때, 만나고 싶지 않을 때 '섭섭하다' '보고 싶다'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다'는 그녀의 마음을 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늘 상대가 원하는 대로 만나다보니 뭔가 답답하고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만나기가 두렵고 꺼려진다. 이러한 결과는 만남이 잘못되었다기보다 제대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한 쌍의 연인이 만나 행복한 관계를 지속하려면 어떤 형태의 만남이 이루어져야할까? 한 쌍의 연인은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을 나누면서 같은 길을 가자는 약속을 하면서 탄생한다. 이러한 만남은 마치 평행선을 이루며 함께 가는 철길과 흡사하다.

철길은 단단히 다져진 땅에 수없이 많은 침목(나무토막 또는 콘크리트)을 일정한 간격으로 깔고 그 위에 긴 강철을 두 줄로 놓아 쇠못으로 단단히 고정시켜 기차가 다닐 수 있게 만든 길이다. 철길은 평행선을 이룬다. 평행선은 조화와 평정의 상징적 모습이다. 그것은 영원히 만나지 못하지만 함께 한다. 먼 거리에서 평행선의 끝을 보면 마치 신기루처럼 만나고 있다. 이것은 원근 착시 현상으로 나란히 가고 있는 평행선은 먼 거리에서 수렴되어 마치 한 점으로 만나는 것처럼 지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철길도 실제로는 만남을 계속하고 있다. 두 개의 철길은 평행선으로 가고 있지만 수 없이 많은 침목으로 연결되어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존하고 있다. 두 개의 강철은 연결되는 침목과 단단히 고정되므로 그 위에 엄청난 무게의 기차가 달릴 수 있다. 많은 침목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두 줄기의 강철, 그리고 그 위를 힘차게 달리는 열차, 이것은 마치 두 남녀가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이를 극복하고 함께 만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침목이 어느 한 개라도 헐렁해지거나 나사못이 빠지게 되면 그 위의 강철은 제 구실을 못하게 된다. 때로는 홍수에 의해 침목이 빠져 없어지거나 흙이 패이게 되어 철길이 휘어지게 되면 열차운행이 마비되기도 한다. 이처럼 연인의 만남도 연결고리가 풀어지면 관계는 단단하지 못하여 이별의 전조가 된다.

> "
> **자주 보면서 생기는 친숙함**
> **분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
> **조화 못 이루면 관계 무너져**
> **차이 수용하며 점차 맞춰가야**

두 개의 철길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일생을 함께하는 연인과 같아서 서로가 관찰자와 대상자로서 역할을 한다. 이는 명상 수행자가 대상을 바라볼 때 대상자와 탈동일시(de-identification)하는 것과 같다. 흔히 명상과정에서 관찰자는 대상과 분리됨으로써 자기경험을 대상화하여 바라보게 되고 그 결과 수행자는 대상과 탈동일시가 일어난다. 수행자가 대상에 함몰되지 않은 채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경험의 변화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감소하며 점차 평정의 상태에서 대상을 바라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행자는 대상을 놓치지 않고 확고하게 붙잡는다. 관찰하는 동안에 대상을 한 순간도 놓쳐버리거나 잊어버리는 일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 대상이 생겨나는 처음 상태에서부터 지속되는 중간 상태를 거쳐, 사라지는 마지막 상태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따라가며 알아차린다. 즉 알아차림의 과정에서 틈이 있어서도 안 되고 끊임없이 이어져야만 한다.

나부터 확고하게, 다음은 소통

연인의 만남은 명상에서 수행자와 대상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끊어지지 않고 유지하듯이, 철길이 만나지 않으면서도 멀어지지 않고 한결같은 공간을 유지하듯 같아야 한다. 이러한 연인들 간에 보여주는 만남은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평행선의 한 선이 다른 선으로 기울어져 종속되는 모노레일 형이다. 이 형은 K양처럼 자신을 당당히 나타내지 못하고 상대방을 거슬리게 하지나 않을까 하여 눈치를 보거나 상대방의 뜻에 따라 만나게 되는 유형이다. 이들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편이 다른 한 편을 따라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한 줄로 서서 뒷사람이 앞사람을 따라가는 모노레일과 같다. 다음은 서로가 평행선을 이루며 함께 가고 있으나 침목이 듬성듬성하고 강철과 침목의 이음이 확고하지 않아 만남은 이어지되 약해서 언제 평행에서 벗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철길 형이다. 겉으로는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로가 자기의 마음을 잘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한다. 그저 함께 있을 뿐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침목이 단단히 연결되어 있듯이 서로의 관계가 틈을 주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져서 기차가 마음 놓고 달릴 수 있는 철길 형이다. 이 형은 힘들거나 즐겁거나 서로 간에 마음을 나누어 상대방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다. 둘이면서 하나인 듯 서로의 관계가 친밀하다.

위의 만남 유형에서 보듯이 우리가 소중히 만나 일생동안 아름다운 동반자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철길 형과 같은 만남이어야 한다. 실제로 만남을 지속하면서 평행을 이루어 독자성을 인정하는 연인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자기 자신이 길을 확고히 가야하고, 자신의 길을 가면서 함께하는 동반자와 끊임없이 관계를 나누어야 한다. 이 길은 자기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김으로써 자신의 삶을 열어가는 것이요, 동반자와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공존의 조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파트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동반자로 맞이할 수 있는 철길형의 사랑은 어느 정도나 가능할까.

최근 필자는 이러한 철길 형의 사랑을 한 순간에 놓칠 뻔했다. 이미 출가한 자식들의 문제로 서로 의견을 나누다가 그 차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격해진 것이다. 마치 요즈음 대선 주자들의 토론처럼 자기말만 하고, 상대를 공감하지 못하다 보니 난장판이 되는 것과 같았다. 에고로 가득 차 있는 필자의 감정 상태가 지난 46년간의 삶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아차,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낭패감을 맛보면서 잠시 멈추고 밖으로 나왔다. 그때 호흡명상은 기가 막힌 특효약이었다. 아마도 그 순간을 놓쳤다면 지금쯤 아내와 나는 서로 남남처럼 살고 있을 것이다. 지난번 칼럼의 주제처럼 '순간을 놓치면 일생을 놓친다'고 했는데, 불과 열흘 정도 지나 그 경험을 하고 만 것이다. 열차가 달리다가 마주 오는 열차를 봤을 때는 이미 늦다.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상대를 존중하지 못한다면 만남이 이별로 이어진다. 만나되 만남이 없는 것과 같은 철길 형의 사랑만이 연인의 관계는 물론 세상을 이어주는 선물이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대행 스님

우주의 그 모든 것도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여러분의 마음도 천차만별로 그릇이 돼 있고, 차원이 천차만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은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만이 그 까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계단 없는 계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부터 자꾸 여러분한테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둘이 아닌 도리만 안다면 그대로 지혜가 넓어지고, 부처님 뼈를 얻었으면 그대로 골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끝없는 길로 사무(四無)사유(四有)를 한데 거머쥐고 그대로 자유인으로서 자유스럽게 안팎을 지배하면서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가도 지키고 내 생활, 내 가정, 내 부모의 조상들, 또 내가 뿌려 놓은 씨들을 다 거둘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의 능력을 누구나가 그대로 인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오늘 이 핵심적인 문제를 잘 아셔야 할 겁니다. 우주의 그 모든 것도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살다가 세계적으로 나가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지혜가 넓어지면 그때는 모두가 내 벗이요, 내 거 아닌 게 없고 내 자리 아닌 게 없고, 내 아픔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남도 거둘 수 있고 나도 거둘 수 있습니다. 내가 기(氣)가 약하면 약한 대로 스스로서 기가 약하다는 걸 느끼면 벌써 거기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입력이 돼서 그냥 불바퀴가 돌아가면서 모두 통신이 되고 전달이 되니까 그냥 기가 저절로 알맞게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약, 액체도 다 알맞게 들어오고요. 왜냐? 여러분의 속에 들은 그 의식 자체들이 전부 지배인에 의해서 한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이고, 또 동물이나 식물이나 전부 한 도반이기 때문에 이 몸체에서 액즙을 내서 이렇게 사대(四大)로 모든 게 분배되듯이, 이렇게 저절로 자동적으로 들어와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운전수가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고 가죽을 얻고 살을 얻고, 그 뼈를 얻고, 또 골수를 얻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고 자기가 실험하고 체험해야만이 그 진미를 알지 남의 말만 듣고는 그 진미를 도대체 모릅니다. 느끼질 못합니다. 그러면 그게 겉돌아서 한데로 떨어지게 마련이죠. 그러니 자기가 진실하게 그 핵심적인 문제만 풀어 제끼면 안에서부터 그 안의 바깥을 알고, 바깥을 알면 바깥세상을 알고, 세상을 알면 자기는 그 독 안에서 벗어나고, 벗어나면 독을 굴리면서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부처님의 골수를 얻을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마음은 둘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중생의 마음도 또한 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 최주현

어떤 때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똥에 거위가 있고 또 지렁이가 있으면 피해 가시죠? 어느 땐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골 농촌에서야, 비는 부실부실 오는데 옥수수를 먹고 똥을 눈 것이 여기도 눠 놓고 저기도 눠 놓았어요. 부모가 농사를 지으니까 밭을 매러 나가면 애들이 그냥 그저 먹는 대로 싸 놓는 겁니다. 그게 비를 맞으니까 흐치흐치한 데다 거위도 그냥 여기저기 꿈틀거리고, 또 꿈틀거리다가 그냥 죽은 것도 있고 그렇더군요. 그래서 가만히 그 집을 들어가다가 마당에 있는 그 똥 무더기를 세어 보니깐요, 열한 무더기였어요. 허허허. 그게 사 남매가 눠 놓은 똥입니다. 그런데 사 남매가 전부 조그마해요. 글쎄, 젖먹이는 젖먹이대로 큰 애가 업고 있고요. 그 다음 애가 두 돌 지났고요. 그런 거 같아요. 한 서너 살 먹었고 너덧 살 먹었고, 큰애라는 게 그저 한 여덟 살이나 아홉 살이나 그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당년에 그렇게 낳아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사 남매의 사는 거를 봤고 사 남매가 누어 놓은 똥을 봤습니다마는 내가 나무에 기대서 비를 맞아 가면서 그 똥을 얼마나 지켜봤는지 모릅니다. 왜 지켜봤느냐? 그, 아시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하, 내 배 속이든 네 배 속이든 다 저런 것이 운행을 안 해 준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도 없는데 저걸 더럽다고 하나. 저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기다랗고 넙적하게 된 모습도 있고, 네모진 모습이 있고 둥근 모습이 있고, 진드기 같이 생긴 모습이 있고 천차만별로 돼 있는 그 모습들이 지금 내 배 속에도 있겠다. 그런데 그거를 더럽다고 못 들어가?' 했죠.

그래서 새새 틈틈이 딛고선 들어가니까 아, 문전의 질그릇에다가요, 질동이 깨진 데다가 오줌을 잔뜩 눠 놓고는 그거를 치우질 않아 가지곤 냄새가 그냥 진동을 했죠. 그래서 또 오줌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줌통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오줌 냄새를 맡다가 오줌 냄새가 배어 가지고 그 썩은 냄새도 안 나요, 이제 그때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금 나도 오줌통을 가지고 있고, 오줌통이다 하면은 벌써 그 콩팥이 걸러 주는 사이에 오줌통도 거기 끼어서 달려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다면은 거기에 방광이다 콩팥이다 하는 것이 걸러 주는 무수한 줄이 거기 매달려 있죠. 그 줄이 서너 개, 너덧 개만 망가지면 피를 걸러야만 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런데 그 운행을 해 주는 데 말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모습들이 의식적으로 그걸 다 운행을 해 줘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은 그건 콩팥 공장의 직원입니다.

그런데 모두 위에서 정맥 동맥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심장이니 간장이니 모두를 동원해서 움죽거리면서 우리가 음식 먹는 거를 즙을 내서 또 사방으로 보내고선 직장으로 내려보내는 그 작업들을 하는데 아주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속을 좀 더 보실 수 있다면 그렇게 대단한 공장 구경도 좀 하시고요. 하하하. 그 정말 직장으로 내려보내는 그 작업과 콩팥에서 걸러 주는 작업, 그 모든 것을 그리로 집중되게 해서 액즙을 갖다가 분배하는 공장, 이런 공장들을 모두 구경들을 하셨다면 거기는 벌써 똥통도 있고 또 뭐, 그 찌끄러기를 내보내는 데는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 내가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 이 공장에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방구리에 담긴 그 썩은 냄새가 나는 오줌을 가지고 그렇게 뭐 피할 거는 없죠. 그래 '내가 들고 다니면서 왜 냄새가 난다고 피하나.' 이러면서 그거를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비는 부슬부슬 오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깊이 하다 보니까 네 시간을 거기서 섰었나 봐요.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죠. 그래 그 주인이 와서 똥을 다 삽으로 치우고, 또 옥수수를 삶아 줘서 참 하나를 맛있게 먹고 거기를 떠났습니다. 밤이 늦었는데 어떻게 가시려느냐고 해서 "저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는 도리를 알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기 때문에 밤과 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낮에는 보고 밤에는 못 본다면 어떻게 밤낮을 가리지 않는 도리를 알겠습니까?" 하고 거기를 지나쳤죠.

그리고 본인 자신이 그거를 느끼지 않고 체험을 못 해 본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하고 아마 대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왜? 진실이 아니고 실험을 안 해 보고 체험을 안 해 봤다면 어떻게 엄숙하고도 아주 성스러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을 안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건 부처님의 뜻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지혜를 넓히고 또 사무(四無)를 알고 사유(四有)를 안다면 지금 법륜마크가 돌아가듯이 그렇게 불바퀴가 유무가 따로 없이 돌아가는 이치를 아마 증득할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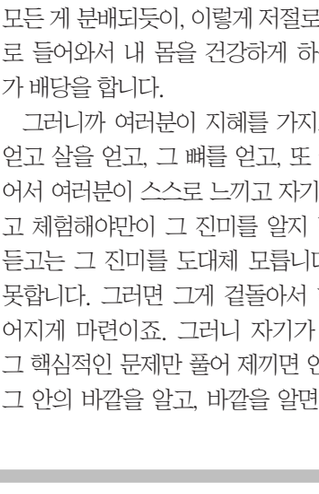
그리고 우리가 신행회를 자유 조직으로서 조직한 것도 여러 해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그대로 신행회를 조직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그 신행회를 조직하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그렇게 서로 토론을 해 가면서 회장님한테 물어서 아니 되면은 또 딴 회장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도반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빠를 겁니다. 또 그 신행회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서로 도와 가면서 살 수 있는 아마 그런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한다고 해서 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공했다는 생각도 공했으니깐요.

질문자1(남)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큰스님께서 말씀하신 지수화풍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릴까 하는데요,

☞ A18면으로 계속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신간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제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스스로 능력을 길러서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어야

☞ A17면에서 계속

저는 부산서 처음 왔는데 지금 도를 공부하든 무엇을 공부하든 간에 장소가 필요 없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 도시를 보면은 전신에 아스팔트로 다 칠해 버리고 건물은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 가지고 한없이 높이 해 놓고, 인제 그 속에서 사니까 공기 유통도 잘 안되고, 화(火)에 대해서도 햇빛이 잘 들어오지도 아니 하고, 그다음에 공기 풍(風), 이 바람은 나쁜 공기가 들어와 가지고 숨통이 막힐 것 같고, 그다음에 물이 1ppm에 수은이 일억분의 일이 들었다는데 구포 같은 데, 사상 같은 데 보면 300ppm, 400ppm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데요. 그 장소에 대해서 탁 하고 가는 인 때문에 그 과가 생긴 건 당연한 건데, 그 인과에 대해서 말입니다, 마약도 그렇거든요. 그만 순식간에 할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지마는 나중에 망치는 결과가 되는데 아무리 도시 한복판에서 그렇게 해도 근기 있게 버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근기를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는지 방법을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길기도 하네요. 허허허. 한 토막 한 토막 그냥 우리는 그대로 한 토막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길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길게 했어도 의미가 지금 그 끄트머리의 한마디만 해도 될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스스로서 능력을 길러서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라는 거죠. 그런 물질적 현상은 모두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요. 물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리듯이 또는 바다로 모이듯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마음 쓰기에 달렸어요. 지금 막 프로펠러가 돌아간다면 아는 척을 하고 알고 있는 거를 분별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진리에, 끝없이 돌아가는 그 프로펠러에 그냥 매달려서 같이 돌아가다 보면은 시간과 공간도 없이 돌아가는 그 프로펠러와 둘이 아니게 됩니다.

그럴 때에 느끼는 그 황홀한 뜻은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는 어떠한 것이든지 와라 하고 어떠한 것이 와도 겁이 나질 않고, 당당하고 참,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런 당당함이 생기고 벌써 자유자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행담을 하신 분들도 그만큼 자기 나름대로 4년 동안 공부해 가면서 그렇게 느꼈고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죠. 그러니깐 자기가 자기 병도 그렇게 고칠 수 있겠고, 또 그것뿐입니까, 어디? 무에서 유로 나오는 것, 우리 생활이 그냥 과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슨 공해가 오고 그래서 못 산다는 둥, 뭐가 이유가 많고, 걸고 늘어지는 게 많으니 어떻게 물이 아주 끊어지지 않고 돌아가는 그 물바퀴를, 또 불바퀴를 그 프로펠러 돌아가듯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 대로 순응해서 쫓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그것 쫓아가기도 바쁜데 뭐가 그렇게 이유가 많습니까? 요거 한 철, 우리 나그네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요 동안에 지금 그거 쫓아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믿고 그렇게 하실 수만 있다면 남의 걱정, 내 걱정, 뭐 이유, 뭐 이런 거 다 여러분 자체가 해결을 합니다. 걱정 없이요.

또 누구 안 계십니까? 질문을 해도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니까 그거에도 걸리지 마시고, 질문을 했어도 질문을 한 사이가 없고 들어도 들은 사이가 없이 들었듯이 그렇게 하세요.

질문자2(여) 저는 여기 한마음선원을 알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마음공부 하는 거를 『도(道)』에서 조금 읽어 봤어요, 책을요. 그런데 마음을 항상 놓으라고 그런 가르침을 읽고요, '마음을 한번 놔 보자' 하는 공부를 좀 해 봤는데, 마음을 놓고 있어 보니까 두려움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바로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었는데, 그거를 바로 직감을 했을 때에 뭔가 무서움이 자꾸 몸으로 와 닿는 걸 느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나에 대한 업이 너무 많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이 너무 많이 와요.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업이 너무 많은 겁니까?

큰스님 이거 봐요. 업이 많은 것도 붙을 자리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사는 거 모두 또 여러분의 몸 자체가 전부 고정됨이 없이 공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그런 두려움과 또 타의에서, 상대성에서 오는 것과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맡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거기 과거에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인연이 벌어지고 괴로움이 벌어지니까 거기에다 맡겨 놔야, 거기다가 입력을 시켜야 자동적으로 거기서 생산이 돼서 바깥으로 나오거든요.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거기다 놨으면 자동적으로 굴러서 다 여기 먹게끔 나올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놓지를 않고, 거기다 넣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네들 생각대로, 소견대로 그냥 방방 뛰고 뭐 죽겠다 살겠다 하고 괜히 그러는 거거든요. 아, 진짜로 믿는다면 거기다 맡겨 놓고, 거기서 하게끔 만들어야죠. 그렇게 지켜보고, 나오기를 지켜보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게 관하는 거니깐요.

여러분이 병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나와서 한번 그 어려움을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떤 용도에 따라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 일부러 찾아와서 하기보다도, 모든 사람이 보는 여기서 내가 한마디 했는데, 요다음에 자기가 체험해 보고 와서 또 그 대답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바깥으로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다면 부처님 법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속에만 넣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인도한 길잡이가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좀 점검도 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써 오신 것이, 이제 책으로 엮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이 또 미국에까지 갈 겁니다, 영어로다가요. 그래서 그 외롭고 고독하고, 자식과 또 부모 사이에 갈등과 모든 폭력과 마약 중독자가 되는 그런 문제가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씨를, 불씨를 던져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건져지겠습니까? 모든 게 당신네들 자식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와서 병이 들었다거나 또 어떠한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 한마디 얘기하고 가도 좋습니다. 질문이기 이전에 말입니다.

진실이 아니고 실험을 안 해 보고 체험을 안 해 봤다면
어떻게 엄숙하고도 아주 성스러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을 안다고 하겠습니까?

질문자3(여) 스님, 전 뇌종양을 3년째 지금 앓고 있는데, 그동안 병원 약도 써 보고 이랬지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아까 보살님의 이야길 들었는데, 아픈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때로는 간절한 마음도 있고 이렇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부처님, 불심의 마음으로 병원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천수경을 외우면서 여태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떤 강한 마음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스님 여기 나온 지 얼마나 되십니까?

질문자3(여) 얼마 안 됩니다.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큰스님 그렇죠?

질문자3(여) 예.

큰스님 한 달도 안 됐든 1년이 됐든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뇌종양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은 사람대로 이 모든 뇌, 뇌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뇌 공장이 있는데 이게 대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즉 숙명통 컴퓨터에서 나오는 대로, 그 업보라고도 볼 수 있고, 유전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자기 주인공에다가 맡겨 놓고 거기서밖에는 낫게 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실 때, 그 종양은 점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껍데기가 남아서 딱 붙는다면 그것은 일주일도 안 돼서 해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에 산호세에 '로이'라는 분을 고문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분은 잡지 출판사 전체를 이끌어 가고 있는 분인데요, 저한테 돈 천 불을 주면서, 그분 아드님이 종양인지는 잘 모르지마는 내일 수술을 하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종양이 작은 것, 큰 것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말리면, 그런 도리로써 말리면 그거는 수술을 하더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사흘 만이면 퇴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 그랬답니다. 그래 수술을 해 보니까 그렇게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이고 또 그렇게 적게 됐기 때문에, 그거를 간단히 처리를 하고 그냥 사흘 만에 퇴원을 해서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남의 손을 빌린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30%, 40%를 병원 의사님들이 하신다면, 나머지 60%를 충당해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운전수가 다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70%나 60%를 충당하려면 그만큼 자기 주인공을 자기가 믿어야지 믿지 못하면 누가 믿습니까? 어디를 믿습니까? 허공을 믿습니까, 이름을 믿습니까, 형상을 믿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도 오셨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상대도 있고 세상도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부터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재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차만별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공장장을 지배할 수 있다면, 전체의 어떠한 것이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 그런 점도 있었죠. 목이 목암이 돼서 움죽거리질 못했는데 그거 한마디 듣고 매달려 가지고서 세포가 막 움죽거리게 만들고, 다시금 되살아나서 지금은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쯤 아시고 마음 단단히 잡숫고요,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바깥으로 관세음보살, 나를 잘 해 달라고 그렇게 끄달린다면 진짜 당신 마음속의 한마음 관세음보살은 당신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질문자4(여) 부산에서 왔습니다. 우리 너석이 대학교 4학년 졸업 무렵에 아파 가지고 지금 29살인데, 오만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께 기도해도 별 성과가 없고 병명은 '정신성 홍반성 낭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작년 가을에 부산서 한마음선원에 열심히 다니는 보살님이 계셔서 우리 아이를 보는 순간 한마음선원에 가서 큰스님께 공부하면 나을 수 있다고 가자 해서 그 얘기를 듣더니만, 절에는 가자 해도 잘 안 갔는데 밤에 자다가 일어나더니마는 "어머니, 그 보살님 아시는 데, 한마음선원에 가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가 가지고 스님을 뵈었는데, 오늘 여기 또 왔습니다. 스님을 뵙는 순간에 얼굴이 화끈하게 뭔가 닿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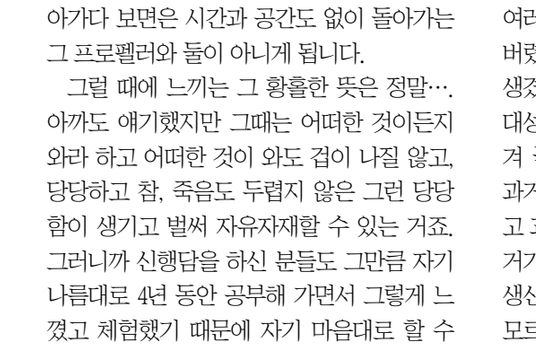
큰스님께서 "무즙을 해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무즙을 100일을 해 먹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 효과가 없고, 병원에서는 곧 죽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님. 그래서 애가 너무나도 아깝고, 너무 착실해서 보내기는 너무 아까워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큰스님, 천도식을 한번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큰스님 천도식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천도식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 도리를 잘 아셔야만 합니다. 거기 부산이면 부산의 총무나 회장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잘 여쭤 보시고 토론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확고부동하게 얘기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천도를 하기 이전에, 돈을 버리기 이전에, 또 음식을 차려 놓고 하기 이전에 내 마음으로서 이 우주의 떡을 먹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습니까? 우주의 떡은 다 먹이고도 남음이 있으니 내 자식뿐이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가 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내려가서 우리 총무 스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이날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가지고 오는 도중에 또 외국이나 여기뿐만 아니라 이번에 L.A. 가서도 모든 그 어려움들을 자기네들이 생각 한번 잘해서 다 타개가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남들을 위해서 또 좀 한번 던져 보시는 마음과 체험해보시는 마음, 그런 보살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90년 5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佛事의 모든 것
대원불교 사랑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사랑을 성원해 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사랑에서는 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및 불교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거한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73-3722. 010-7171-2636
010-4037-3722
팩스 031)573-3723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약 먹고 병원 다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 내 몸은 스스로 회복한다. ♡
깨끗하게 비우고, 건강하게 채우는 "인체정화 건강 프로그램"

애니원 디플러스 건강기능식품
애니원 차



『24가지 초본식물 발효 숙성차』
『몸에 쌓인 각종 노폐물과 독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장』
장운동 활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는
파비스 애니원 차 & 디플러스
세계로 (미국, 일본, 태국 등) 수출하는
30년 효소 전문기업 파비스 애니원 효소(효심 센터)
효소제품 문의 : 010-4131-4283(상현화 보살)
NAVER 애니자임 정연 검색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 불자 세상보기 |

부처님오신날과 부모님 은혜



법현 스님
열린선원장

중학생되며 법회에 다닌 나는
부모님께 절에 오길 권유했다

어느 부처님오신날 아버지는
취흥에 저녁 무렵 절에 왔다
"절 오라" 아들 당부 잊지않고

출가 후 내 속가제자된 어머니
11년간 빠짐없이 강의 개근 중
그 은혜, 가슴 한켠이 뻐근하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입사원서를 내고 면접시험장에 간 청년에게 그 회사의 대표가 물었다. "어머니 홀로 계신다고요?" "네, 홀로 계십니다."

대표가 재차 물었다. "경제 형편은 좋은가요?"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남의 집 삯빨래를 해서 저희를 키웠습니다."

그러자 대표는 청년에게 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린 적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며 어머니의 손을 잡아보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다. 저녁에 집에 간 청년은 나뭇등걸 같은 어머니 손을 잡다가 터뜨린 울음을 그치지 못해 벌겋게 된 눈을 해서 그 대표를 다음날 만났다. 마음을 살핀 대표는 청년을 입사시켰다.

창밖으로 날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새를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다.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네요." "아, 그래. 까치구나, 까치야."

조금 있다가 아버지는 다시 아들에게 새의 이름을 물었다. "까치라고요." "그래, 까치지. 그렇고 말고." 또 조금 있다가 새의 이름을 물었다. "까치라고 했잖아요?"

높아진 목소리를 멀리서 들은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을 가져와 펼쳐주었다. 거기에는 아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무렵 아버지에게 새의 이름을 물었던 이야기가 적혀있었다. 아들이 참새의 이름을 서른 번이나 물어보는 것이 참으로 대견해서 또박 또박 서른 번 이름을 불러서 알게 해주었다. "참새"라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지나는 산 길목에 '불교학생법회' 안내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명법사라는 작은 절에 가서 처음으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다. 그런데 왠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나의 믿음은 날로 늘어나고 청년회 회장, 어린이 법회 교사, 학생회 지도법사 등을 맡으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안색은 썩 좋아 보이지 않았다. 가끔 절에 한 번 오시라는 권유에도 빙그레 웃으면서 "아드님이나 잘 다니셔"라고 하셨다.

그러던 어느 부처님오신날 사찰에 오시라고 말씀드렸다. 그 때는 '화전놀이', '관등놀이'를 하던 시절이었다. 어른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휴가'로서의 의미를 갖는 날이 '초파일'이었다. 벗님들과 약주도 드시고 노래도 부르고 노시다가 아들 생각이 났던지 해질 무렵에서야 절에 찾아오셨다.

취흥이 도도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아버지를 부축해서 도량 곳곳과 법당을 소개하고 스님들께 소개드렸다. 스님들도 참으로 기뻐하셨고 나도 속으로 정말이지 기뻤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처님오신날 약주에 취해서 비틀비틀 오셨던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취기에도 아들의 당부를 기억하고 찾아오셨다는 것이 정말 좋았다.

비틀거리면서 찾아오셨던 아버지는 저 세상으로 가시고 나는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었다. 부모를 모실 수 있고 형제를 돌볼 수도 있다고 해서 태고종에 출가했는데 복덕을 쌓지 못해서 그런지 모시기만 하고 있을 뿐이다.

어머니는 내가 문을 연 열린선원 불교아카데미에 1기로 등록해서 수료한 뒤 3귀의 · 5계 수계를 받아 '여도(如度)'라는 법명을 받아 나의 속가제자가 되셨다. 그 뒤로도 계속 개근하여 이번에 25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만 11년 동안 강의를 빼 먹은 일이 없다. 숨 살피는 선(禪)도 하고 말씀을 주제로 참구하는 화두참선도 하신다. 그런데 근래에는 강의 날짜를 잊기도 하고 몸이 좋지 않아서 빠지기도 하신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마음이 아프다.



空으로 본 세상만사
정상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자동차 유리는 왜 깨졌을까

지난해 2학기, 계룡산에 자리한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로 오게 되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자동차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연구소 들어가기 전 이미 춘천에 위치한 대학교의 2학기 강의를 받아놓은 터라 연구소 업무가 시작되면서 1주일에 한 번 계룡산을 떠나 춘천까지 가야했다. 그럼에도 시간이 없어 차일피일 미루다가 우연히 디자인도, 색상도, 가격도 마음에 드는 평소 원하던 차량을 구입할 수 있었다. 어찌나 마음에 드는지 닦고 또 닦고 애지중지 몰고 다녔다.

하루는 세차를 하고 상쾌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붙잡고 달려가는데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작은 돌조각이 튀어와 앞 유리를 때렸고, 너무 놀라 차를 세우고 가만히 보니 엄지손톱 크기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모양 같은 흠집이 생겨버렸다. 이내 놀란 마음은 사라지고 분노가 끓어올랐다. 우째 이런 일이! 하지만 그런 내 마음과는 아랑곳없이 며칠 지나지 않아 점점 유리에 금이 커져서 결국 적지 않은 돈을 내고 갈아야만 했다. 차량 구입 후 약 2주 만의 일이었다. 그러다보니 안타까운 마음에 온갖 '가정법'이 다 떠올랐다.

만약 내가 그때 단 1초만 그 지점을 늦게 지나갔거나, 혹은 빨리 지나갔더라면 돌의 속력이 유리를 깰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차장에서 참 친절했던 세차장 직원이 건네준 커피를 마시지 말고 바로 출발했어야했다. 아니다. 내가 그날 운전을 한 건 오랜만에 연락을 준 지인과의 약속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것만도 원인은 아닌 듯하다. 내가 만약 그날 집에서 조금 일찍 혹은 조금 늦게 출발했더라도 그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터.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다보니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최고의 가정은, 차를 사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려면 2학기 강의를 받지 말았어야 했고, 연구소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고, 불교를 전공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선택했어야 했고…. 결국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터였다!

이렇게 아무 소용없는 가정을 쓴 웃음과 함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슬러 올라가보니 차 유리가 깨지는 그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한 원인이란 게 단순히 차와 돌조각의 만남만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그릴 수 없는 수많은 원인과 원인들이 얽히고설켜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 많은 원인들 중 어느 것 하나만 어긋나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생기고 마니 우리가 살아가며 맺게 되는 인연들은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일체지자(一切智者)께서만 아실 수많은 생의 셀 수 없는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들어 나타난 결과물이다.

당장 나 하나의 존재가 이생에 태어남도 부모님 2분, 조부 4분, 증조부 8분 등 10대조까지만 올라가도 2^{10}=1024분의 인연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결과다. 그러니 그렇게 태어나 어떤 누군가와 인연을 맺게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확률이다.

흔히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게 되는 것은 바다 거북이가 숨 쉬러 바다 위에 고개를 내밀었을 때 때마침 거길 떠다니던 구멍 난 판자에 목이 끼이는 것과 같이 만나기 어려운 인연이라 하였다.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그분의 가르침과 인연 맺게 됨을 소중히, 그리고 기쁘게 되새겨본다.

社說

'즐거운 보시' 불교 살린다

2013년 통계청이 조사한 기부참여자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43.5%로 미참여자의 28.2%보다 15% 이상 높았다. 기부와 행복은 서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빨간 코의 날'이란 기부의 날을 지정해 마치 축제처럼 온 국민이 이 날을 즐기며 모금운동을 벌인다. 모든 가정과 학교, 심지어 거리에서도 코를 붉게 만든 재미있는 행사가 펼쳐지고 사람들은 SNS 등을 통해 이를 유쾌하게 전한다. 이날 빨간 코를 판매한 수익금은 약 2000억원에 달하며 영국 정부는 이 수익금을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한다고 한다.

2015년 불교미래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사찰 신도 보시 및 기부인식 조사'에 따르면 사찰 보시금의 형태는 불전함 보시와 인등기도비, 각종 재 기도비 및 신도회비 등으로 구성돼있었다. 신도 92.4%가 사찰에 보시금을 내지만 대부분이 기도비였던 것이다.

한번 되돌아 생각해보자. 자신을 위해 기도비를 낸 뒤, 즐거웠던 기억이 있는가?

최근 불교계는 사회복지기관과 공익법인을 중심으로 기부자들이 즐길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찰에서는 단순한 보시문화에 머무르고 있다.

이제는 사찰도 바뀌어야 한다. 불자 수는 이미 감소하고 있고, 지역사찰에서는 보시금 감소로 재정이 바닥이라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이에 따라 사찰의 사회적 역량도 감소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교가 살기 위해서는 불교가치를 알리기 위한 목적사업을 신도들에게 공지하고, 이에 대한 동참을 이끌기 위한 톡톡튀는 아이디어가 담긴 보시캠페인이 진행돼야 한다.

변화의 동국대를 기대하며

동국대가 83년 만에 교훈을 바꿨다. 지난 5월 1일 열린 개교 111주년 기념식에서 동국대는 새로운 교훈인 '지혜(智慧) · 자비(慈悲) · 정진(精進)'을 공식 선포했다.

본래 교훈은 자리이타를 상징하는 '섭심(攝心) · 신실(信實) · 자애(慈愛) · 도세(度世)'였지만 1934년에 제정된 기존 교훈이 다소 젊은 세대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많았다. 이에 교훈재정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설문조사 등을 진행해 새 교훈을 제정했다.

지혜와 자비, 정진은 모두 불교의 실천행인 육바라밀에 해당된다. 어떻게 보면 지성의 전당인 대학이 추구해야 하는 길이기도 하다.

또한 동국대 의료원은 '의료원 개혁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을 총괄하는 개혁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이 맡았으며,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개혁추진단장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일산병원, 일산한방병원,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개혁을 주도하게 된다.

추진단의 "의료원 발전을 위해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불의와 결탁하지 않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매진하겠다"는 다짐에서는 동국대 발전을 위한 결연함이 엿보인다.

지금은 변화 · 변혁의 시대다. 4차 산업혁명으로 비롯된 변화는 이미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전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도전이 없으면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다. 도전만이 변화를 가져온다.

83년만에 교훈을 바꾸고, 의료원 개혁을 위해 다시 뛰는 동국대의 도전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해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1644 - 9108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프리토킹 프로그램

각설하고 覺說何故!



• 주제별 대본없이 진행하는
프리토킹 강사~진귀장자

공개강좌 일정표

1차 공개강좌	주 제 : 사 성 제	|| 일시 : 2017년 4월 16일 일요일 오후 2시
2차 공개강좌	주 제 : 법화사상	|| 일시 : 2017년 5월 21일 일요일 오후 2시
3차 공개강좌	주 제 : 반야사상	|| 일시 : 2017년 6월 18일 일요일 오후 3시
4차 공개강좌	주 제 : 유식사상	|| 일시 : 2017년 7월 16일 일요일 오후 3시
5차 공개강좌	주 제 : 화쟁사상	|| 일시 : 2017년 8월 20일 일요일 오후 3시
6차 공개강좌	주 제 : 화엄사상	|| 일시 : 2017년 9월 17일 일요일 오후 3시

※ BTN 방송안내 : 본방 :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밤 11시, 재방 :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밤 11시

※ 강좌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가능합니다. • 문 의 : 1899-9532

NAVER 깨달음산문 검색

깨달음 山門

현대인에 출세간 정신 전하는 출가 포교사



2000년대 초, 프랑스 보르도 근교의 매화 마을을 방문한 뒤 단기출가 학교를 구상하게 됐다고 설명하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리더에게 聽하다 **정념스님**(오대산 월정사 주지)



월정사 단기출가 학교서 삭발 의식을 거행중인 정념 스님.

'HIT브랜드 월정사 출가학교'
2000년 '플럼빌리지' 방문 후 결심
2004년 주지 취임 후 첫 개원
13년간 참가자 3천명 넘어서
이중 정식 출가자만 150명 정도

출가는 스스로 해방되는 길
자기자신과 만나는 소중한 순간
출가자가 갖출 정신 익히는 기회
행복의 문 열기 위한 과정 목적
가치지향적 삶 추구 위한 출발

내년부터 흰머리를 깎는 출가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마침내 은퇴자에게 산문을 열기 때문이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30일 임시회의를 열고 51~65세의 '은퇴출가'를 받아들이는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늦깎이 발심자(發心者)도 조계종으로 출가가 가능해졌다.

조계종이 고심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출가자 급감에 따른 사찰 운영인력 부족 해소를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오랜 논란 끝에 도입된 은퇴출가제도인 만큼 기존 출가자와는 자격 및 운영 규정이 확연히 다르다. 현행 종단법은 출가 연령을 13~50세로 정하고 있으나, 은퇴출가제도는 사회 각 분야서 15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51~65세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반영하듯 나이 든 분들이 나이제한 및 신체적 어려움으로 기존 출가학교에 동참이 어려운 고령자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인 '제2기 월정사 행복한 황혼기 나도출가학교'는 두 번째인데도 호응이 크다. 실제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7박 8일간 진행된 황혼기 출가학교에는 30명 정도가 참가했다. 연령대를 비춰봤을때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아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전환점을 찾는데 도움이 됐고, 진정한 나를 만나는 귀중한 체험을 해봤다는 긍정적 말들이 참가자들에게 많이 쏟아졌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오대산 월정사 출가학교장 정념 스님(월정사 주지)에게 '출가'와 '문화포교'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들어봤다. 스님은 지난해 〈다녀왔습니다〉란 제목으로 단기출가학교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는 등 출가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는 출가 포교사로 정평이 나 있어서다.

월정사=김주일 기자

▲13년 전 월정사에 단기출가학교를 만드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2000년대 초, 프랑스 보르도 근교의 매화 마을(플럼빌리지)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 출신의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 틱낫한 스님이 운영하는 명상공동체 '플럼 빌리지'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죠. 그곳에 가보니 인종도, 종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밥을 먹고, 걷고, 토론하고, 좌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하나같이 미소가 가득했죠.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려한 산과 울창한 숲, 1700년의 역사 등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한국 불교계에선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반성했죠. 과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 세상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기 위해 나는 무슨 노력을 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단기출가학교를 구상하게 된 계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출가학교를 연 것은 언제였으며, 그간의 성과는 어떠했습니까?

-2004년,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 월정사 주지로 취임하자마자 학교를 열었습니다. 1개월 과정의 '출가학교'였죠. 대다수 사찰이 1주일 이내의 템플스테이 정도 운영하고 있을때 였는데, 한달이란 짧지 않은 시간동안 한다고 하니 호기심이 많았나 봐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경쟁률이 보통 5대 1 정도 이상이었죠. 욕심에 쫓겨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비우고 낮추기 위해' 이곳을 찾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출가학교를 다녀간 사람은 3000명이 넘습니다. 이중 정식으로 출가한 사람만도 150명이 넘으니 성과는 있던 셈입니다.

▲출가학교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참가했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지요?

-출가학교에 온 분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 재산, 지식, 학력을 모두 내려놓고 수행합니다. 시장부터 변호사, 교수, 의사, 시인, 피아니스트 등 직업도 다양하죠. 밖으로만 달려가려 할 뿐, 내 안의 목소리를 들여다보지 못해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들이었어요. 출가학교에선 한 달간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새벽 예불과 108배, 참선을 합니다. 책에도 소개했지만 참가자들은 대부분 육체는 고되지만 정신은 더 맑아진다고 고백하더군요. 사실 일반인들에겐 고된 일정입니다. 출가학교 출신의 어느 한 분은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한 사람을 지독히도 미워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인생이 너무 하찮아 부끄러웠고,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며 절을 했는데, 어느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미안하다, 너무 미워해서. 너도 외로웠겠구나' 고 말입니다. 아마도 그동안 밖으로만 향하느라 소홀한 자아와 마주한 소중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단기출가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셨다면요?

-처음 단기출가학교를 시작하려 할때만 해도 부정적인 의견이 사실 많았습니다. 저 역시 추진하면서도 솔직히 이 힘든 과정에 과연 얼마나 올까 걱정도 했지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갖가지 사연을 간직한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고 회가 거듭될수록 경쟁률도 높아져 지금 이 시대가 이 같은 수행에 얼마나 목말라하고 있었는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 미얀마 등 남방불교 국가에서는 단기출가체험이 우리가 군복무하듯 일생에 한 번은 하는 것이 불문율로 돼있지만 한국 불교에선 없었거든요.

B2면에 계속

INSIDE

B3 기획연재 김성우의 '염불각자 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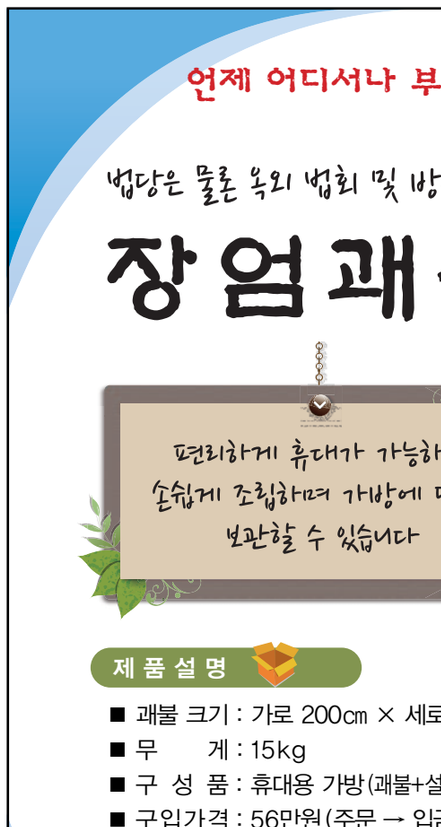
B5 문화 윤양호 작가 33번째 개인전

B6 기획연재 고원영의 '저 절로 가는 길'

한계 봉착한 출가학교, 계층 세분화로 변신 성공

정념 스님은?

1980년 만화 희찬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오대산 상원사 주지와 나눔의 집 이사,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호법분과위원장, 강원불교 연합회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월정사 주지를 맡고 있으며, 2015년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을 역임했다. 조선왕조실록 환수 등 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을 벌여온 정념 스님은 또한 2012년에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 포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강원도종교평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정념 스님' B1면에서 계속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참가자들과 함께 포행을 하고 있는 단기출가학교장 정념 스님이 월정사의 역사와 오대산의 유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

▲출가학교 참가자들이 주로 참가 후 느낀 감정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지만, 정작 행복해지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 출가학교를 선택할 때에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처음 출가해 수행자 생활을 하면서도 기존의 삶과 달라 힘겨웠고, 그만두고 싶은 심정도 많았겠죠. 하지만 출가학교의 30일 수행 생활은 분명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월정사 출가학교에 참가한 이들의 이구동성입니다. 행복은 힘써 가꾸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행복의 문을 열어내기 위한 과정, 그것이 바로 출가학교입니다.

▲출가를 어렵고 힘든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출가자 수가 급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스님이 생각하시는 출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출가는 스스로에게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출가는 세속적 욕망의 달콤함에서 벗어나 보다 가치 지향적이며 자유로운 삶의 길을 추구하고자 하는 출발입니다. 또한 대승적으로 보면 생사를 초월한 대자유의 길을 탐구하는 의미있는 삶의 길이기도 합니다. 갈구한 지혜를 통해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생겨 나고 그 마음으로 세상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단기출가학교의 출가 정신도 같습니다. 이곳서 출가자가 나아갈 정신을 배우고 가슴에 새겨 삶을 더 의미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가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오대산 월정사 단기출가학교는 일반인이 삭발염의 하고 행자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 불교계 안팎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국불교의 큰 문제로 대두된 출가자 수 감소라는 소나기는 월정사 단기출가학교도 비켜가지 못했는데요.

-맞습니다. 13년을 넘어서면서 시대적 변화, 젊은 세대에 공감 받을 수 있는 변화를 요구할 수 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혔죠. 물론 그동안 이런 환경을 타개하고자 전통적 행자생활 과정을 축약한 몸으로 하는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서 감성 체험적 요소와 힐링 문화에 부합된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정체성에 대한 고민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 교육을 받던 선배들이 간략화 된 출가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냈죠. 힘든 교육과정은 실제 출가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며, 졸업 후 학교에 대한 애정도 더 생기게 하는데 감성 강화교육은 오히려 단기출가학교 분위기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해 조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체험 중심 교육으로 되돌아갔지만 이제 전반적 시대의 흐름을 살펴보니 현대인들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내기도 힘들고, 이미 기존 단기출가체험 수요의 상당수를 수용했기에 더 이상 학교 인원이 늘지 않아,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말부터 월정사 단기출가학교가 '출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체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기출가 이외에도 프로그램이 여성, 황혼기 등 계층·연령별로 세분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단기출가학교 새 변화 제시

시대적 흐름에 대한 한계점 이르러
감성체험 요소 도입 등 시행착오도
출가학교로 명칭 변경후 계층 나눠
황혼기, 여성 등 새 모델 큰 호응

▲출가학교에 대해 향후 새롭게 구상하시는 모델이 있으시다면요?

-정식 출가자 배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생각입니다. 6개월 정도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학습과 신심, 발심, 월력, 염불, 기초교리, 수행 등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자세히 가르칠 것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행자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불교의 붕괴현상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행자생활 유지만으로는 한계에 처했음을 수용하고,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향후 월정사가 닦아놓은 노하우로 이런 행자 교육 매뉴얼의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행자 위탁 교육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문화포교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다양한 불교문화 행사를 통해 오대산으로 많은 이들을 찾게 하시는데요. 문화 포교의 새로운 모델을 계속 제시하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오대산이라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월정사라는 전통 수행공간의 가치를 십분 활용해 자연과 소통하는 생태문화축제, 다양한 계층이 함께 하는 테마축제, 지역을 활성화 하는 지역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한강시원제를 비롯해 오대샘물 합수식, 산사음악회, 승가학인 법고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마다 오대산불교 문화축전에 준비합니다. 특히 월정사를 지역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인식시키고 불교문화자원을 관광문화자원으로 활용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힘을 보탠다는 것이 올해 오대산불교문화축전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올 축전에는 더욱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월정사의 많은 행사중에 많은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매년 5월에 열리는 '오대산 천년의 숲 선재길 걷기 대회'인데요. 상시 20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상원사까지 걷는다고 들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현대 문명에 숲은 희망을 던져줍니다. 걷기 대회는 천년 숲길을 걸으며 우리 사회의 희망인 숲이 주는 지혜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자리이지요. 부처님께서도 숲길에서 나시고 숲길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불교에서의 길은 수행의 시작이자 완성을 의미하며, 숲은 생명이자 정신적 쉼터역할을 합니다. 특히 오대산 천년 숲길은 가장 한국적인 숲길로서 인공적인 포장을 거부한 생명의 길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간 전나무 숲길과 복원된 옛길을 걸으면서 가장 한국적인 숲의 향기를 맡으며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 있어 스트레스에 찌든 도시민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갈 수 있기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 같습니다.

▲선승 출신이시지만 항상 산중사찰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걸로 압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지금까지 한국불교는 너무 산중(山中) 중심이어서 승속(僧俗)이 분리되는 결과를 낳았어요.

멀리 있는 물로는 가까운 곳의 불을 끌 수 없듯이 아무리 좋은 묘법(妙法)도 멀리 있으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중생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현대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산중의 정적인 수행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난 2004년 주지 부임 이후 산사영화제, 천년의 숲길 걷기대회, 산사음악회, 월정사 주지배 평창군 족구대회와 축구대회, 평창군민 노래자랑대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등 많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제 평창 올림픽도 1년이 안남았을 정도로 코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화의 중심 도량인 월정사가 불교 포교를 위해 해야 될 일도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시는게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오대산 일원에 강원 지역을 대표하는 친환경적 수행·문화·건강 타운을 추진중입니다. 사람이 가장 살기 좋다는 해발 700m 고지의 월정사는 전나무 숲길 등 풍성한 자연환경과 적멸보궁 및 다수의 산내 암자 등 수많은 불교문화를 간직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곳 오대산은 템플스테이뿐 아니라 명상, 수행, 치유를 위한 최적의 요건을 두루 갖춘 최고의 명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가장 큰 숙원 사업은 월정사 사하촌에 조성되는 '웰빙 명상수행단지'입니다. 자연 속에서 평온히 지내면서 사색과 명상을 통해 마음공부를 하기 위한 또하나의 수행공간이죠. 예산문제로 지연되고 있는데 가능한한 평창동계올림픽 전에 완공해 세계인들이 한국적 불교 힐링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불교 문화가 세계 속으로 전파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어디든 지극하고 여법하게 깊은 신심으로 다하겠습니다

바라밀 예술단



바라밀예술단은 큰스님들의 행사를 더욱 장엄하고
여법하게 봉행하는데 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바라밀예술단 단장 지우 스님 -

회심곡, 영산대재, 산사음악회, 예수재, 천도재,
위령재 및 봉안위패, 점안식 등 각종 불교행사
바라작법무, 나비작법무, 천상무춤, 북춤,
살풀이춤, 극락무춤, 지전무 등 모든 의식









행사문의 010-3597-1515 유튜브에서 '지우스님'을 검색하세요.

농협 010-3597-1515-09 (예금주 : 반야정사)

아미타불만 염하는 전수염불법 전하다

〈專修〉



김성우의 **念佛覺者 列傳**

⑩ 정토종 제2조 선도대사

20세에 〈관무량수경〉보고 발심
천리길 찾아가 도작 선사 친견
30년 잠자지 않고 용맹정진
세수 69세에 스스로 정토 성불

"선도화상은 아미타불의 화신이시니, 대신통과 대지혜가 있으시다… 그분께서 보여주신 전수(專修)염불의 이익은 다함이 없다. '전수란 몸으로는 오로지 아미타불을 예배하고, 입으로는 오로지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며, 마음으로는 오로지 아미타불을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한다면 서방에 왕생함에 있어서, 만 명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다. -〈증광문초〉"



– 선도 대사 진영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지난 5월 1일 새벽 4시, 중국 항저우 동천목산(東天目山) 미타촌의 노인 염불당에서 84세의 노 보살이 선 채로 왕생(立亡)하는 이적이 나타났다. 이 보살은 이날 임종을 미리 대중에게 알리고 염불하던 중 돌연 "서방삼성(西方三聖: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께서 오셨다!"며 "나는 서서 왕생할 것이다"라고 예고한 뒤 15분간 염불한 후 서서 극락세계로 갔다. 이 보살은 동천목산에서 수행한지 5년 동안 이미 두 차례 아미타부처님을 친견하고, 이 말법시대에 사람들이 정토에 대한 믿음을 갖게끔 이런 불사를 보인 것이다.

범부도 선 채로 왕생하는 염불법

오늘날, 고승들도 좌선하며 입적하기 어려운 이 말법시대에 평범한 범부 보살이 선 채로 입적하는 정진력을 보인 것은, 염불행자는 물론 모든 불자들에게 환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선종의 견성한 도인들도 하기 힘든 좌탈입망(坐脫立亡)을 정토를 닦는 평범한 노인들이 쉽게 해내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아미타불의 본원(本願)에 따른 자력과 타력(他力: 가피력)이 둘이 아닌 불력(佛力)수행의 오묘함에 힘입은 것이다.

위에서 인광 대사가 〈증광문초〉에서 설했듯이, 전수염불을 하는 수행자가 6도 윤회를 벗어나 극락정토에 왕생할 확률은 매우 높다.

반면, 여러 잡수(雜修)로 염불하는 이들은 왕생하기가 어렵다. 잡수란 갖가지 법문을 겸하여 닦아 그 공덕을 회향하여 왕생극락 하는 것으로, 마음이 전일(專一)하지 않은 까닭에 천 명 중에 서너 명으로 왕생한 자가 드물다. 따라서 정토경전을 수지독송하고 한결같이 전수염불하는 범부는 선종의 고승들처럼 갈 때를 미리 알고 생사에 자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범부도 생사해탈이 가능한 전수염불을 널리 설한 정토종의 대성자가 바로 선도(善導) 대사다. 훗날 직계 스승인 담란 대사와 도작 선사를 제치고 정토종 제2조로 추존된 대사는 '아미타불의 화신'이라 불릴 정도로 정토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수(隋)나라 대업(大業) 9년(613)에 탄생해 당(唐)나라 영륭(永隆) 2년(681)에 69세로 왕생한 선도 대사의 속성은 주씨(朱氏)이며, 산동성(山東省) 임치현(臨淄縣) 사람이다. 어릴 때 출가하여 삼론종의 거장인 밀주(密州)의 명승(明勝) 법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법화경〉 〈유마경〉 등의 대승경전을 깊이 연구했다.



선도대사가 염불삼매를 증득한 종남산 오진사.

도작 선사 문하에서 정토의 진수를 깨닫다

20세가 되어 구족계(具足戒)를 받은 대사는 묘개율사(妙開律師)와 함께 〈관무량수경(관경)〉을 보고서 탄식하듯 말했다.

"다른 수행법은 진부하고 궁벽하여 성취하기가 어렵고, 오직 이 관문(觀門)만이 반드시 생사를 초월한다."

〈관경〉은 수당 초기에 가장 환영받은 경전 중 하나로서, 정토종 뿐만 아니라 불교계 전체의 비상한 주목을 받았기에 이 경전을 강연하거나 독송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후 선도 대사는 도작 선사가 산서성 태원에서 정토종의 종풍을 드날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천리를 멀다 않고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다. 대사의 방문에 대해 도작 선사는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하였으니, 눈앞에 있는 저 청년이 장차 자신의 후계자가 될 것을 알아본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아미타불의 본원과 〈관경〉의 참뜻에 대해 철저하게 설해 주었다.

〈관경〉의 참뜻은 반드시 〈무량수경〉에 의거하여 해석해야만 비로소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즉 13관의 관불삼매(觀佛三昧)는 보조수행이며, 오직 믿음과 발원으로 칭명하는 염불삼매 만이 모든 삼매 가운데 으뜸이라는 것이다. 선도 대사는 도작 선사의 지도하에 모든 의심이 얼음 녹듯이 사라졌다.

〈관경〉에 귀의하여 염불삼매 증득

이후 선도 대사의 염불정진에 대해서는 〈신수왕생전(新修往生傳)〉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중에 종남산 오진사(悟眞寺)에 은거하셨는데, 몇 해 지나지 않아 피로를 잊고 관상(觀想)을 하여 이미 매우 깊고 미묘한 성취를 이루셨다. 문득 삼매 가운데서 극락의 보배누각과 연못과 금으로 된 좌대들이 뚜렷하게 눈앞에 나타났다."

선도 대사는 20대의 나이에 삼매를 증득했으니, 고금의 고승들 중 대사보다 뛰어난 이는 드물었다.

염불삼매를 증득한 뒤에도 대사의 정진은 쉼이 없었다. 밤잠도 거르고 머리에 불 붙은 듯이 지극한 정성으로 염불수행에 전력을 다했다. 대사는 언제나 단정히 꿇어 앉아 정성껏 그리고 간절하게 염불을 하되 힘이 다 빠져야만 쉬었다. 법당에서 나와서는 대중과 신도들에게 법문을 설해 모두 크게 발심하도록 하여, 잠시도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었다. 그와 같이 지극한 정진을 하며 포교를 하되 무려 30년 동안이나 잠을 자지 않고 용맹정진을 한 것이다.

염불할 때마다 입에서 화신불 출현

그와 같은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대사는 마침내 염불삼매(念佛三昧)를 크게 증득하고 아미타부처님과 극락세계의 성경(聖境)을 수차례나 친견하며 천안(天眼)까지 열려서, 사람들이 왕생하고 못할 것까지도 알게 되었다.

대사는 또한 불가사의한 신력(神力)도 드러냈다. 밤으로 염불을 하게 되면 밝은 광명이 입으로부터 나와서 온 방안을 밝게 비췄다. 당나라 고종(高宗) 황제까지 그러한 사실을 전해 듣고는 그 절 이름을 광명사(光明寺)라고 지어 줄 정도였다.

그리고 대사가 부처님 명호(名號)를 부를 때마다 입에서는 화신불(化身佛)이 출현했다. 이는 오직 숙세(宿世) 선근(善根)이 깊고 신심이 지극한 자에 한해서만 보였다. 제자들 중에 대사의 입에서 나오는 부처님을 친견한 자가 적지 않았다.

전수염불법, 불상이 방광으로 증명

선도 대사가 서경사(西京寺)라는 절에 있을 때의 일이다. 하루는 금강 법사와 염불의 우열을 겨룬 적이 있었다. 이때 대사는 이렇게 발원했다.

"세존께서는 하루나 이레, 한 번이나 열 번 아미타불을 염불하면 반드시 정토에 왕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생을 속이는 게 아니라 진실이라면 곧 이 법당 안의 두 불상이 광명을 놓을 것입니다. 만약 이 염불법이 헛되어 정토에 왕생하지 못하고 중생을 속이고 현혹케 하는 것이라면 선도는 이 자리에서 곧바로 지옥으로 떨어져 오랜 시간 고통을 받으며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의장(如意杖)으로 법당 안의 불상을 가리키자 불상이 모두 광명을 놓았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선도 대사의 명성은 더욱 세상에 알려져 마침내 '아미타불의 화현(化現)'이라는 칭송까지 듣게 되었다. 대사의 교화를 입어 염불수행을 하는 이들도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늘어났다. 그 중에는 크게 발심하여 신명(身命)을 바쳐 사신(捨身)공양까지 올리면서 왕생극락을 발원한 이들이 무려 백여 명이나 나왔다.

육신을 부처님께 공양하며 왕생하다

서기 681년 대사의 세수 69세에 이르자, 이제는 교화를 거의 다 마쳤으며 연세도 많아지고 하여 곧 열반할 때가 되었다.

하루는 대중을 모아 놓고는 절 앞의 버드나무에 올라가서 서쪽을 향해 예배드리고는 합장하며 발원하였다.

"이 몸 바쳐 석가모니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겠사오며, 이 목숨 바쳐 아미타부처님 전에 귀의코저 하옵나니,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옵서는 저의 뜻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원컨대 이 인연 공덕으로 아미타부처님께옵서 대자대비로 이 몸을 섭수(攝受)하시어 극락세계 세존님 전으로 접인(接引)하옵소서."

말씀을 마친 대사께서 '아미타불'을 열 번 지성껏 부르시고(十念) 나서 그 몸을 던져 명(命)을 마치시니, 그 순간 공중에서는 아름다운 천악(天樂)이 울려퍼지고 몸에서는 밝은 광명이 찬란하게 빛나며 그윽한 향취(香臭)가 온 도량에 가득 풍겼다.

극락정토에 왕생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아미타불'만을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선도 대사의 전수염불법은 날마다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는 중생에게 커다란 희망이었다. 대사께서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토에 왕생했으면 그곳에서 혼자 행복을 누리고 즐기는 대신 다시 사바세계로 되돌아와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는 회향발원심(廻向發願心)을 강조했다. 회향발원심이야말로 동체대비심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생에 자력으로 생사해탈할 자신이 없는 구도자라면 반드시 정토법문을 공부해서, 업을 지닌 채 윤회를 벗어나 극락정토의 보살 대중으로서 성불공부를 지어가는 기연을 맺으시길 발원한다. 나무아미타불!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5.3~2017.5.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깨달음의재발견	우오가와유지	(주)조계종출판사
2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3	너는이미기적이다	틱낫한/이현주	불광출판사
4	아무도너를묶지않았다	월호	쌤앤파커스
5	사는게내맘같지않을때힘이되는말	범수스님	담앤북스
6	우리가 사랑할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일초스님외	민족사
7	위대한스승청화큰스님	유철주	상상출판
8	평생걱정없이사는법	페이융	유노북스
9	야단법석(2)	법륜	정토
10	길과꽃-도법스님1966-끝나지않는생명의순례	김왕근	불광출판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 그것이 좋은 삶"

물흐르고 꽃은 피네

글 금강스님 | 불광 펴냄 | 1만 6천원



우리나라 최남단 '땅끝 마을'에 가면 고즈넉한 아름다운 절이 있다. 해남 미황사이다. 주지 금강 스님 〈사진〉은 30여 년 전 퇴락한 미황사에 들어와 오늘날 성속을 망라한 수행 도량으로 우뚝 세웠다.

그래서 미황사는 금강 스님이고, 스님은 바로 미황사이다. 특히 미황사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더욱 인기다. 2005년부터 13년째 진행한 일반인 수행 프로그램 '참사람의 향기'인데, 지난 2월 100회를 돌파했다. 이 프로그램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금강 스님과의 1:1 차담이다. 그동안 스님에게서 마음 점검을 받은 이가 무려 2천여 명에 이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일대일로 마주앉아 삶의 애환을 들으며 상담을 나눈 수행자는 흔치 않다. 그래서 1년 365일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사람들의 발길이 미황사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유이다. 금강 스님의 따듯한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다.

이 책은 그 가르침의 흔적들을 모았다. 각자의 '땅끝'서 절망하는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첫 발을 내딛도록 한, 스님의 위로와 지혜 모음집이다. 금강 스님은 예로부터 승가(僧伽)의 지혜가 밖으로 흘러나와 세상을 지키는 보루가 됐다고 말한다.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법 또한 산중 스님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강 스님이 보통 사람들에게 참선을 권유하는 이유이다. 불교의 '선(禪)'이란 무엇인가. 선은 우리의 본성과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것, 스님은 이렇게 비유한다.

"미황사는 달마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지만 구름 낀 날은 볼 수 없다. 처음 미황사에 온 사람에게 사진을 보여줘도 실감하지 못한다. 산이 안 보인다고 산이 없는 것은 아닌데, 구름에 가려져 있으면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뿐이다. 선은 구름 속의 푸른 산을 보는 것이다."

우리 마음은 본래 깨끗하고 이미 고요하다. 그 마음을 구름과 같은 번뇌가 가리고 있다. 번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눈, 귀, 코, 혀, 피부, 분별의식에서 쏟아지는 욕심과 나와 내 것이라는 생각서 오는 갖가지 감정들 그리고 과거 경험들이 무의식에 저장이 되고 그 경험들이 하나의 고정된 생각이 되어 현재 의식을 방해하는 구름이 된다. 그 번뇌를 가라앉히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해 고통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선이다. 선은 산속 스님들만의 수행법도 아니요, 참을성이 수반되는 고행도 아니며, 실체가 없는 그 무엇을 좇는 것도 아니다. 선은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금강 스님은 이 길을 함께 걷는 조용한 안내자로, 길 위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풀어내는 방법을 이 책에서 제시한다.

이 책 제목 〈물 흐르고 꽃은 피네〉는 '수류화개(水流花開)', 추사 김정희가 초의 스님에게 써준 편지의 한 구절이다. '물이 흐른다'는 것은 매 순간 살아 있다는 의미이다.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과 아픈 기억이 현재의 삶을 구속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말이다. '꽃이 핀다'는 것은 시련을 이겨낸 강인함과 꽃망울을 터트리기 위한 정성스러운 마음을 이야기한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든 그 속에서 물이 흐르고 꽃을 피워낼 수 있어야 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흘러가는 동안 무심(無心)의 경지에 이르러 어느 순간 꽃이 활짝 피어난다. 마음이 고요해져야 지혜가 생겨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스님은 강조한다. 단순히 조용한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고요함이어야 하며, 그 속에서 지혜가 생겨나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글로 쉽게 풀어낸 금강 스님의 禪 이야기

"절벽서 뒤돌아서면 바로 다시 시작이다"

2005년부터 진행한 일반인 수행 프로그램 '참사람의 향기', 지난 2월로 100회 돌파

참가자 얘기 부록에 〈선물〉 제목으로 담아

저자는 말한다. 지혜를 갖춘 참 사람이 되자고 말이다. 그리고 "보리수 아래 고요하게 앉아 있는 부처님을 생각한다. 매 순간 그렇게 고요할 수 있다면 좋겠다. 고요한 마음서 지혜가 나오고, 함께 하는 자비의 마음이 나온다. 번뇌와 망상이 있으면 안개 낀 산을 보듯이 자신과 사물을 또렷이 볼 수 없다. 지혜가 없으면 자기중심적 사고로 인해 삶이 불만과 상처투성이가 되기 쉽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고요하게 앉아 있을 겨를 없이 바쁘기 때문이다. 현재를 과거와 비교하고 나와 타인을 비교하며 힘들어한다. 참사람은 누구인가. 몸과 말과 마음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부처님과 같은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조언한다.

부록 〈금강 스님의 선물(禪物)〉에는 '참사람의 향기'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선물'은 중의적인 뜻이다. 누군가에게서 받은 따듯한 선물과 잡히지 않는 '선'을 지금 당장 적용 가능한 분명한 '물성(物性)'으로서의 의미이다. 7박 8일 일정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을 돌이키는 기회가 된다. 참가자들은 스스로 그 기회를 만들고 삶의 꽃을 피우기로 결심한 이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생생하다. 한편으로 묵언, 참선, 화두, 대의단, 의심, 깨달음 등 참선의 과정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다. 체험기의 일부를 소개한다.

금강 스님의 선물(禪物)

"금강 스님이 면담 중에 "너 자신은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는데 그때는 정확히 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답을 구하기 위해 앞으로 내가 살아갈 방향을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8일 간 수행하는 동안 내 몸에 대해 감사했고, 앞으로 귀 하게 대하고 잘 데리고 살다가 자연으로, 우주로 돌려주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동안 많은 잡념으로 시간을 허무하게 낭비했지만, 이제는 한 순간 한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진다."

"금강 스님의 가르침으로 이해하기로는, 원래 온 세상이 나의 고향이고 도처가 내 집이며, 보따리 같은 것이 없어도 필요하면 언제고 살림도구가 나온다고 하셨다.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다. 얼른 화두를 챙겨 눈물을 수습했다."

"기독교인인 나에게는 모든 게 어색하고 어려웠다. 둘째 날부터는 조금 나아져서 호흡법(수식관)을 하며 지나간 나의 시간들을 되짚어보았다. 행복한 기억들, 상처가 된 기억들…. 과거로의 여행은 셋째날 오전까지 이어졌다. 넷째 날부터 날마다 듣는 금강 스님의 강의가 조금씩 와 닿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좌선하면서 마음의 구름이 조금씩 거둬지는 듯했다. 그러다 여섯째 날, 우연히 방에 들어와 갇혔다가 방문을 열어주자 휘리릭 날아가는 새를 보고 나의 마음이 그 날아가는 새와도 같다고 생각하면서 작은 깨달음을 얻었다. 호텔리어로, 괴로워도 겉으로만 웃고 있던 나, 이제는 비로소 안과 겉이 같이 웃을 수 있게 되었다."

금강 스님이 말하는 〈좋은 때를 놓치지 않고 사는 법〉

① 지루한 일상 사는 것이 곧 새롭게 사는 것

부처님의 모든 일상에 깃든 한결같은 '맑음'을 강조한 것이다. 부처님의 일상처럼 우리도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여시, 항상 '맑음'이어야 한다. '참사람의 향기'는 7박 8일 일정이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하고 참선하고 밥 먹고 포행하고 숲에 청소하고 법문 듣고 참선하고 요가하고 잔다.

아침마다, "오늘의 스케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삶이 그렇지 않은가. 매일 똑같은 삶을 어떻게 새롭게 살아내느냐가 모두가 가진 인생의 숙제이다. 그것은 곧 깨어 있음이다. 순간순간의 일상을 한결같이 사는 일이 곧 수행이다.

② 늘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라

바쁜 현대인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몸을 혹사한다. 그러나 몸과 마음은 하나이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힘들다. 단순히 몸의 건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에 대한 수행은 먼저 몸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다. 몸과 정신이 균형을 이루어야 편안하며 바른 공부를 할 수 있다. 몸을 혹사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이 몸을 통해 어떤 좋은 삶을 살 것인가를 궁리해야 한다.

③ 고요함은 몸과 마음 반복을 통해 지킨다

몸의 습관은 곧 마음의 습관으로 이어진다. 매일 아침 108배 하는 습관이나 10분간의 좌선 등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습관을 들이면 하루를 그 마음으로 살게 된다. 바쁜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이 감정과 상황에 끌려가지 않는다.

④ 지금 잘 하고 있는가? 일상서 드는 화두

참선서 화두 드는 것은 깨어 있기 위한 방법이다. 화두는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기 전, 번뇌와 명상이 생기기 전의 자리로 돌아가 자신과 문답하며 무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라는 시선서 벗어나 분별없이 평등하게 바라보면 모든 것에 자유로워진다. 삶이 괴롭고 힘들 때 현대인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정적인 방법을 쓴다. 타인을 괴롭히거나 술에 의지하거나 어떤 것에 과도하게 집착한다. 이런 행동으로 인해 결국 불행해진다. 평소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화두 수행을 하면 매 순간 일상에서 부딪치는 크고 작은 고민과 갈등을 감정으로 마주하지 않고 지긋이 바라보게 된다. 그럼으로써 미운 친구가, 거북한 상사가 부처님으로 환치되는 경이로움을 맛본다.

⑤ 사물을 볼 때 자비심의 마음으로 보라

우리는 보통 나의 것, 내 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진정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진정 나의 것인가. '나'를 벗어난 무아를 체험하면 세상을 자비심으로 바라본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밉고 싫은 마음이 고마운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다.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나와 사물과 세상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연기적 관계를 깨달으면 모든 것에 마음이 활짝 열린다.

⑥ 매 순간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만나는 사람, 바라보는 풍경 나아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 삶까지 나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이다. 일기일회(一機一會)로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새롭고, 잘해 보고 싶은 의지가 생겨난다. 그 마음이라면 언제 어떤 일이든, 어느 사람이건,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당당하게 맞을 수 있다. 인생에서 좋은 때는 없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때이자 좋은 삶이다. **김주일 기자**

원효 탄생 1400주년,

원효사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



원효, 불교사상의 벼리

-원효사상의 새로운 성찰, 인도 및 중국 불교와의 만남

한국 불교의 바깥에서 바라본 원효!

주로 한국불교의 맥락에서 연구된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인도 및 중국불교의 주요한 사상들과 원효사상을 비교 연구하여, 원효 이해의 지평과 원효사상의 외연을 확장하였다.

권오민, 이병욱, 김도공, 김성철, 배경아

신국판/무선/336쪽/15,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선禪과 현대미술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예술세계를 지향하고 있는 작가 〈윤양호의 33회 개인전〉

작품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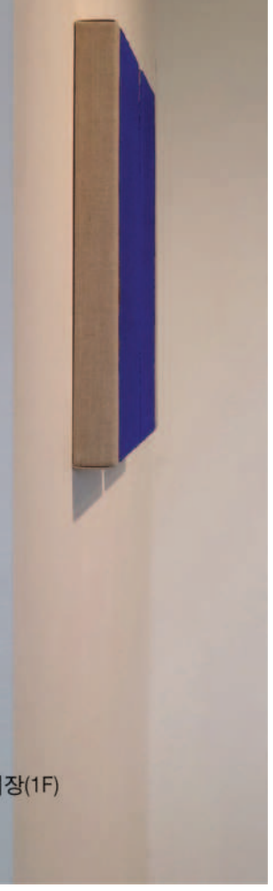
ZEN AND MONOCHROME

(선과 단색화) 출간 기념 전시



서양에서의 현대미술은 선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선禪적 지향이 뚜렷하다. 한국의 윤양호는 그 접점에 서 있는 작가 중 한 명이다. 현대미술의 흐름을 아우르면서 그만의 독창성이 어우러진 강렬하면서도 절제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B3판/양장/244쪽/50,000원/운주사



윤양호: 독일 국립 쿤스트아카데미 뒤셀도르프 미술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원광대학교 선조형예술학과 교수이다.

기간 : 2017.05.10-15

장소 : 인사아트센터 | 본전시장(1F)

Tel (02) 736-1020

푸른 원에 담긴 禪예술의 극치로…

윤양호 작가 33번째 개인전 5월 10~16일 가나인사아트센터

4월 출판 작품집 기념전
20여년 작품활동 총망라
'Zen-Geist…' 등 30여점
도형·단색으로 표현해
禪의 정신 극대화시켜

사유와 명상의 대상인 원이 깊은 파란색으로 차 있는 걸 보니 뻥 뚫린 마음 한 가운데가 푸른 바닷물로 가득 차는 것만 같다. 선(禪) 예술이 무엇인지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윤양호 작가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선의 정신이구나'를 느낄 수 있다.

선(禪)의 정신성을 현대미술에 접목시켜 새로운 개념의 예술을 펼치고 있는 윤양호 작가의 33번째 개인전 'ZEN AND MONOCHROME'이 5월 10~16일 가나인사아트센터 본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개인전은 작품집 출판을 기념하는 전시다. 윤 작가는 20여 년 동안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펼친 작품들을 정리한 작품집을 지난 4월 10일 발간했다.

그동안 작품 활동이 총 망라된 만큼 작가의 정신성과 예술성이 드러나는 작품이 대거 전시된다. 'Zen Geist-아는 것을 버리다' 등 30여점이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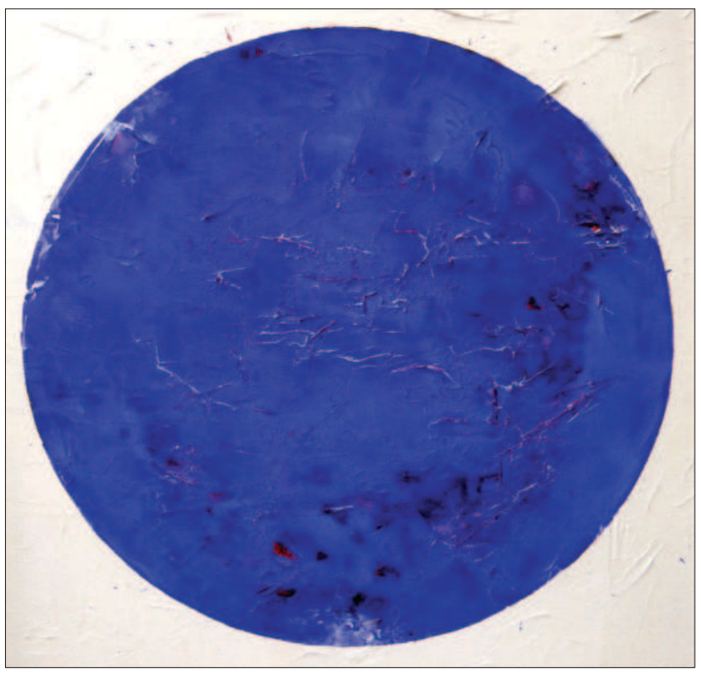
'Zen Geist-아는 것을 버리다' 시리즈는 끊임없이 정진하는 가운데 터득한 깊은 정신의 울림을 단색으로 표현하는 작품이다. 푸른 원(圓)이 작품의 주를 이루는데 살아있는 에너지, 즉 기(氣)가 그 안을 팽팽히 채우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보는 이로 하여금 종교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원 속으로 깊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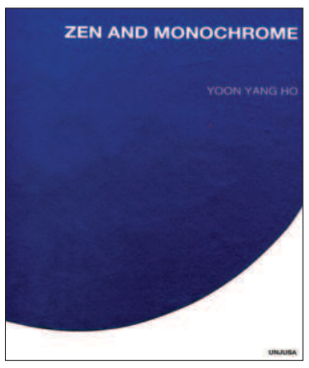
국내외 평론가들은 이러한 윤 작가의 작품에 대해 '한편의 수행과 같다'는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독일의 랄프 가블릭 평론가는 "윤양호 작가는 마치 수행자와 같다. 작품 속 도형과 색채를 통해 최고의 정신성을 보여준다"며 "나아가 예술과 삶의 가치가 동행하는 새 모습의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평가했다.

원로 박래경 평론가는 "윤양호 작가가 선보이는 것은 바로 절대형태로서 원(圓)에 대한 모색이다. 사유와 명상의 대상이 돼 왔던 원을 시각적 언어의 기본 형태로서 극대화시킨 작품들"이라면서 "압도적인 크기의 원, 청색 일변도의 강렬한 단일 색채감을 각인시키는 일련의 작품들은 정신적으로나 시각, 지각상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킨다"고 해석했다.

윤양호 작가는 1996년 독일 국립 쿤스트아카데미 뒤셀도르프 미술대학에 입학해 동대학 아카데미브리프(석사) 및 마이스터쉴러 학귀(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1999년 독일 쾰른에 있는 Still Bruch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열고, 2001년 독일 오덴탈시 주최 현대미술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귀국 후 2005년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선조형예술학과를 설립한 후 현재까지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현대미술, 선에게 길을 묻다〉〈현대예술 속의 불교〉(공저)가 있다.


Zen-Geist-아는 것을 버리다, mixed media on canvas, 162×130cm, 2017



윤양호 작가 작품집 〈ZEN AND MONOCHROME〉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제95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무혼'

5월 16~17일 국립극장 달오름서

동국예술기획(대표 박동국)은 해설이 있는 한국의 명인명무전 '무혼'을 5월 16~17일 국립극장 달오름에서 진행한다. 명인명무전은 한국 전통춤과 판소리 등 전통예술을 하는 예인들이 꾸미는 무대로, 1990년 처음 시작돼 조선 마지막 무동명무 故 김천흥 선생을 비롯해 판소리 명창 故 박동진 선생, 명무 故 김계화 선생, 일인창무극 故 공옥진 선생 등이 무대에 올랐다.

이번 '무혼'은 한(恨)과 설움을 춤으로써 승화한 것이다. 이매방류살풀이춤 준인간문화재 정명숙 선생 등 원로·중견 무용가가 출연하며 박동국 대표가 예술총감독 및 해설을 맡는다.

16일은 △연향무(윤송미 백향무용단장) △한량무(이문순 대구살풀이춤 이수자외 2명) △교방입춤(박성신 미텍사스주 한국국악협회 지부장) △단향무(박소정 예술나라 무용학원장) △동초수건춤(장인숙 호남살풀이춤 보존회장외 15명) 등 10개 공연이 펼쳐진다.

또 17일은 △승무(오은희 서울예술대 교수) △입춤(안춘자 관악무용협회장외 4명) △태평무(홍진희 전통공연예술문화학교 교수) △원향살풀이춤(엄옥자 인간문화재) △호남산조춤(이길주 일간문화재 외 10명) △예기무(김광숙 인간문화재) △이매방류살풀이춤(정명숙 준인간문화재 외 7명) △진도북춤(김진옥 명지대 객원교수 외 4명)이 무대에 오른다.

박아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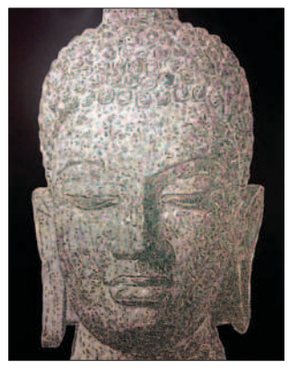
자개 파편으로 부처의 모습을

불일미술관, 김일중 작가 '믿는다는 것' 展

불일미술관은 김일중 작가의 '믿는다는 것' 展을 5월 2~14일 1관에서 연다. 이번 전시는 2017 신진작가공모전의 개막전으로 불일미술관은 올 12월까지 매월 신진작가들의 릴레이 전시를 진행한다.

김일중 작가는 '미륵반가사유상' '석굴암 본존불' '간다라 석불' 등 12점의 자개 작품을 선보인다. 빛을 투과시키는 동시에 반사시키는 이중성을 지닌 자개에 아크릴 물성을 더해 가상적이고 영적인 느낌을 극대화시켰다. 자개 파편 덩어리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모아 부처의 모습을 구현했다. 이를 통해 원본과 사본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것은 유동적으로 변화한다는 불교적 메시지를 명징하게 드러낸다.

불일미술관 측은 "허구이면서 창조물이기도 하고, 부분이면서 전체이기도 한 김 작가의 작품들은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 일체진중역여시(一切塵中亦如是)'란 화엄경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며 "작품들을 통해 인간 실존의 진정성과 무상성이란 이면을 엿보게 하는 불교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다라석불 117x90, 2016

박아름 기자

BTN 봄개편, 유익하고 'Fun'한 프로그램 대거 편성

'남전 스님의 속이 뻥 뚫리는 불교공부' 등 신규 프로그램 및 기존 프로그램 확대 편성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BTN)가 봄 개편을 맞아 더욱 재밌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BTN은 봄 개편 신규 프로그램들을 5월 15일부터 선보인다. 이번 개편에선 스님들이 직접 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더욱 쉽고도 재밌게 전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대거 편성됐다.

먼저 즉문즉설로 유명한 남전 스님이 격투스포츠 해설위원 김남훈 씨와 함께 '남전 스님의 속이 뻥 뚫리는 불교공부-우리도 부처님같이'를 진행한다. 남전 스님과 김남훈 씨의 환상케미에 더해 불교공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후문이다. BTN이 불교를 처음 접하는 초심자들에게 '강력추천'하는 프로그램. 수요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금요일 새벽 1시, 일요일 오전 11시 30분 방송.

또 힐링멘토 원빈 스님이 절에서 만난 친구들, 일명 '절친들'과 함께 일상과 수행의 무한 이야기를 펼치는 '청춘토크쇼 절친 시즌2'도 눈길을 끈다. 다사다난한 청춘들과 해결사 원빈 스님이 법구경을 통해 일상과 수행의 경계 없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낸다. 목요일 오후 12시 30분과 11시, 토요일 오후 9시, 일요일 새벽 1시 방송.

아울러 지난해 첫방송 된 후로 큰 인기를 끌었던 4승4색 신개념 토크쇼 '우리들의 토크쇼 세상만사'가 시즌2로 돌아온다. 이번 개편에는 4명의 스님들이 일반인들의 생활과 사회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수요일 오후 2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새벽 1시, 일요일 오후 10시 방송.

마지막으로 혜국 스님의 강좌 '부처님 생애'는 불자들에게 불교 교육을 더욱 알차게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평소에도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처님 알기가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하는 혜국 스님이 부처님 생애와 위대한 교훈을 심도 깊게 알려줄 예정이다. 월요일 오후 3시, 수요일 새벽 4시,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토요일 오전 9시 방송.

이밖에 기존 프로그램들의 시간 변경 관련 자세한 사항은 BTN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남전 스님의 속이 뻥 뚫리는 불교공부-우리도 부처님같이' 스틸컷.

박아름 기자

종이 해체·결합해 표현한 '空 사상'

신호윤 작가 기획전 '본질은 없다'

신호윤 작가의 기획전 '본질은 없다'가 5월 3~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에서 열린다.

신 작가는 종이를 소재로 현대사회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작가다. 이번 전시에선 종이를 해체하고 다시 붙이는 레이어 결합을 통해 부처의 형상을 있는 듯 없는 듯 표현, 공의 세계를 나타낸 작품 15점을 소개한다. 대표작 'There is no essence: Buddha' 'Strange Flowers' 등 포함 됐다.

박미현 미술평론가는 신호윤 작가의 '본질은 없다' 展에 대해 "작품 세계가 세포의 핵공과 같다"고 비유하며 "기도를 올리는 성상은 함부로 형체가 구체화되거나 굳어버리는 것을 막는다. 안팎을 넘나들며 형태를 초월하고 마음을 비운 작품"이라고 표현했다.

신호윤 작가는 2016년 상해국제인쇄주간 금상, 2015년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2012년 대한민국 종이예술작품 공모대전 대상, 2011 하청웅 청년작가 선정 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다.

박아름 기자





자연과 조화된 사찰길서 부처가 전한 화합을 읽다



국내 최장 현수교인 천장호 출렁다리를 건너는 도반들의 모습.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한 인공저수지와 칠갑산의 조화를 보며 부처님이 말한 자연의 섭리가 저절로 생각났다.

저 절로 가는 길
⑩ 장곡사 가는 길

"구경꾼 놈들의 간덩이를 덜컹덜컹 놀라게 해 주란 말야. 재주를 좀 부려, 재주를."

어느 봄날, 출렁다리를 건널 때 이청준의 단편소설 '줄'이 생각났다. 그중 서커스 단장이 줄광대 허 노인을 나무라는 대사를 나는 중얼거렸다. 천장호 출렁다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동양에서도 둘째가는 현수교라고 한다. 누구의 발상인지 다리 중간쯤에 구멍이 숭숭 뚫린 철망을 깔아 천장호를 아찔하게 내려다보게 했다. 앞서가던 남성이 손잡이 줄을 흔들어 뒤따르던 여성의 입에서 비명이 나왔다. 등산객들이 긴 다리를 건널 때 흔히 하는 장난이지만 늘 웃음을 유발한다.

1979년 담수를 시작한 천장호는 갈수기에도 바닥을 드러내는 일 없이 사시사철 잔잔한 물결을 이룬다.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해 인공으로 조성한 저수지가 칠갑산과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를 그려낸 것이었다. 자연스레 구경꾼들이 몰려왔다.

물은 불과 공기, 바람과 더불어 고대로부터 우주만물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의 하나이다. 천장호가 생기면서 천장호의 환경과 그 주변에 살던 사람의 생활이 개선되었다는 건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본보기지만 그러려면 사람과 사람이 먼저 조화를 이뤄내야 한다.

그래야 하는 까닭을 부처의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사카족과 콜리야족의 물싸움이다. 로히니강을 사이에 둔 사카족과 콜리야족 땅에 가뭄이 든 건 어느 여름이었다. 농부들은 물 한 바가지라도 더 대려고 새벽부터 물을 날랐지만 논바닥은 타들어 가기만 했다.

바닥을 드러낸 로히니강처럼 두 부족의 오랜 친교와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냈다. 그들은 얼마 남지 않은 물을 서로 양보하라며 싸웠다. 언쟁으로 시작된 싸움은 주먹질로 변했고 급기야 두 부족이 전쟁을 벌일 태세로 급변했다. 칼과 창을 무기고에서 꺼냈고, 기마 부대와 코끼리 부대까지 동원했다.

사카족과 콜리야족은 옥카카왕의 후손으로, 두 부족의 시조는 각각 옥카카의 왕자와 공주였다. 따지고 보면 친족이자 자매 사이라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도 서로 자기 영역을 지킬 수 있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향해 창칼과 활을 겨누고, 술 취한 코끼리들과 재갈을 물린 말들이 금세라도 대열에서 뛰쳐나가려 앞발을 높이 쳐들었을 때였다. 부처가 강둑을 따라 전쟁터로 다가오고 있었다. 드높던 아우성과 먼지가 한순간 잦아들었다. 부처는 창칼을 내려 놓고 엎드린 양쪽 군사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강물과 사람 중에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그야 사람이 훨씬 소중하다고 모두 입을 맞추었다.

"그런데도 물을 위해 사람의 목숨을 버리겠다고요? 로히니 강바닥을 피로 채우렵니까?"

부처는 손을 들어 먼 히말라야를 가리켰다.

"저 히말라야의 숲은 거센 태풍이 불어도 온전합니다. 수많은 나무와 덤불과 잡초가 서로 뒤엉켰기에 무엇 하나 다치지 않지요. 하지만 넓은 들판에 홀로 선 나무를 보십시오. 지금은 무성한 잎을 자랑하지만 태풍이 휩쓸면 뿌리째 뽑히고 맙니다."

부처는 자연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섭리를 가르쳤다. 사람과 사람이 조화를 이뤄야만 사람과 자연이 또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관계이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라야만 로히니 강의 메마른 바닥에도 물이 흐를 수 있는 관계였다. 모든 관계가 평화로이 공존하기를 부처는 소망한 것이었다.

다리를 건너와서 돌아보니 과연 최장의 현수교답게 다리가 시작되는 지점이 센 햇빛에 잠겨 있었다. 천장호 수면 위로 기슭의 언덕이며 정자가 데칼코마니를 이루었다. 뿌리째 뽑혀서 떠내려온 갈참나무 하나가 호수에 머리를 풀고 있었지만 그조차도 부처가 말한 자연의 어떤 섭리인 양 그리 흉해 보이지 않았다.

> "숲의 생태계는
> 나무와 나무의 어울림으로
> 우리의 사회는
> 사람과 사람의 어울림으로"

천장호는 칠갑산에 올라서도 한동안 시야를 떠나지 않았다. 철계단을 밟아 오르는데 알싸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멀리서 천장호를 내려다보니 물가에서 화르르 타오르는 꽃들이 초파일에 절을 둘러싼 연등 같았다. 산 아래뿐이 아니었다. 산 위에는 벌써 꽃이 피고 지고, 다시 피면서 봄이 행진하고 있었다. 조팝나무 꽃과 수수꽃다리가 파르르 바람에 흔들리고, 생강나무와 산수유나무는 져버린 꽃 대신 잎이 흔들렸다. 5월에 핀다는 병꽃나무와 고광나무도 미리 흔들리고 있었다. 꽃 피는 자리가 수시로 바뀐다. 전선 위에 앉아있던 새들이 공중에 날아올랐다가 다시 내려앉으면서 자리를 바꾸는 모양새다. 봄은 공중재편성의 시기이다. 내가 칠갑산에 갔을 때는 개나리꽃에서 진달래꽃으로 재편성되는 시기였다.

칠갑산은 아라비아숫자 7을 화두로 품은 산이다. 마야 왕비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부처는 일곱 걸음을 걸었다. 보리수 아래서 깨달은 후에도 부처는 일곱이란 숫자와 인연을 맺는다. 하루에 한 번씩 자리를 바꿔가며 보리수 곁에 있는 나무들 아래 앉았는데 모두 일곱 나무였다. 그때 이미 깨달음의 기쁨을 여러 나무,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무의식이 소망했던 것 같다. 부처와 깨달음의 기쁨을 함께했던 나무는 보리수 말고도, 라자야타나나무, 리파나나무, 문린나무, 아유타라니구나무, 반얀나무, 가리륵나무이다.

얼마 전 지하철 광고에선가, 어울림이란 글자의 맨 끝에 한글 대신 林자를 써서 어울林으로 표기한 글자를 보았다. 숲이라는 생태계를 기막히게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시대에도 사카족과 콜리야족이 있어 그 옛날 부처가 그리했듯이 숲의 교훈을 통해 국민 화합을 강조하려는 의도 같았다.

칠갑산 정상561m에 오르는 숲길에도 기막힌 어울림(林)이 있었다. 바로 연리지와 연리근의 나무 군락지이다. 우연히 한둘 정도면 모르겠으되, 수십 그루 이상이 한군데 모여 있는 건 여태 본 적이 없었다.

정상을 지나 S자로 구부러진 능선길을 몇 구비 돌면 장곡사(長谷寺)로 내려서는 갈림길이 나온다. 키 큰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찬 숲길을 지나자 상대웅전과 하대웅전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보였다.

장곡사의 전각과 불상들을 보자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초전법륜을 굴리던 부처가 생각났다.

"에히 비쿠!"

다섯 비구에게 차례로 구족계를 내려주고서 부처는 말했다.

"비구여, 물질은 영원불변한 내가 아닌 까닭에 병들고, 물질은 자유자재한 내가 아닌 까닭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물질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파괴되는 본성을 가진 그것들을 두고 과연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부처가 일찍이 장곡사에 다녀갔었나? 장곡사의 전각과 불상들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

고원영(조계종 산악회 수석부회장)



장곡사로 가는 칠갑산 오솔길.



흐드러지게 핀 황매화와 장곡사.



형형색색 연등이 걸린 장곡사 초입의 모습.

• 걷는길 : 마치고개(천장리) – 천장호 – 출렁다리 – 칠갑산 정상 – 삼형제봉 갈림길 – 장곡사 상대웅전, 하대웅전 – 칠갑산 도립공원 주차장
• 거리와 시간 : 11km 정도, 4시간 예상

불교도서, 명상음반,
불교용품 전문
운주사



미아리고개
• 성신여대
아리랑고개
• 4호선 성신여대입구 3번출구
동일하이빌 지하1층 운주사
• 성북구청

www.unjusa.com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Tel. 02-3672-7181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용수 스님(세첸코리아 대표)

티베트 불교 1분 명상

혼자 있어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고 싶지 않아서 외로운 것입니다.

스스로 행복하세요. 스스로 만족하세요.

안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행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홀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랑 같이 있어도, 혼자 있어도 행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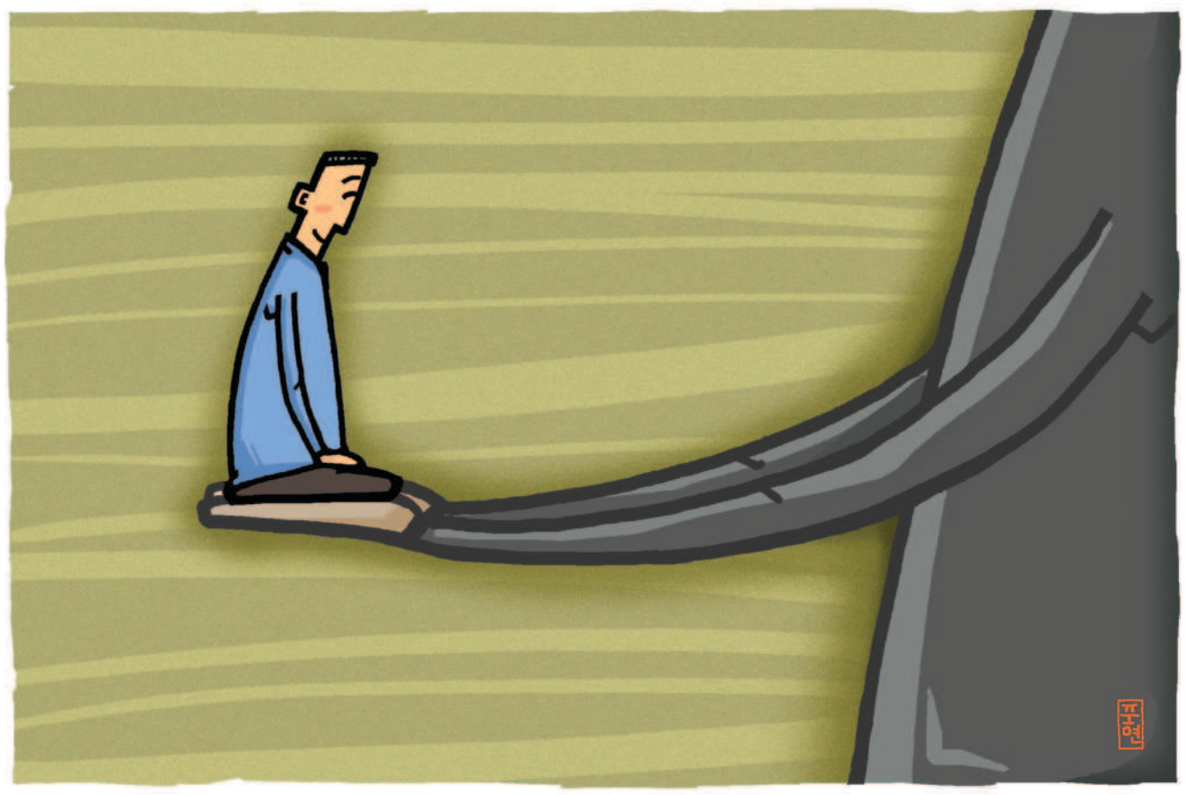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황선미(시인)

隨處作主,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청정한 품성, 사제 '상호 신뢰'의 기본

가섭에 보인 부처님 '염화미소'
사제 관계, 긴밀한 유대있어야
청정심 실천, 교육계 고민해야

옛날에는 제자가 스승을 찾을 때 한 다발의 회초리를 준비해서 갔다고 합니다. 학문과 덕행을 함께 절차탁마할 때 스승을 향한 철저한 신뢰와 그에 따른 절대적 순종이 교육의 바탕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체벌을 비롯해 여러 교육적 제약이 따르는 오늘날 교육현장에서는 인격 도야(陶冶)를 위해 학문적 지식과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배우는 학습법이 실험되고 있습니다.

시대와 무관하게 스승과 제자 간에 신뢰와 믿음이 존재하려면 부처님께서 두타(頭陀)제일 가섭존자에게 보인 염화미소(拈華微笑)와 같은 이심전심(以心傳心), 즉 정신적 이음이 필요합니다. 염화미소는 제자의 행동 하나로 그 근기를 파악하는 스승, 스승의 빙긋 웃는 미소만으로도 그 뜻을 이미 파악하는 제자 간의 말 없는 문답이며, 소통입니다. 교사와 학생이 아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고 전수받는 관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긴밀한 정신적 유대가 가능해야 합니다. 교육은 스승과 제자 서로의 정신적 성숙을 이끄는 위대한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실 때 첫 제자인 가섭존자에게 가사와 발우를 물려주셨습니다. 가사와 발우를 물려준 행위에는 이후 승단을 이끌어나갈 새로운 영도자, 스승의 역할을 맡긴다는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가섭존자는 부처님 뒤를 이어 수많은 불제자들의 스승이 된 것입니다. 가섭존자는 스승의 역할을 맡은 직후 유독 아난존자를 혹독하게 꾸짖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섭 꾸짖음으로 해탈한 아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수많은 아라한(眞人)들이 따라 열반(滅度)을 하게 됩니다. 가섭존자는 세상이 오래지 않아 다시 깊은 어둠에 빠져들 것을 염려하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뜻을 모아 부처님의 말씀과 승단의 규칙(經律)의 통일 작업(결집)을 해야겠다. 이를 통해 세상을 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보호하며, 열반에 이르기 전까지 세상을 교화하리라.'

가섭존자는 결집 대중을 모으고 아나율을 시켜 모임에 참석한 이들 중에서 범부(번뇌에 얽매여 있는 사람)가 있는지 살펴보게 했습니다. 아나율은 대중을 둘러본 다음 대가섭에게 아뢰었습니다.

"부처님 시자였던 아난은 앞으로 더 닦고 배워야 성취할 수 있는데 이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가섭존자는 아난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당장 일어나서 떠나시오. 그대는 부처님의 말씀의 요체를 결집할 수 없소. 그대에게는 허물이 있소. 첫째 여인이 출가하여 사문이 되게 했으며, 둘째 악마 파순의 가르침을 따르는 허물을 저질렀소. 셋째 세존께서 그대를 꾸짖을 때 한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말했으며, 넷째 세존의 금실로 짠 옷을 발로 넘었고, 다섯째 부처님 열반 당시 사라쌍수에 이르러 물을 청할 때 물을 드리지 않았으며, 여섯째 부처님이 이러저러한 말씀을 설하시어 금계를 따르도록 하였으나 그대는 염두에 두지 않았소. 또한 일곱째 세존의 음마장(陰馬藏)을 여러 대중들에게 보였으며, 여덟째 부처님의 자마금색을 여인들에게 보여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게 해 부처님의 발을 더럽혔소. 아홉째 그대만 세 가지 번뇌가 있어 더 배워서 도를 이뤄야 대중을 교화하는 일을 할 수 있소."

가섭존자의 질타에 아난은 사방을 둘러보며 슬피 울며 말했습니다.

"세존께서 열반에 드실 때 저에게 '그대는 슬피 울지 마라. 나에게 누(累)가 되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가섭께서 지금 작은 오해로 저를 용서하지 않으시니 마음을 푸십시오. 이후로 잘못하지 않겠습니다."

"울지 마시오. 그대는 인자의 공덕을 널리 갖추었으니 진리의 요체를 모임에서 반드시 여실하게 말해야하니, 충고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소. 아난이여, 이제 일어나 스스로 물러나시오."

아난은 자리에서 일어나 슬픔 마음으로 비구들을 둘러보고 수심어린 기색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날 밤 기지자(祇支子)의 지도를 받아 일체의 번뇌를 끊고 아라한도를 얻었습니다.

이튿날 가섭존자는 아난에게 "훌륭하고 훌륭하오. 그대가 깨달음을 얻어 내 마음은 뛸 듯이 기쁘오. 그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법안이 열렸고, 이제 법을 들어 널리 간직할 수 있으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가 무엇인지 대중에게 전해주시오."

존자들이 모두 함께 권하자 아난은 사자가 거닐 듯 사자좌에 올라 첫 마디를 토했습니다.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 〈가섭결경(迦葉結經)〉 中

스승이 지닌 연민의 마음

부처님 열반 직후 가섭존자를 비롯한 500명의 제자들이 모여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를 '제1차 결집'이라 부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단의 규율을 다함께 암송하는 형식(口傳)으로 진행된 1차 결집은 가섭존자가 주축이 되어 왕사성 칠엽굴에서 진행됐습니다. 경(經)은 아난존자, 율(律)은 지계제일인 우바리가 암송하고, 이후 500 비구의 승인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평생 부처님을 곁에서 모셨던 아난존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가 처음부터 환영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가섭존자가 아난존자를 호되게 꾸짖고, 결집하는 대중의 무리에서 나가게 한 이유는 제1차 결집 당시 철저한 검증과 논의가 필요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건을 통해 아난존자가 부족했던 한 조각을 채워 깨달음을 얻을 것이란 확신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스승은 지식과 기술이 능통한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배우는 제자의 근기에 맞춰주는 지혜와 함께 자제력과 연민의 마음도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원한다고 칼을 함부로 손에 쥐어줄 수는 없습니다. 배우는 자의 근기에 맞게 이끌고, 스스로 성장하는 기회를 지켜보는 자제력 역시 스승의 역할입니다.

제자의 4정근

부처님은 진리를 설하며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잇는 법맥을 보면 십대제자 중에서 지혜제일인 사리불이 법맥을 계승한 게 아니라 두타행을 실천한 마하가섭이 뒤를 이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37도품(三十七道品)'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는 방법을 네 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바로 ①아직 생기지 않은 악(惡)은 일어나지 않게 하고 ②이미 생긴 악을 끊어내고 ③ 아직 생기지 않은 선(善)을 일으키며 ④이미 생긴 선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게 하는 노력입니다. 즉, 이 네 가지 정근(精勤)은 선을 키우고 악을 버리도록 이끄는 가르침입니다. 〈유마경〉에는 '내가 맑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청정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스승의 자질을 논할 때도 청정한 품성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청정성은 그 가르침을 배워서 실천하는 불제자에게 가장 중요시됩니다. 청정한 본심과 실천, 우리 교육계도 한번쯤 생각해 볼 화두입니다.

불기2561(2017)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같이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함월산 기림사
'목탁소리가 끊이지 않는 수행 정진과 기도의 도량'
한문불전 성림금강 불교대학
사부대중 일동
■경북 경주시 양북면 호암리 417
TEL 054) 744-2292 FAX 054) 744-2269
www.kirimsa.net



불기2561(2017)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같이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대한불교조계종
오 어 사
주지 각원
사부대중 일동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어로 1
TEL 054)292-2083 / FAX 054)291-4190



불기2561(2017)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같이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영덕불교사암연합회
회원일동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BTN 봄개편

www.btn.co.kr

급 훈
실천하는 불교
다시뛰는 BTN

〈 개편 이행시 경시대회 〉



개 봉박두

편 안함 두 배, 유익함 두 배

개 념 꽉~ 차고

편 ~~편~~ FUN해진 BTN이 5월 8일 커밍 쑨!!

〈 시간표 〉

1교시	Hello This is Hwansan Sunim 3
2교시	원빈스님의 청춘토크쇼 절친
3교시	우리들의 토크쇼 세상만사
4교시	남전스님의 우리도 부처님같이
	점심시간
5교시	혜국스님 강좌 부처님의 생애

BTN 은 케이블TV(아날로그/디지털), 스카이라이프, IPTV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skylife 181번 olleh HD 233번 tv HD 305번 TV HD 185번 케이블TV 채널안내 : BTN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02.3270.3300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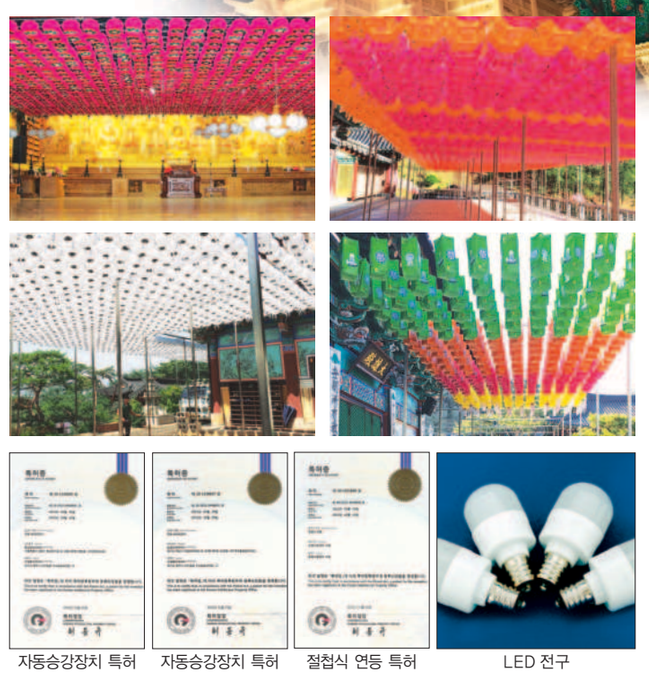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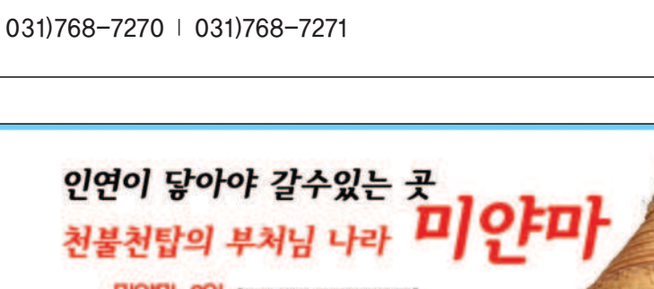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20년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YESGOOD.CO.LTD

문의전화 02-365-7747

오시는 길: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 앞 대불광빌딩2층
www.mahayeon.com

인연이 닿아야 갈수있는 곳 천불천탑의 부처님 나라 미얀마

미얀마 6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미얀마 7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따야]
미얀마 7일(3대 성지)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미얀마 5일 [양곤-바간-헤호]

한국-부탄 수교 30주년 할인 행사

행복한 불교왕국으로의 행복한 순례

부탄

마하연 부탄 전세기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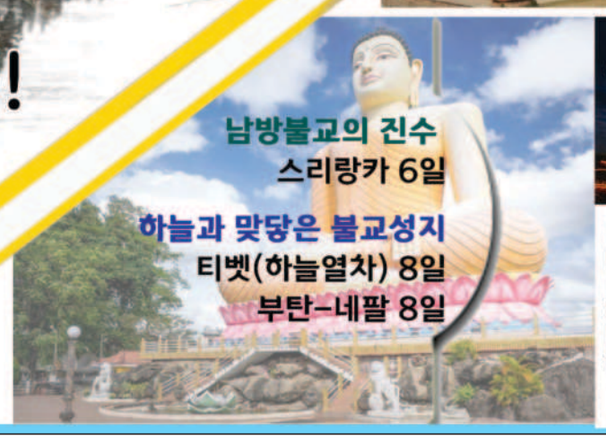
》6월 17일, 22일, 27일
7월 02일, 07일 (단 5회)

》239만원 (3성호텔)

》269만원 (4성호텔)
*가이드&기사팁 $60 불포함 상품입니다.

부처님의 탄생지에서 열반지까지 인도 네팔 8대 성지 순례 11일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6일 HOT
하롱베이-씨엠립



인도네시아 7일
족자카르타-발리
대만 5일
3대사찰 순례
태국 5일
방콕-아유타야-파타야

4대 불산 990,000~ 중국

- [지장도량]구화산-[관음도량]보타산6일
- [문수도량]오대산/북경/ 5일
- [보현도량]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지장도량]구화산/황산/상해 4일/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중원대불)
- 공중도시 면산-태항대협곡 5일
- 청도/곡부/태산6일(웨리크루즈)
- [관음도량] 보타,낙가산/상해 4일/5일